

제 7 집
서 면 편

향 토 사 료

연기대첩

청라리의

마지막 고려청자

인사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연기땅은 인심이 후하여 이곳을 지나는 이는 도시락이 없더라도 배불리 얻어 먹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네 농촌은 새참을 먹을때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이웃을 부르느라 풍성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향토 사료집은 연기군 전체가 아닌 7개읍 면중 서면을 우선 발행합니다.

서면(西面)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룡산(飛龍山)의 산삼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많은양의 산삼을 캐고 또 캐려했지만 금방 뿌린씨앗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 이를 지키다가 결국 마을만 만들고 죽은 고씨의 성을따서 고북리가 탄생했고 천여년이 지난 오늘에와서 산삼을 이십여뿌리 켜오니 전설은 현실과 이어주는 신비스러움을 잉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고향을 사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화 문명에서 사라져가는 옛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엮으는 것은 눈내리는 겨울 밤 화로에 고구마를 파묻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문화원이 이를대신 하려합니다.

이 한권의 책이 자라나는 후세에게 선인의 지혜와 우리마을이 탄생하게된 유래에 대해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 읍, 면을 차례로 자료를 수집하여 계속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이 발간되게끔 자료협조와 수고를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3년 11월 일

조치원문화원장 **장 영**

축간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 고유의 역사적인 사실과 선조들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운주산성과 금이성을 비롯한 서면 청라리의 도요지등 찬란했던 옛 문화유적이 여러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통문화 유적을 찾아내어 자라나는 새세대 청소년 및 군민들에게 조상의 얼을 전해주기 위하여 조치원문화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청라리의 마지막도공”을 발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군민들이 애독하여 우리고장의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조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더듬어 참다운 우리고장의 역사와 생활의 지혜를 찾아 가꾸어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주춧돌로 삼아 새롭게 번영하는 내고장 건설에 기여하고 이고장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이번에는 우리지역의 일부분적인 ‘서면편’을 발간하였지만 앞으로 각 지역별 유적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계속 발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책을 발간하기위하여 노력해주신 장영 조치원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1월 일

연기군수 권 오 창

축간사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날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천고마비의 계절, 단풍으로 물들은 산천 계곡들은 자랑이나 하듯 자태가 의연하고 황금물결치는 들녘을 바라보자면,

어느덧 그 모습이 사라져 가니 결실로 마음 뿌듯하면서도 한편 빈 들녘을 바라보면 쓸쓸한 마음 금할길 없군요

항상 우리 향토문화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서면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향토문화라 하면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민족혼이 담긴 가치관과 정통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권을 동서문화로 나누어 볼때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이질적인 가족관이 나 생활가치관이 그 민족 나름의 정통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동양문화권을 중심으로 우리민족 향토문화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침과 난을 많이 겪어 귀중한 문화유물등을 약탈당하고 훼손되어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로인해 최근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처음발견 공개되는 고 문헌이나 자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서면에서도 향토 문화발전을 위하여 정신및 물질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사장된 문화재 발굴이나 고 문헌 및 도서를 찾아내고 전설이나 유래에 의해 고증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전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고, 후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우리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하며 화합과 단결로 미지의 발굴과 개발에 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일

연기군 서면 지역구 출신
연 기 군 의 회 의 원 **유진국**

목 차

○ 인사말	- 문화원장 장 영	
○ 축간사	- 연기군수 권 오 창	
○ 축간사	- 연기군의회 의원 유 진 국	
□ 서면의 연혁	9
□ 서면의 지명유래	11
□ 충·효	29
- 한말의 청백리 유인철	30
- 한충선생의 묘	31
- 향리투사 홍일섭	31
- 까마귀도 감동한 효자 성이복	32
- 기도로 치유시킨 부안임씨	33
- 꼬마효자 김종철	34
- 일곱명의 효자가나온 홍연경 집안	35
- 열녀 의성김씨	36
- 효자 김한정	36
- 효자 김연	37
- 열녀 경주최씨	37
□ 전설	39
- 가마바위와 행상바위	40
- 장군수	41
- 대박산	41
- 비룡산의 산삼	42
- 와촌리 성황당	43
- 연기대첩	45

□ 사찰	47
- 연화사	48
- 학림사	49
- 광불사	51
- 불일선원	52
- 월현사	54
- 신복사	55
- 보림사	56
- 구곡암	57
- 봉서사	58
□ 옛 도요지	59
□ 청라리의 마지막 고려청자	65
□ 고려사절요	117
- 대동여지도	118
- 연기대첩(해설문)	119
- 고려사절요 (원본)	131
□ 편집후기	156

서면의 연혁



군립공원 고북저수지

서면(西面)의 연혁(沿革)

백제때(百濟) 서면(西面) 일부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신라 통일후(新羅統一候)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기문의(燕岐文義)와 그리고 대륙목천(大麓木川)의 령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과 전의현을 합한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그후 다시 연기현과 전기현으로 분류되어 조선말엽에 연기의 서남(西南)으로 연기군(燕岐郡)에 속하게 되었다.

관불산(冠佛山) 아래서 펼쳐진 이 지역은 신라때 정읍현(井邑縣)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당시의 고적(古蹟)이 현존하고 있으며 고려(高麗)때부터 명당지(名堂地)가 많아서 각(各)씨족(氏族)들이 자리를 정하면서 정착(定着)하여 씨족촌(氏族村)같은 구성으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1914년 이전은 작은 면적으로 조직(組織)되었기 때문에 면장(面長) 교체시(交替時) 면장 자택에서 사무(事務)를 인계하는 형편 이었는데 1914년 3월 도령(道令) 제2호로써 북일면(北一面)일부와 각면 일부를 편입(編入)하여 당시 36개리였는데 동년(同年) 7월에 동리구역(洞里區域)을 다시 정리하여 36개리를 9개리(個里)로 개편하였으며 면사무소를 봉암리(鳳岩里)에 두었던 바

1917년 조치원면(烏致院面)이 신설되면서 북면(北面)의 9개리를 편입하여 18개리를 관할하게 됐고 면사무소를 조치원에 두게되었는데 1921년 6월5일 공주와 조치원간의 국도변인 변암리(礮岩里)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다.

1940년 11월에 변암리(礮岩里) 신동(新洞) 내창(內倉) 동리(東里)등 4개리가 조치원으로 편입되면서

행정상 주민들의 불편됨을 고려하여 면 전체의 중심지인 성제리(性齊里)로 1942년 11월 27일에 면사무소를 이전하였으나 청사(廳舍)가 노후(老朽)되어 비가새는 불편속에서 수년을 고생하다가 1971년 10월 16일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연기군(燕岐郡)의 1읍 6면의 한면이 되었다.

서면의 지명유래



효동-효자효부가 많이 나오는 마을

서면(西面)지명(地名) 유래

청라리(靑羅里)

백제(百濟)때에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에 속했다. 고려때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태종때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에 연기군 서면의 지역(地域)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현지역을 청라리(靑羅里)라 부르고 있다.

나발터(羅發堡)

청라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나주라씨(羅州羅氏)들이 거주하였다가 이 곳에서 모두 떠났다가 하여 「나발터(羅發址)」라 불리웠으며 또한 지형(地形)이 「나발」 같다하여 「나발터」청라 「靑羅」라 부르기도 한다.

양진터(良津堡)

양달쪽 큰 은행(銀杏)나무가 서있는 마을이다. 양진(良津)이라 쓰기도한다. 전의 이씨(全義李氏)들의 거주지로 알려져있다.

헌터(憲堡)

양진터 맞은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진터 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이 트여서 환이 들여다보인다하여 원 마을이름이 북향촌(北向村)으로 망북(望北)이라 불렀었다.

효자인 홍우구(洪寓九)가 살면서 예의(禮儀)법도(法度)가 밝아짐에 따라 헌터(憲堡)가 밝아짐에 따라 헌터(憲堡)혹은(獻堡)라 부른다.

월하리(月河里)

백제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 령현(領縣)에 속하였다.

고려때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고 조선태조때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지역이었다. 예전에 월하방이 있었으므로 「가레리」 또는 「월하」 「월동」이라 불렀었다.

월동(月洞)

월하리에있는 마을이다 조선말엽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후건(閔候蹇)이 한양을 떠나 초야(草野)에 물히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고 풍류(風流)를 벗삼아 살았다하여 세월 좋은마을 이란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동(典洞)

참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을 전동(典洞)이라 부른다. 조선 인조(仁祖)때 인조가이괄의 난(亂)을 피하여 공주(公州)로 피난할때 난을 피해 피난온다는 말을듣고 이 마을사람들이 금강(錦江)까지가서 왕(王)을 영접(迎接)하였었다. 여기서사람들이 자기(自己)에게 환대하여 주는 것에 놀란 인조는 여기서사람들이 예전(禮典)에 바른 사람들이라하여 그들의 마을을 「典洞」이라 부를수 있게 하사 하였다. 「작은창고개」, 「새터말」이라고도 부른다.

월계(月溪)

「월하」아랫편을 월계(月溪)라 부른다. 마을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옛날에 서원(書院)이 있었던 마을이다. 예전엔 장이서는 시장이었는데 조치원 시장이 번성함에 따라 자연 여기 시장은 없어졌다.

예전에 서원이 있었던 곳이라 구서원이라고도 부른다. 청거리(淸巨里)를 중심으로 월계부락 일대와 봉암(鳳岩)뒷고개까지간 충남도인(忠南道人)의 시장(市場)이었는데 조치원시장이 철로개통과 더불어 번성함에 따라 월계시장(月溪市場)청거리시장(淸巨里市場)은 자연 폐쇄 되었다.

창령조씨(昌寧曹氏)의 집거지(集居地)임.

청거리(淸巨里)

조선말까지는 충남도인(忠南道人)의 시장으로충북인(忠北人)의 시장인 조치원시장과 큰 시장였고 음력 4일, 9일에 장이 섰으며 조치원시장의 번성으로 차츰 쇠퇴하여갔다.

부곡(富谷)

월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부곡사(富谷寺)란 절이 있었다해서 부곡(富谷)또는 부처곡 이라부른다.

뜸옥골

「전동」서쪽에 떨어진 마을이다. 고대시(古代時)오씨(吳氏)가 정착한 부락으로 오씨 문중의 (吳氏門中)에 대학자(大學者)의 호(號)가 두옥(斗玉)이라는 설(說)이있고 두옥동(斗玉洞) 중앙지점에 정안이씨(廷安李氏)원조묘(遠粗墓)가 있는데 기자손(基子孫)들이 묘아래에 마을을 이루면 부자로 살수 있다는 뜻에서 옥(玉)이 말(斗)로 담을 만큼 부유해진다는 두옥동(斗玉洞)이라했다.

오늘날에는 신리파(新里派)홍씨(洪氏)들의 집거지(集居誌)로 임(林) 이(李)노(盧)등 많은성이 거주하고 있음.

묘막(墓莫)

월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한 효자가 이곳 산속에 부친의 묘를 쓰고 3년간(三年間)시묘를 하였다해서 묘막이라 부른다. 그후 이곳엔 효자효부(孝子孝婦)의 마을로 통하게 되었다한다.

구서원(舊書院)

문정공(文貞公) 송계(松齊) 한충(韓忠)의 서원(書院)으로 서원을 봉암(鳳岩)으로 이전하면서 구서원(舊書院)이라고 했음.

용암리(龍岩里)

백제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에 속하였다.

고려때 청주목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엔 전기현(全岐縣)구였이었고 조선말에 연기군 서면 지역이었다.

금당산(金唐山)에 용거(龍巨)하는 설산(雪山)이있고 용바위가 있으므로 용암(龍岩)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동리(洞里)를 병합하여 용암리(龍岩里)라 하였다.

용암동(龍岩洞)

위양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금당산(金塘山)에 설산(雪山)이었고 마을뒤 우측으로 용암(龍岩)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옛날엔 한양(漢陽)에서 호남(湖南)에 이르는 역촌(驛村)처음 김씨(金氏)들이 정착(定着)한 마을이다.

용굴

위양골 서쪽에 있는굴이다. 바위에 굴이 뚫렸는데 그 깊이를 알수 없으며옛날에 용(龍)이 여기에서 승천(昇天)하였다 하여 큰 가뭄이 있으면 여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한다.

용이 나온 굴이라하여 용굴이라 부른다.

위양골(渭陽)

용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위양역(渭陽驛)이 있었던 곳으로 역졸(驛卒)들의 왕래가 많았던곳이다 그래서 역말 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남향촌(南鄉村)으로 되어 있어서 위양동(渭陽洞)이라 했다는데 위양동(渭池)와 위양(渭陽)을 합해서 약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위지울(渭池洞)

위양골 위에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와우형(臥牛形)이라한다. 월하천(月河川)상류는 본래 위수하류(渭水下流)에 위줄 이라고도 부르는데 서쪽에 위치한 부락이나 남향촌(南向村)이어서 항시 따뜻한 마을이라 한다.

검단(黔丹)

용암 서쪽에있는 마을이다 본래의 마을명은 금당(琴堂)이었다한다. 서민층의 거주지라해서 검단(黔丹) 혹은 儉丹)이라 부르게되었다 원예농가가 많다.

솔티(松峴)

경기·호남간의(京畿·湖南間)의 역촌(驛村)이었는데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고 현재 5,6세대의 원예가가 살고 있다.

와촌리(瓦村里)

백제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고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 청주목(淸州牧)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기에 연기군 서면에 속하였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기와집이 많은 곳으로 와촌리(瓦村里)라 하였다.

통미

전당골 앞들 가운데 있던작은 산을 통미라 부른다. 지금은 논을 정리하느라 없었지만 옛날엔 통미의 꽃밭하면 보기가 아름다운 곳으로 지적했었다.

군량골

창고개와 전당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정좌산(正左山)에서 고려와 중국 합단과의 싸움때 군량(軍糧)을 쌓아두었던 곳이라하여 군량골이라 부른다.

지와말(瓦村)

효방동(孝坊洞)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대실(大室)의 부자집(富家)과 함께 기와집이 많이섰던 마을이라해서 기와말이라 불렀다 한다. 기와말이 변해서 지와말로 변해서 부르게 되었다한다.

세조(世祖)때 화를 입은 충신 성삼문(忠臣 成三門)의 성씨(成氏)들이 숨어 살기위해 이곳에 정착 하였다하는데 지금은 16대에 이른다한다.

궁바골

와촌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마을 뒷산에 큰 굴이있었고 그 굴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한다. 헌데 그 호랑이는 밤이나 낮이나 마을을 바라보고 울었다 하는데 호랑이가 궁해서 우는 고을이라 하여 마을을 궁바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은암동(隱岩洞)

웃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숨은바위가 있다해서 숨은바위라고도 부른다.

마을뒤에 험준한 산이있고 또한 계곡(溪谷)이 있는데 바위의 한 부분이 불쭙 불쭙 튀어나와있어 바위가 전체를 숨기고 있는 형국(形局)이라하여 은암(隱岩)이라 부르는데 그 아래에 마을이 있다.

대실(大室)

대산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400여년전 성씨가문(成氏家門)의 정착지(定着地)로서 성씨의 종가(宗家)이며 부자로 살았다 해서 대실(大室)이라부르고 서계(西溪)라는 학자가 살았다 한다.

밤나무골(栗村)

대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밤나무가 많다해서 밤나무골 이라부르고 진원박씨(珍原朴氏)들이 5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번암터(礮岩洞)

지아말 북동쪽에있는 마을이다 장수바위가 있는데 장수바위가 있다 해서 번암터(礮岩堡)라 부른다.

조선초에는 흥덕장씨(興德張氏)들이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장씨촌(張氏村)으로 되었다. 번암 중앙이라 부른다.

효동(孝坊洞)

지아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옷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부터 순종안씨(順興安氏)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효자 효부(孝子孝婦)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해서 효방동(孝坊洞)이라 부른다.

쌍전리(雙錢里)

백제때는 두인지현(豆仍知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엔 연산문의(燕山文義)속했으며, 고려때 청주목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기현(全岐縣)구역이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 이었고 이곳의 산세가 수려해서 마치 중국에서 경치가 으뜸인 전당(錢唐)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쌍괴리, 전당리를 병합하여 쌍전리(雙錢里)라하여 북면에 편입하였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면에 편입되었다.

전당골(錢唐)

전성말 서쪽 들가운데 있는 마을을 전당골이라 부른다. 마을뒤에있는 정좌산(正左山)에서 고려워 원나라 장수가 몽고족 합단을 무찔러 섬멸하였다하여 이곳을 진선동(鎭善洞)이라 불렀었다. 그후 1400년 경 남양홍씨(南陽洪氏)와 강,유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산명(山明)이 수려(水麗)한 것이 중국의 전당(錢唐)과 흡사하다하여 마을을 전당 이라 부르고 전당골로 불리운다.

창고개(쌍괴-雙槐)

전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쌍괴라 부른다. 마을가운데에 괴목(槐木)이 있다하여 일제시(日帝時)괴자(槐字)를 넣어 쌍괴리라 했다.

못터

통미 옆에 있는 연못터를 못터라 부른다. 옛날에는 큰연못이 있었는데 큰 장마로 연못은 없어지고 못터만 남아있다한다.

군량골(軍糧洞)

정좌산전투(고려시대 합단과의 싸움)시 군사들이 먹을식량을 쌓아 놓았던 창고가 있던 곳 이라는데서 연유.

쌍유리(雙流里)

백제때는 구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는 대록군(大麓郡)의 령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때는 청주목에 속했으며 조선태종(太宗)때 연기현과 전의현이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

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 되었다. 초당산(草堂山)을 중간(仲間)에 두고 계곡(溪谷)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마을아래서 합하므로 쌍류(雙流)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동리(洞里)를 병합하여 쌍유리(雙流里)라하였다.

일곱길바위

권터골 뒷산에 있는 바위를 일곱길바위라고 부른다. 일명 장수바위라고도 부르는데 바위길이가 일곱 길이라해서 그리부른다.

솔티

쌍유리에서 전동면 송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솔티라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라 부른다. 솔티 고개는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있고 솔티 마을엔 예전에 송현원(松峴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마을이었다 한다.

월정(月亭)

밀말 건너에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원래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제실(齊室)이 있는 곳이라 송제실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전(前) 참판(參判) 이승순(李承純)이 이 마을로 낙향(落鄉)한 후부터는 그의 호 월정(月亭)을 따서 부르게 되었고 월정(月亭)이란 정자가 있었다한다.

성당(聖堂)절터

권터골 뒤에있는 골짜기를 성당절터라 부른다. 옛날에 성당사(聖堂寺)란 절이 있었다하여 성당절터라 부른다.

생천(生千)

별말 북쪽 큰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큰 길가이면서도 피난처로 알려져있다 임진왜란때 이곳에 천명이 피난하여 무사했다한다 그래서 천명의 목숨이 살아났다하여 생천(生千)이라 부른다. 주거성씨(姓氏)는 李, 徐이다.

별말

쌍유리 앞 별관에 있는 마을을 별말이라 부른다 들에 마을이 있다해서 별말이라 부른다. 이 부근에서 강물이 서로 합치는가하면 지형(地形)이 또한 행단형(行丹形)이란 명당(明堂)자리라 하는데 근 300년을 두고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권터골(또는 松岩)

쌍유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엔 소나무와 바위가 많고 선길바위 50文岩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권씨(權氏)라해서 이 마을을 권터골이라 부른다 한다.

신대리(新岱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이었다.

고려때엔 청주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조태종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년간에 홍씨(洪氏)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새터를 잡아 홍씨(洪氏)들 40여호가 마을을 이루면서 새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1914년 행정개혁때 동리를 병합하여 행정구역상 신대리(新岱里)라하고 연기군 서면(西面)에 속하게 되었다.

강골

불당골 서쪽 큰 골짜기 입구에있는 마을을 강골 또는 강동리(江東里)라 부른다. 마을이 강의동쪽에 위치한다해서 그리 부른다 한다.

송적골

신대리 막바지 골짜기에 있는마을이다. 마을 뒷편으로 경기 호남간의 국로(國路)가 개통될때 작은솔티고개가 잘라지면서 소송(小松) 송적골로 부르게 되었다.

송정(松亭)

신대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300년간이나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의 집거지였고 또한 그후 거유(巨儒)박당 정용몽등이 학자들을 영입(迎入)하여 송정(松亭)을 설립하고 유홍양대성(俞洪兩大姓)의 젊은이들을 훈도(訓導)했던 유서깊은 마을이다.

마을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송정(松亭)이라 부른다.

살구정(杏花)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정이라 부르게되었다 한다. 살구나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여 마을을 향화(香花)라고도 부른다.

조선중엽에 경기호남간 큰도로가 마을앞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동구(洞口)밖에는 길손을 기다리는 주점(酒店)이 있었다해서 안동네를 행정(杏亭)이라 불렀다.

신대(新岱)

살구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남양홍씨(南陽洪氏)의 시점지(始占地)로 여기에서 대박산(大朴山)의 수구(水口)까지 옥야(沃野)10리가 개간되고 40여호의 홍씨들이 집거(集居)하여 살던 부유촌(富裕村)으로 새롭게 이룩한 마을이라하여 새터말 또는 신대 新岱라 부른다.

불당골

새터말 북쪽에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큰 절이있었는데 어느날부터 빈대가 들끓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찰에 불을질러 폐사하고 절터만이 전하여 불당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홍씨(洪氏)와 김씨(金氏)가 의중계 살았다해서 마을을 우덕(友德)이라고 부른다.

숫골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400년대에 연서홍씨(燕西洪氏)의 정착지 이기도하다. 옛날에 숫을 굽던 곳이라하여 숫골이라 불렀다. 「숫골」이 변해서 숫골이 되었다

의넘어(義洞)

원래는 성주현씨(星州玄氏)의 묘지가 살던곳으로 동전평야(洞前平野)를 「이넘어」로 부른 것은 주민들이 능선(稜線)넘어있는 이 마을을 부지중(不知中)에 「이넘어말」로 호칭(呼稱)하기에 비롯했다함. 그 후 3.1운동 당시에 항일투사(抗日鬪士)로 알려진 의사 홍일섭(義士洪逸燮)의 만세지라해서 의동(義洞)으로 개칭(改稱)하였다 함.

성제리(性齊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의 령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 청주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조때엔 전기현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뒷산에 성(城)처럼 되어있으므로 성재 또는 성작골 그리고 도맥(道脈)이라고도 불려왔는데 남양홍씨의 학자가 당호(堂號)를 성제(性齊)라 한이가있어 성재로 많이 불려왔다.

1914년 행정 개혁때 이웃 동(洞)을 병합하여 성제리(性齊里)라하고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승작골(勝敵洞)

고려 충렬왕 17년 원나라에 반기를 들은 합단이 쳐들어오자 고려와 원나라 장수의 연합으로 크게 승리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

서당골(書堂洞)

괴성앞에 있는 마을이다. 이조 효종때 공판(工判) 홍우극(洪禹極)부자(父子)와 세문당(歲文堂) 홍선생이 서당을 짓고 서생(書生)을 가르킨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부른다.

두루봉

두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비룡산 문맥(文脈)이 이 마을 뒤로부터 우측(右側)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둥근박과 같다하여 두루봉 또는 원봉(圓峰)이라 부른다한다. 기계유씨들이 300여년 전부터 새거지로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10여호가 살고있다.

원성제(原性齊)

성제리에있는 마을이다. 명거(名巨) 홍이경(洪履慶)의 손자 홍우(洪禹)가 그 당시 명유(名儒)로서 호(號)_가 성제(性齊)였으므로 그가있던 이 마을을 원성제(原性齊)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지금도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괴동(槐洞)

두루봉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등우리재 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작은 등우리 같이 생긴 지형(地形)이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일정시대에 마을 입구에 괴목(槐木)이 큰 것이 있다해서 괴동(槐洞)이라

불렀다.

성뜸

괴성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成氏가 살았다해서 성씨(成氏)안착한 곳이라해서 성뜸이라 부른다한다.

과성

등우리재 넘어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새의 등우리처럼 되어있었는데 등우리재의 혼동을 피하여 한자로 「과성」 「새말」 또는 「봉촌리」라 부른다.

새말(巢城)

성뜸에서 지사로 통한 지형이이 대형계소형(大型계巢形)으로 되어서 巢城이라 칭(稱)하나 원동명(元洞名)은 봉촌(鳳村-새마을)혹(或)은 신리(新里)로 불러왔다.

부동리(釜洞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엔 연산문(燕山文義)의 령현(領縣)이었다. 고려때엔 청주고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엔 전기현에 속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군내면의 지역이었다.

옛날에 그릇 가마를 묻었던 자리가 있다하여 「가마골」 「부동(釜洞)」으로 불리워지던 곳으로 1914년에 행정개혁때 치암리와 서면의 오룡리를 병합하여 「부동리」라하고 서면에 편입되었다.

원부동(元釜洞)

부동리 원마을이다 부동리에서 가장빨리 마을이 형성(形成)되었던 곳으로 가마술과 인연이 있는 원마을이다해서 「원부동」이라 부른다.

치암(稚岩)

부동리에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해서 마을을 「치암」 또는 「썩바위」라 부른다한다. 동네의 동북편 산중에서 가계(家鷄)와 야계(野鷄)가 아침저녁으로 산록중문지점(山麓中文支點)에 내려와서 모이를 먹으면서 낳(繁殖)하므로 인명(因名)되었다는데 부지중(不知中)에 산치(山雉)가 감적(減迹)하면서 이에 따라 가계(家鷄)도 은적(隱迹)하더니 동명(洞名)마저 패동(敗洞)되었음.

가마골(釜洞)

고려 충렬왕 17년 쌍전리 정좌산 전투에서 고려와 원나라 장수가 원나라에 반기를 들은 합단을 무찌르기위해 큰숫을 걸었던 곳이라하여 붙여진이름이고 또한 큰부자가 매일 100명의 식구들이 먹을 밥을 하기위해 큰숫을 걸어왔다는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룡동(五龍洞)

썩바위 서쪽에있는 마을이다. 이부근에 오룡정주형(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고 지형이 오룡처럼 되어

있다하여 「오룡동」 또는 오룡골이라 부른다 한다.

홍촉골(紅燭)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날밤 꿈에 보기를 자기가 정착한 집 부근의 땅이 어찌도 밝은지 어둠에서도 땅에서 광채가 환한 대낮 같았다하여 「홍촉골(紅燭)」이라 부르게 하였다.

지금은 마을부근의 산흙이 모두 붉은 황토(黃土)라 한다.

방죽안(防築)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마을앞에 큰 방죽이 있어서 약(約)10정보(町步)나 되어 가물때에는 전답에 물을 대었다한다. 큰 방죽안에 마을이었다해서 「방죽안」 또는 「방축동」이라 부른다.

산수동(山水洞)

오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면 북쪽에 관불산이 있고 봉산(峰山)이 우뚝 솟아 있는가하면 미호천 동강(桐江)이 유유히 흐르고 산수가 수려한 환경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동네라하여 산수동 이라 부른다. 옛 산소(山所)가 있다. 「산숫골」이라고도 부른다. 200여년 전부터 기계유씨들이 거주하던 터전이다.

봉암리(鳳岩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했었다. 삼국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에 속했으며 고려때엔 청주에 속하였고 조선초엔 전기현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봉(鳳)바위가 있어서 「부영바위」 「봉암」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군내면의 봉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봉암리라 하여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봉황산(鳳凰山)

봉암(鳳岩)동쪽에 있는 산이다. 봉바위가 있다해서(鳳凰山)이라 부른다 한다. 여기서 상고시대(上古時代)의 동검(銅劍) 동시(銅矢) 동창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우 유복하게 번성하는 이유를 봉황산에 미루는 방법이 많다.

봉암(鳳岩)

〈주막거리〉앞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봉황산(鳳凰山)이란 산이 있고 그 산에 봉바위란 바위가 있다해서 마을을 봉바위라 부른다. 또한 봉암(鳳岩)이라고도 부른다.

주막거리

〈봉암〉뒤 큰 길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여기엔 주막과 가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큰하여 서성거리는 거리라 하여 〈주막거리〉라 한다.

기양학교(岐陽學校)

서면 봉암리에 기양학교란 사립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농촌(農村)의 청소년(靑少年)을 깨우쳐 민족(民族)의 이념(理念)을 배워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청소년들이 위대한 꿈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설립을 본 학교로서 서면 봉암리 이락당(二樂堂)에 있었다.

설립(設立)은 1904년 4월이었고 설립자(設立者)는 민족애가 뚜렷한 윤준식(尹浚植)과 한일동(韓日東) 두사람이 있고 초대교장(初代校長)은 윤준식(尹浚植)이었다 한다. 몇년만에 폐교(廢校)했지만 많은 인재(人材)를 배출하였다.

봉바위

봉황산 동쪽에 있는 바위를 <봉바위>라 부른다. 이바위는 꼭 봉황처럼 주둥이가 <창고개>를 향하고 있는데 <창고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봉황이 <창고개>를 파먹고 똥을 봉암에다 똥으로 봉암은 잘되고 <창고개>는 가난하게 된다 하여 그 바위를 몰래 떨어 버렸다 한다.

기룡리(起龍里)

백제때는 두인지현에 속하였고 삼국통일후(三國統一後)엔 연산 문의(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때엔 청주(淸州)의 관할이었고 조선초엽엔 연기현에 속했고 조선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다. 지형이 용(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계(形計)라 하여 그 뜻을 따라 기룡(起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개혁(行政改革)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기룡리(起龍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효교(孝橋) 현평전부락남쪽(現坪田部落南쪽)의 홍씨(洪氏)가 백여년 전에 쇠미한락(衰微寒落)하면서 평택(平澤) 임씨(林氏)가 계점복거(繼占卜居)할때 이 지역(地域)은 하동막(下東幕-아래 동막골)으로 호칭(呼稱)되면서 소계(小溪)를 건너가서 일소동(一小洞)을 이루고 거주하던 임시부락이 기룡(起龍)인데 원명은 월동(越冬-건너말)이었다. 한편 1895년(高宗 32) 동리거장(洞里居長)인 林씨가 북이면장(北二面長)으로 취임(就任)하여 자택(自宅)에서 면사무(面事務)를 집행(執務)하면서부터 월동(越冬)을 기룡(起龍)으로 개칭(改稱)하기에 이르렀다.

요화리

<동막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요화방(堯化防)이었다하여 요화리라 부른다 한다. 요화방(堯化坊)은 현재의 기룡리(起龍里)의 전역(全域)의 통칭(通稱)이었다는 설(說)이 있으나, 요화방(堯化坊)은 패동(敗洞)되었음. 그런데 현재의 평전(坪田)이 300년전에는 요화방(堯化坊)이오. 200년 전에는 효교(孝橋)였다하여 한동안은 하동막(下東幕)으로 불리었다 한다.

오세구효비(五世九孝碑)

<망골> 입구에 있는 비(碑)이다. 효자(孝子) 홍연경(洪延慶)과 그아들 홍연설(洪延高) 손자 홍우적(洪禹績), 홍우평(洪禹平), 홍우구(洪禹九) 증손 우만 현손 홍득일(洪得一)오세손, 홍상덕(洪相應)의 효행(孝行)이 지극하여 오세구효(五世九孝)가 됨으로 영조(英祖)]가 그 사는 마을의 이름을 효교(孝橋)라고 쳐 줄 만큼 홍씨(洪氏)들의 가문(家門)을 빛낸 효행비(孝行碑)다.

시묘동(侍墓洞)

〈망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시묘동(侍墓洞)이라 부른다. 효자(孝子) 홍우구(洪禹九)가 그 부모상을 당하여 이곳에서 시묘하는데 범이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오르다가 시묘가 끝나자 범도 가고 우물도 끊어졌다 한다. 효자(孝子)가 효도(孝道)하는 골짜기로 효묘동(孝墓洞) 또는 〈시묘골〉이라 부른다.

망골

기룡리(起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 앞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도둑이 많아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되어 〈막은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망골〉이 되었다 한다. 이곳에는 홍씨가내(洪氏家內)에 일곱효자가 났으므로 영조(英祖)가 마을 이름을 〈효교〉라 고쳐 주기도 하여 〈효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랑이골

〈매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다랑이골〉이라 부른다. 여기엔 옛날부터 논다랑이가 많이 나는 골짜기라 해서 〈다랑이골〉이라 부른다 한다.

원기룡(元起龍)

평전(坪田)동쪽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선지(仙地)로서 기룡(起龍)의 원마을이라 하여 원기룡(元起龍)이라 부른다 한다. 〈건너말〉이라고도 부른다.

정골(鳳崗)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참의(參議)를 지낸 홍연경(洪延慶)의 제삼자인 연당공(延亮公)이 처음 정착(定着)한 마을로 마을의 형태(形態)가 문경조령(門慶鳥嶺)과 같다해서 봉강(鳳崗)이라 부른다 한다.

산이 사방으로 둘러 쌓으며 옛날엔 그릇점이 있었던 마을이다.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동막골(東幕골)

〈망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의 평정부담(坪田部落) 남쪽에 자리잡은 홍씨(洪氏)가 옛날에 어렵게 살때 임씨(林氏)들의 가문(家門)이 번창하면서 임씨(林氏)들이 동쪽의 막이라 붙여준 동명(洞名)이라 한다. 동막(東幕)이라고도 부른다.

자룡(自龍)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충주양씨(忠州梁氏)가 처음 정착(定着)한 마을로서 뒤 산맥(山脈)이 비룡산(飛龍山)에서 이어졌다 하여 용(龍)이 올라갔다는 굴도 있고 해서 자룡(自龍)이라 부른다 한다.

은골(隱洞)

〈망골〉 북쪽산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다. 동산(東山)부락 동북편에 작은 언덕을 이룩한 지대에 가호(家戶)가 적재되어 있는 마을인데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이 이룩되었다 하여 은동(隱洞) 또는

은골〉이라 부른다 한다.

평전(坪田)

〈망골〉 남서쪽 평탄한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을 평전(坪田)이라 부른다. 임씨(林氏)들이 이룩한 마을 평탄한 들에 마을을 이룩하였다하여 그리부른다 한다.

동산(東山)

신림(新林)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동명(元東名)은 사기점(沙器店)이 있다 해서 〈사기점골〉인데 임씨(林氏)들이 신림(新林)에 자리잡다가 가계(家系)가 번창해짐으로 동쪽으로 와서 한자리를 잡아 산아래에 부락을 형성하였다해서 동산(東山)이라 부른다 한다.

원동명(元東名)은 사기점골이었는데 신림(新林)에서 살던 임씨(林氏)들이 동족(同族)이 잡거(雜居)했다해서 동산(東山)이라 함.

신림(新林)

기룡리(起龍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평택임씨(平澤林氏)의 일가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임순우(林舜宇)란 사람이 공주(公州)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정착(定着)하면서부터 임씨(林氏)들이 이룩한 마을인데 그 당시 새로 임씨(林氏)들이 이룩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신림(新林)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은행정·정유(傳谷)

신촌(新村)과 은동(隱洞)사이에 있는 부락(部落)이었는데 예전에 동구(洞口)에 거대(巨大)한 은행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칭(稱)했으나 일제시(日帝時)에 은동(隱洞)으로 합병(合併) 폐동(敗洞)되었다.

국촌리(菊村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는 연산문의(燕山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때 청주(淸州)의 관할이기도 했었고 이조 태종(李朝 太宗)때부터 전기현의 지역이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었다.

이 지역은 국화(菊花)가 많이 피서 국화향기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래서 국촌이라 불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개혁때 이웃의 독동리의 대박리 후덕리를 병합하여 국촌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후덕동(厚德洞)

국촌리(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뒤에 기계유씨의 묘(墓)가 하나 있는데 그는 천성(天性)이 착실하여 어느날 우연히 큰 고을에 갔다가 고아(孤兒)가 된 정동(鄭童)을 주워다가 키웠는데 그는 또한 머리가 좋아서 글도 잘 읽고 해서 10여년을 공부한 끝에 크게 성장(成功)하여 전라도(全羅道)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키우고 크게 성공시킨 유씨가 죽자 그는 전라도에

서 여기를 찾아와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묘지(墓地)를 정해서 유씨가 살던 이 마을을 후한 인덕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후덕동(厚德洞)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 <후덕골> 이라고도 부른다. 기계유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느실

국 촌리(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이 부락은 지형(地形)이 가늘고 긴 협곡(峽谷)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을 <가느실> 또는 세곡(細谷)이라 부른다 한다.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독골

<국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독골> 이라 한다. 옛날 어느 총각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기를 정했다 해서 <독골> <독동> 이라 부른다 한다.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대박(大朴)

<독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대박(大朴)이라 부른다. 대박동(大朴洞) 후산(後山)은 비룡산(飛龍山)줄기가 장장 20리를 잔잔하게 산세가 뾰뚱하게 말단에 와서 함박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대박(大朴) 즉 큰 박이라 해서 대박(大朴) 이라 부른다 한다. <함박산> 이라고도 부르는데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국말

<독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을이면 국화꽃이 만발하는 마을이라 해서 <국말> 또는 국(菊)촌이라 부른다 한다. 또한 여기 마을 산형(山形)도 만발한 국화같다고 한다.

정잣골

<독골> 백호쪽에 있는 골짜기를 <정잣골> 이라 부른다. 여기엔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정잣골> 이라 부르는데 옛날에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꼭꼭 쉬어가던 마을이라 한다.

섬들

<독골> 앞 북쪽넓은 들에 있는 작은들을 <섬들> 이라 부른다. 이기 섬들은 마치 큰 바다속의 섬처럼 생겼다해서 <섬들> 이라 부른다 한다.

벼락정이

<정잣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벼락정이> 라고 부른다. <벼락정이> 란 여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 부서졌다 해서 벼락에 맞아 부서진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벼락정이> 라 부른다 한다.

여기 바위엔 옛날부터 큰 지네가 살고 있었다 한다. 그 지네는 가끔 바위에선 나와서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곤 했는데 하루는 여기를 마침 신혼행렬(新婚行列)이 지나갈때 그 지네가 나타나서 신부(新婦)가 타고 있는 가마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자 변안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지네만 죽게 했다는데 그때 벼락에 지네가 살고 있던 바위도 부서졌다 한다. 그래서 <벼락정이> 또는 전암(電岩)이라고 부른다.

고복리(高福里)

백제(百濟)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新羅統一後)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이었는데. 고려(高麗)때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 성씨(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밑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라 하여 고산(高山)이라 불렀다.

또한 아래 부분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이곳은(복골)이라 불렀는데 서기 1914년 행정개혁시(行政改革時) 이곳은 동리(洞里)를 병합하여 고복리(高福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하복(下福)

〈아래복골〉이라고도 부른다. 〈고복골〉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골〉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해서 하복(下福) 〈아래복골〉이라 부른다.

서복(西福)

〈서복동〉이라고도 부른다. 〈위복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복골〉서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서복(西福)이라 부른다.

상복(上福)

〈고복골〉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처음은 복(福)골이라 불렀으나 복(福)골 위쪽에 위치한다 하여 상복(上福)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부안임씨(扶安 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사랑말

〈상복〉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960년에 사방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을때 이곳에 사방관리소(砂防管理所)가 있었다 하여 〈사방말〉이라 부른다 한다.

비룡산(飛龍山)

서고(西高)뒤에 있는 산을 비룡산(飛龍山)이라 부른다. 사람이 소리를 치면 이 산에서 울려 퍼지는데 돌을 떼어낸 후부터 잘 울리지 아니한다고 전한다. 산삼이 있으므로 용이 승천(昇天)하기 위해선 산삼을 캐먹기 위해 물줄기를 타고 올라왔다가 산삼을 먹기까지 50년이 걸리는 세월이 흐른다 한다. 용이 승천(昇天)하는 산이라 해서 비룡산(飛龍山)이라 부르며 산삼이 있으므로 산아래 물줄기에는 잉어가 올라오지 못한다 한다.

서고(西高)

〈위복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高福)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서고(西高)라 부른다 한다. 경설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현명(現名)인 고복리(高福里)는 고산동(高山洞)이 합동(合洞)되었음. 고산동(高山洞)은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고산현(高山縣)으로 서고부락(西高部落)이 현공서지(縣公署地)고 대향편(對向便)의 동고부락(東高部落)의 향교촌(鄉校村)이었다. 서고후방(西高後方) 비룡산록(飛龍山麓)에 고산현시대(高山縣時代)의 고산지(高山寺址)가 있는데 이 사지(寺址)에는 고사(古寺)의 유물(遺物)이 지금(只今)도 출현(出現)한다고 한다.

동고(東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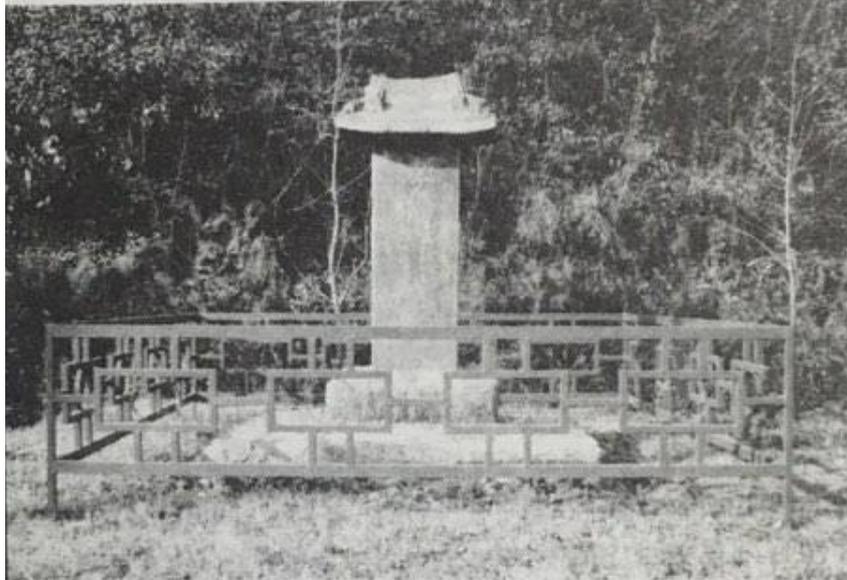
〈고산골〉에서 동쪽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다. 고복(高福)골의 동쪽에 마을이 있다해서 동고(東高)라 부른다. 동쪽에 복(福)이 기승 마을이란 뜻이다. 결성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산현시대(高山縣時代) 향교촌(鄕校村)으로 지금도 부근 계곡 전답등지에서 옛 기와 조각이 보인다 함.

고산골

〈동고〉와 〈서고〉를 통털어 〈고산골〉이라 부른다. 조선초엽 성씨(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 밑에 마을이 위치(位置)하였다 하여고산(高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뒷산을 복이 깃든 높은 이라하여 고복산(高福山)이라 부른다 한다.

충 · 효



효교비(孝橋碑)-도지정 유형문화재 제 108호

한말의 청백리 류인철

가정에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관직에서는 청백리요, 향리에서는 석학양성의 선구자이었다.

선생은 1854년 2월 9일 서면 성계리에서 류건영의 맏아들로 태어나 과산(把山) 홍선생으로부터 수학하여 문예가 뛰어났으며 15세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두동생을 맡아 집안을 이끌어 나갔다.

10리 길이 넘는 곳에까지 가서 먼산 나무를 해다가 겨울을 재냈고 농번기에는 손수 쟁기질까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일하다 쉴 때는 꼭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앞날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아니라 홀로 계신 아버지께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다. 근면하고 문예와 학문연구에 몰두 하였으며, 그 예로 글씨를 쓸 때 붓을 꼭 잡고 정성껏 쓰기에 장정 친구가 붓대를 잡아당겨도 빼앗지 못하였다고 한다.

1888년 5월 17일 명륜당에서 탁과별시문과초시(度科別試文科 初試)에 합격하였으며, 1890년 12월에 대과에 합격한 후에는 비서원에 근무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인이 별세 하였을 때에도 나라 일이 더 중하다하며 오지 않았다 한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어전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비서원승(秘書院承)으로서 승정원일기의 원초본(原初本)을 작성 이기(移記)하였다.

1902년 3월에 이조실록을 보관하고있던 무주의 적장산성사고(赤掌山城史庫)의 점검을 하명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본 바 퇴락하였으므로 스스로 보수할 수 없으므로 사실대로 보고한 바, 왕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전에 사관들은 한마디 아무 말이 없었느냐 하고 군수를 통해 10만냥을 송부해 왔으므로 10개월만에 6만냥으로 준공하고 나머지 4만냥은 국가에 반환하였다. 이 소식을 들으신 왕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치하 하셨으며, 공은 충성하고 청렴함으로 청백리(清白吏)라고 칭송하셨다.

1903년 신병으로 낙향하여서 병을 치료하던중,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배우고자 하는 젊은 이와 문맹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1908년 서면 고북리에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설립하고 직접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측량과등을 두었고 배달가(倍達歌)(一학도가라고도함)를 작사 작곡하였으며 시대에 적합한 천문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집에는 학당을 두고 인근 각처의 젊은이는 안배운이가 없었으며 전국이 유럽 학자들과 애국지사의 왕래가 끊일날이 없었다.

특히 1919년 기미 3.1운동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소 민족의 서러움과 독립운동을 호소 하였으며 애국가와 태극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으며, 왜경의 잦은 협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홍일섭과 함께 인근 부락을 동원시켜 일제히 봉화가 울러지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와같이 선생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관직에서는 송죽같은 청백리요, 향리에서는 석학 양성의 선구자였다.

※ 참고문헌: 燕岐誌. 族譜

한충(韓忠)선생의 묘

송제 한충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470여년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증중리 학곡(鶴谷)에서 참의공 창유(昌愈)의 장남으로 태어 났으니 때는 이조 성종 17년 (서기 1486년) 7월 2일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도량이 넓고 용모가 단정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일컫더니 3살의 어린 나이로 천자문을 배우고 7살에 시(詩)를 지을 줄 알았고 12세에 이르러 충청감시에 급제하였다.

1513년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1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겨울(1919년 12월 20일)을묘사화(乙卯士禍)에 조광조(趙光祖)와 교우가 있었다하여 거제도로 유배되어 2년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육성 하였으며 임금을 위한 충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1521년(중종16년) 11월 21일 임금의 보살핌을 받아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왔으나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자객에게 피살되니 때는 1521년 12월 22일 선생의 나이 35살이었다.

뜻있는 선비는 (士君子)
오직 나라 있음을 알뿐 (但知有國)
집이 있음을 생각지 않으며 (不如有家)
다만 임금이 계심을 알고 (但知有君)
제 몸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不如有身)

위 글귀에서 우리는 선생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인품을 짐작 할 수 있다. 연기군 서면 고북리 산양동에 그분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碑文

홍일섭(洪日燮)

고종 15년 1878~1935년

남양인(南陽人). 연기군 서면 신대리에서 태어난 그는 광무(光武)10년 (1906)8월에 시종원 주사(侍從院 主事)에 응시하여 임명을 받은 후 헤이그밀사사건을 거치면서 국운(國運)이 날로 쇠하고 있음을 개탄하여 직(職)을 버리고 귀향하여 은거하던 중 3·1운동을 맞이하였다.

3월 30일 조치원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벌릴 것을 계획한 그는 당시의 연기청년회원들을 곳곳에 배치한 후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검거되었다. 그때 체포된 수십명의 인사들은 다시는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풀려 나왔지만 유독 홍일섭만이 모진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여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루었으며 이후에도 항일투쟁을 하였다.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까마귀도 감동한 효자(孝子) 성이복(成爾復) 효자비

이 이야기는 조선말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이복은 교위(校衛) 성인산(成仁山)의 후손으로 본관은 창령(昌寧)사람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지라 남들처럼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는 입장이 못되었으나 성이복은 스스로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문을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효행이 또한 지극하니 주위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심한 병으로 눕게 되었다. 이복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침식을 잃다시피하여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 이번에는 하늘에 힘을 빌어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성이복은 집 뒤뜰 정한 곳에 제단을 쌓아 놓고 밤마다 정안수를 떠 놓은후 부친의 쾌유를 기도하였다.

목욕계계(沐浴齊戒)를 하고 밤마다 아버지의 병이 하루 속히 낫게 해달라고 밤마다 빌고 빌으니 그 정성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아버지 대신 자기의 몸을 하늘에 바치겠노라 하며 정성으로 빌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이복이 빌고 있는 단위에 나타나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울어댔다.

그런데 이복은 꿈쩍하지 않은채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하여 빌고 있었다. 이를 본 호랑이는 이복의 정성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한다. 이러한 정성속에서도 하늘도 무심한지 아버지의 병은 점점 위독해져 갔다. 막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목숨만 더 연장시켰을 뿐 천명을 다 했음인지 이복의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복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여 시묘(侍墓)3년동안 정성을 다하니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어느날은 이복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산속을 헤매이다 탕건(宕巾)이 벗겨졌다. 이복은 탕건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계속 통곡을 하며 집에 다다랐다. 무심한 날짐승까지도 이복의 효심과 애통해 함에 감동이 되었는지 까마귀 한 마리가 이복이 떨어뜨린 탕건을 주워 그의 문 앞 대추나무에 걸어놓고 날아갔다고 한다.

이복이 효성스럽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 잘 알려졌고 마침내는 관가에까지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본 뒤 그 정성이 가특하다 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나라에서도 그의 효성을 알리기 위해 고종 28년(1891)에 정려각(旌閭閣)을 짓게 하여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게 하였는바 참판(參判) 이대식(李大植)이 다음과 같은 신문(撰文)을 지었다.

「아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복의 효성된 마음은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사람들은 효도를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의무이기에 앞서 자연히 솟아나는 마음속에서 효(孝)를 실천함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기도로 치유시킨 부안 임씨(扶安 林氏)정려문

효부(孝婦) 부안임씨(扶安林氏)는 동지충추(同知中樞)두칠(斗七)의 아들인 시윤(時潤)의 딸로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나 같은 연기군 서면 기계유씨(杞溪俞氏)의 유삼순(兪參順)에게 시집을 갔다.

시부모 공양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고 살마 대하기를 예로써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남달리 정다워져서 공경하여 향리에서도 널리 이름이 퍼졌다.

한때는 우연하게도 시어머니가 학질에 걸려 병석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자리에 눕게 되자 시어머니의 치병을 위하여 온갖 약재를 구해 드렸고 명의를 찾아 수백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인지라 차츰 병세는 악화되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같이 무서운 병에는 사람 고기가 명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임씨부인은 남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불에구워서 드렸더니 그토록 오랫동안 대소변까지 받아내던 시어머니께서 완쾌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과연 하늘이 내려주신 효부(孝婦)임씨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칭송의 말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칭송에 말을 들을수록 임씨 부인은 더욱 시어머니 봉양에 더욱 전력했으며 지극한 정성이 날로 더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시어머니의 병이 재발되어 자리를 눕게 되니 이번에는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

그로부터 임씨는 집뒤 높은 산 험한 봉우리에 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하루에 세 번씩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드려 하늘에 기도하기를

“황천의 신명과 일월성신, 산신령님께서 저의 연약한 정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상히 여기시어 시어머니의 목숨과 저의 몸을 대신케하여 시어머니의 병환을 낮게하여 주소서” 하고 빌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9년을 한결같이 산에 오르며 기도를하니 임씨 부인이 산중을 오르내리는 길은 호랑이가 시종 보호하고 산봉우리의 제단은 하늘을 나는 매가 보호를 하여 항상 제단위 제물에는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같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우시고 사나운 짐승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임씨부인이 몸소 효행으로 가르쳐 주었다.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길이기 위해 임씨부인이 기도하던 산봉우리를 “기도봉”이라 부르며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후일 시어머니 임종에 이르러 임씨부인을 불러놓고 “며느리 너의 효성어린 기도를 나의 천수를 9년을 더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한다.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많은 자손과 함께 기리 복(福)을 누리거라 유언을 하고 사경을 헤매이니 이번에는 임씨 부인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마시게 해서 잠시라도 소생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진 임씨에게 효(孝) 열부(烈婦) 포상을 주고 널리 표창케 하니 후손들이 열녀문을 건립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알려 빛나게 하였다.

꼬마 효자(孝子) 김종철(金宗喆)정려

김종철(金宗喆)의 자는 여명(汝明)이요.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1755년(영조31)에 김상기(金尙基)의 둘째 아들로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 청라리(靑羅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뛰어난 효성은 여덟살 어린 나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상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성질이 곧고, 바르니 형제간 우애심 또한 대단했으며 부모님이 병환중 일때는 아이들이 와서 놀기를 청해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놀기를 거절하는 효도를 보였다.

깊은 산중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할때에도 매일 한차례씩 내려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가는 정성도 보였다.

평소 병약한 어머니 송씨(宋氏)가 병환중일때의 일이다. 어린소년 종철은 삼경(三更)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기도를 하니 어린 효자의 기도속에 천심(天心)을 울리는 비원(悲願)이 서려 있었다.

약을 드릴때에는 반드시 그 맛을 먼저 본 뒤에 드렸고 식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며 어머니를 모시었다. 이토록 그의 지극한 효성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번은 열살때의 일이다. 깊은 밤중에 어머니의 위급한 병환으로 집에서 부리는 종 한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좁고 험한 산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 한마리가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혼비백산(魂飛魄散)한 종은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다.

이때 어린 효자가 말하기를 “약을 구하러 급히 나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종을 재촉하니 호랑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은 밤이 몹시 깊어 있었다. 그런데 범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그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거의 꼬리가 밟힐 지경이었다.

집앞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범은 간곳이 없었다.

“어리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산신령님께 범을 보내어 호위했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효자일세” 라고 사람들은 칭송하였다.

병약했던 그의 모친은 1767년(영조43)에 끝내 젊은 나이인 38세에 세상을 뜨니 종철은 불과 12세였다. 조석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하여 호곡하니 그에 눈물이 젖은 곳은 풀이 말라 불을 정도였다.

모친이 거처하던 곳만 보아도 울었고 손때가 묻은 물건만 대해서도 울었다. 부친이 병석에 있을때에는 대변을 맛보아 가며 시탕하였고 병세가 위급하면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서 소생시키기도 하였으나 부친은 1788년(종조12)에 향년 64세를 임종하여야 말았다.

그의 애통해 함은 차마 불수가 없었다. 장례를 치루고자 할 때 꿈에 한 도사가 지시하여 리르기를 “너의 집뒤 나무 아래가 바로 명당이다. 진좌(辰坐)로 써라. 내가 너의 지성에 감동하여 가르쳐 주노라 하였다.” 꿈속에 도사가 일러준 자리에 부친을 안장하니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몇 대 안 가서 수십호를 이룩하였으며 종철의 장조카 경현(景賢)은 무과(武科)에 오른 이후 울진군수(蔚珍郡守)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같이 많은 효행을 남긴 종철은 1817년(순조17)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2세였다.

그뒤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1868년(고종5)에 효(孝)로써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추증되었다.

7명(七名)의 효자(孝子)가 나온 홍연경(洪延慶)집안 효자비

효자(孝子) 홍연경(洪延慶)을 말하기 앞서 오세 칠효(五世 七孝)를 먼저 알아야 하겠다.

오세칠효(五世 七孝)란 5대를 내려오면서 7명의 효자가 나왔다는 뜻이다.

때는 조선왕조에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 효성이 지극한 홍연경이라 덕망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 효성과 학문을 가상히 여겨 도사(道事) 벼슬을 주었고 후에는 공조참의(工曹參議)까지 벼슬이 오르게 되었다.

우리 속담에 “콩심은 데에 콩나고 팥심은 데에 팥난다”는 속담은 바로 이 홍연경을 두고 일컫는 말같이 집안 대대손손 효자(孝子)가 속출하였다.

연경의 아들 연설(延高) 또한 아버지를 닮아 효성이 지극하니 호랑(戶郎) 벼슬후 사복사정(司僕寺正)으로 승진하였다.

아들대에 이어 연경의 손자대에는 자그마치 3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그들이 바로 우적(禹積), 우평(禹平), 우구(禹九) 형제들이다. 이들 또한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지평(持平)의 벼슬을 내렸다.

연경의 증손인 만도 효자인지라 나라로부터 복호(復戶)를 받았다. 그당시 복호란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부(烈婦), 가난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제도 였다.

연경의 현손(玄孫)대에도 두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바로 득후(得厚), 득일(得一)이며, 득후는 후일 벼슬을 받았고, 득일은 복호를 받았다.

이같이 효자 연경의 가문에서도 많은 효자가 나왔으니 그 동네가 바로 망동(望洞) 또는 마룡동(馬龍洞)이라 불렀으나 후일 영조임금께서 친히 효교(孝橋)라 부르도록 개칭 했으니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영조(英祖)대왕때의 일이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이정보(李鼎輔)와 도승지(都承旨) 이석상(李錫詳)이 쓴 정원일기(廷院日記)에 의하면 홍연경의 현손 득후(得厚)의 양자 상직(相直)이 가선(嘉善)이란 벼슬에 오른 뒤에 종종 아침에 입조(入朝)치 않았다.

이를 상당히 여긴 임금 영조대왕은 하루는 도승지 이 석상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도승지가 대답하기를,

「홍상직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충청 연기(燕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틈을 내어 성묘차 고향에 내려 가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영조가 이르기를

「홍상직의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틈을 놓치지 않고 도승지 이석상은 계속하여 아뢰었다.

「홍상직의 선조들은 대대로 내려 오면서 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집안인줄 아옵니다」 도승지에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영조대왕도 깊이 감명된지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

「그러면 홍상직(洪相直)의 본향(本鄉)을 효교(孝橋)로 개칭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마룡동은 효교동이 되었고 지금도 효교동이라 부르며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후에 홍연경의 손자 우구의 후손들이 서면 원신대리(元新垞里)에 모여 살면서 선조들의 현덕을 기리기 위하여 신대리와 기룡리 경계에 효교비를 세웠다 한다.

또한 홍연경의 효행을 알리고 그 높은 뜻을 우러러 받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향교에서 그에 대한

사적을 적어 걸어두었다. 이와같이 5세 7호라는 말이 뜻하듯이 대대손손 효행을 근본으로 삼은 흥연경의 가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열녀 의성김씨(義城 金氏)

남편의 유골을 머리에 이고 2천리 길을 55일만에 돌아온 장한 열녀가 있었으니...

조치원에서 송학까지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 32사단을 지나 비포장 도로에서 약 500m지점에 아담한 정문이 마을 앞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문의 의성김씨(義城 金氏)는 경명(敬命)의 장녀로 금남면 반곡리에서 1888년(고종25년)에 태어나 14세에 서면 부동리(釜洞里) 이금성대군(李錦城大君)의 후손 성호(聖浩)에게 시집을 갔다. 시택은 가난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병환을 40여년간을 구도 대·소변을 받아 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이 날로 기울어지자 남편 성호는 행상을 한답시고 집을 떠나 함경북도 회령쪽으로 가서 일녀너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에 어느날 편지가왔다. 김씨는 무슨 희소식인가 하고 곁봉을 뜯어 보니 병환이라는 맑은 하늘에 벼락 같은 사연이었다.

김씨는 혹시 시어머니가 눈치를 챌까 두려워하여 내색조차 하지 않고 이웃 아낙네들에게만 부탁을 하고 집을 나섰으니 자그만치 오천리의 머나먼 곳이었다. 그 먼나 먼 길을 몇일을 두고 회령 땅에 이르고 보니 남편은이미 운명을 해서 그녀가 도착한 전날에 화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옷 보따리에 유골을 챙겨 밤낮없이 걸었다. 걸어 가다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가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도 했다.

인가에서 밤을 지새면서도 주인집 아기가 울거나 하면 자기 탃(유골)인가 하고 주인 몰래 뛰쳐나오기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김씨 그녀는 55일간이라는 무수한 고생 끝에 집에 돌아와 안장을 하고 3년상을 예법으로 치루었으나 장차 살아갈 길이 막연했다.

그러나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름에는 찌는듯한 무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눈보라와 싸우면서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이러한 머느리를 시어머니는 몸 조심 하라며 걱정을 했으나 그녀는 타고난 숙명인 양 하루를 편히 설 줄 모르고 억척스럽게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 그것은 시어머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력무력 커가는 두 아들 때문이기도 했다.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극진한 모성에 감동하여 학문에 열심하였고 또한 지성을 어머니를 모셨으니 어머니는 90여세까지 장수하셨으며 성균관장이 그녀를 열녀로 표창을 내리는가 하면, 성균관에서 효열 현관을 증정받아 1980년 아들 집성(集成)이 정려문을 세웠다.

※ 참고문헌: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

효자 김한정(金漢鼎)

20여년간 어머니의 고질병을 하루같이 정성으로 간호하니, 부모님 모두 70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김한정은 강릉(江陵)사람으로 서기 1757년 (영조33)서면 청라리에서 출생했다.

공이 19세때 부모님 모두 병환에 있었으니 아버지는 위장병과 구토증, 어머니는 허약 고질병이었다. 이에 그는 아내와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전부 구해 드렸고, 아버지에게는 생지(生芝:일종의 약초)가 특효라 했고, 어머니에게는 생어(生魚)가 특효라는 말에 그들 부부는 집 뒤에 약초를 심었고, 문밖 조그만 샘에는 생어를 길러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다. 그렇게 하기를 20여년 부모가 모두 70의 장수를 누리게 되었으니 주위의 칭송이 대단했다. 더구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하루같이 모시니 유림(儒林)에서 공의 효행을 조정에 올리어, 조정에서는 하선대부호조참판을 증직(贈職)하고 정해년(丁亥年)에는 정려(旌閭)를 명하니 임술(壬戌) 2월 7일에 건립하였다.

※ 참고문헌: 旌閭記 · 族譜

효자 김 연(金連)

홀로계신 아버지의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상을 지냈다. 김연(金連)의 자는 성기(聖器) 본은 강능. 그는 서기 1721년(경종 1) 12월 24일에 태어나 1785년(정조9) 그의 나이 64세에 세상을 떴다.

공은 홀로계신 아버지의 중병에 백방으로 약이란 약을 썼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한 어느날 아버지가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니 그 차도가 점차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는 크게 용기를 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 간호를 극진하게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2년을 못가서 돌아가셨고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상을 보냈으니 그의 효행이 세상에 널리 퍼졌고 유림에서는 조정에 그의 효성을 상신 하였으니 임금은 그에게 극진한 효행이라 하여 정려문을 세우게 하여 모든 이들의 본 보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旌閭記 · 族譜

열녀 경주최씨(慶州崔氏)

1843년(헌종 9년) 신탄진에서 태어난 경주최씨(慶州崔氏)는 윤태풍(尹太豐)의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집안이 어려워 남편이 외지로 품팔이를 나가자 여자 혼자 몸으로 시부모를 공양하였다.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병으로 고생하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더 하였으나 굳은 의지와 부덕(婦德)으로 남편의 병 간호를 지성으로 하니 주위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3년상을 무사히 치루니 유림(儒林)들이 나라에 알리어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였다.

지금 있는 정려는 현 위치에서 100m여 아래 쪽 동네 한 가운데있던 것을 1980년 10월 연기군에서 50만원 나머지는 윤씨 문중에서 부담하여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중수(重修) 하였다.

※ 참고문헌: 旌閭記

전 설



비룡산의 산삼

가마바위와 행상바위(轎岩과 輻巖)

장소: 연기군 서면 성제리 2구 서북부 과부터

아득히 먼 옛날 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말에서 조선 초엽으로 전해지는 먼 옛날에 서면 성제리에 전주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전주부(全主簿)라는 사람은 고려말 문벌사(文別使)담양 전득우(潭陽 田得雨)의 후손으로서 부락일대가 전주부 소유였고 그를 큰 부자라하여 萬石(만석)꾼이라 불렀으며 그 동네를 만석동(萬石洞)이라 불렀다. 그런데 만석꾼이라 불리우는 전주부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모을줄만 알았지 남을위해 베푼적이 거의 없었다.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탁발승(托鉢僧)이 만석꾼이 살고 있는 만석동 전주부 집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구(求)하자 하인이 쫓아나와 주인의 성미를 알고 그냥떠나기를 권고했지만 스님은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하기를 권하였다. 밖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전주부가 등짐을 지고 “밖에 웬 소란이냐” 면서 나와보니 산너머 비암사(碑岩寺)스님이 시주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전주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시주를 구(求)하려면 아랫말 백정가(白丁家)에서 받아갈 것이지 하필이면 왜 내집까지 왔느냐!” 고 하며 옆에 있는 삽을 들고 두엄을 푹 퍼 탁발승에게 냅다 던졌다.

두엄 세례를 받은 스님은 동구(洞口)밖 후미진곳에서 남모르게 무슨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석장(錫杖)을 휘두르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일더니 번개가 치면서 만석동 입구에 내리치더니 그곳에 커다란 바위가 솟아났다. 그런데 그 바위의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으며 마을사람들은 행상 바위라 불렀다. 한편 행상바위(輻巖)가 생긴 후 전주부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다른곳에서는 대풍년이 들어도 전주부의 눈에서는 흉작이 해를 거듭해서 들고 전주부 또한 어느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백약이 무효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전씨문종(田氏文宗)에는 장남(長男)이나 장녀(長女)를 낳아 기르다 혼기가 차 혼례를 올리면 얼마후 원인모를 현상이나 돌림병을 앓다가 죽곤했다. 그리하여 동네는 과부투성이고 동네 지명 또한 만석동에서 과부터(寡婦墟)라 불리우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날 지난 두엄 세례를 받은 스님이 노승이 되어 이곳에 와보니 전주부는 죽고 가세가 기울었으나 자손이 그대로 살고있는것을 보고 가엽게 여긴 노승은 행상 바위에 올라 건너편을 향해 주문(呪文)을 고창(高唱)하면서 석장(錫杖)을 휘두르자 하늘이 검게 구름이 몰리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건너편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솟아났다. 그 모양이 가마와 같아서 가마바위(轎岩)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상한것은 그 가마바위가 생기고 부터는 마을에 풍년이 계속되었으며 과부로 살던 이들은 제자식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재가를 하여 한, 둘 빈집이 늘더니 그곳의 동네는 빈터만 남아 있었고 아랫동네가 큰마을로 변하였다.

전주부(全主簿)가 살던곳을 만석동이라 불렀고 전주부가 죽은후 과부가 많다고하여 과부터(寡婦墟)라 불렀으며 아랫마을을 백정지굴(白丁谷)이라 불렀으며 현재에는 만석동산을 만석산봉이라고 하며 정상을 전주봉(田主峰)이라 부른다.

또한 만석산 서북편에 전주부의 분묘(墳墓)가 있고 남양홍씨(南陽洪氏) 괴원파(槐圓派)종산(宗山)이었다.

장군수(將軍水)

장소:서면 월하리 항공학교 북쪽산

때는 신라시대 장군수(將軍水)라 불리우는 우물 위편에 역사(力士)라 불리우는 거구승(巨驅僧)이 절을 짓고 기거하고 있었다.

처음에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을때는 평범한 스님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집이 장군처럼 좋아지고 힘이 세었으며 물골이 장대하여 그 스님을 장군스님이라고도 불렀다.

부모가 고향으로 돌아가시자 사찰 뒤편에 묘를 썼는데 그 규모가 광대(廣大)하여 왕능(王陵)을 방불(彷彿)케 하였다.

그후 지나는 사람들은 이곳에 후에 장군이 거주할 곳이라고 말하며 이묘를 장군묘라 불렀고 스님을 역사승(力士僧)이라 불렀다. 또한 이곳을 드나드는 음수객(飲水客)들은 묘에서 절을 올릴때 필히 능전배기(陵前拜祈)를 행(行)하도록 하였으며 그후 능곡동(陵谷洞)이라 불렀다.

이상한것은 세월이 흘러 능곡장군수가 있던 곳은 51사단장의 관사(官舍)가 건립되어 몇년간을 거주하다가 봉암리로 이주하자 그 관사는 장군(將軍)인 항공학교장(航空學校長)이 입주하여 살고있으니 옛사람의 음택명당(陰宅明堂)이라고 하는것이 신비하기만하다.

또한 장군 관사 뒤편에는 현재에 구곡암(九谷庵)이란 사찰이있다.

대박산(大朴山)- 일명 함박산

고려 충렬왕 17년 중국 거란족인 합단이 연기지역으로 쳐들어왔을때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쌓았다.

그때 병사들이 식사를하려고 큰 가마솥을 걸고 밥을하면서 부르던 노래가있으니 다음과 같다. 함박에서 함박으로 가마솥(현부동(現釜洞))에 가마솥 걸고, 당산(唐山)에 올라 나물을 캐고 동진강에(東津江)에 조어(釣魚)하고 군량동(軍糧洞-군량골)에 군량비치(軍糧備置)하고...

그후 원나라 병사와 고려병사가 작전을 개시하여서면 쌍전리 정좌산에서 큰 전투를 벌인 결과 대승하였다.

그런데 신비한것은 예전에 병사들이 주둔하여 훈련을 하던곳이 현재에는 사단병력의 군대가 들어서 신병 훈련소로 이용하였고 특이한것은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가마솥을 걸었던 이부동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함박산(大朴山)에는 양병사단(養兵師團)의 수도탱크가 신설되었고 가마골에는 취사용부(炊事用釜)를 두고 당산(唐山)의 야채(野菜)와 동진강(東津江)의 생선어(生鮮魚)가 현사단(現師團)의 취사(炊事)에 쓰이고 있으니 이 대박산(大朴山)의 전설과 우연의 일치로 현실화 하였으니 전설치고는 이상야릇한 일로서 고려 충렬왕 이래(以來)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비룡산의 산삼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고북리에 가면 비룡산이란 산이 있다. 옛날부터 유달리 산삼이 많아서 산삼을 캐러 오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으로 온통 산이 진동하였다는 이 산은 산삼과 용에 얽힌 일화로 유명한 산이다.

고려때 왕실에서 산삼이 필요하다 해서 기백명의 사람들이 온 나라에 퍼졌을때 고씨 한사람은 금강산을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곳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금강산이나, 양남립산, 지리산에 산삼이 많다고 그곳으로 몰려 갔으나 그는 어쩐지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싫어, 짚신을 허리에 찬 채 개경을 떠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홍경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정처없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곳에 닿았다. 그는 하룻밤을 주막에서 잠자고 어디로 갈까하고 추녀밀을 나서는데 그의 시야에 구름이 가린 산이 꼭 인삼뿌리 같은 산을 발견하고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산으로 올라왔다. 산은 험했다. 아래로 흐르는 강줄기엔 잉어떼들이 올라갔다가는 내려가곤 하지만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때였다. 그는 무릎을 탁치면서

「웁지 삼뿌리 내음에 고기가 놀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봉에 오르니 이번에는 산봉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어져서 산위까지 물이 바위 틈에 고여 있었다.

「웁지 이런 땅이면 산삼이 있겠지」

그는 이렇게 기뻐하며 발아래를 굽어보는 거기엔 산삼잎이 잔잔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게 아닌가? 그는 정신없이 망테기를 집어 던지고 산삼 한 뿌리를 캐다.

천년은 묵은 듯한 산삼이었다. 그는 그 산삼곁에 있는 산삼도 캐고해서 잠간사이에 산삼을 망테기 가득 캐들고 그날로 길을 재촉하여 그 이튿날 낮게 궁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많은 포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산삼을 주문을 받고 해서 술을 한모금 크게 마신 다음 그날로 비룡산에 도착했다.

그는 누가 뒤를 쫓아오지 않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한밀천 단단히 잡아야 하겠다고 산위를 올라가서 먼저번에 산삼을 캐던 곳을 찾았다.

헌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가 그렇게도 많은 산삼을 보았던 그 장소엔 산삼이 한 뿌리도 없었고 큰 바위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는 다시 주위를 돌아 봤으나 산삼을 한 뿌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기진맥진해서 쓸어질 듯이 엎어져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가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에 한마리의 용이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그에게 덤벼들더니 그몸을 둘둘 감고선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봐 이 도적놈아, 그래 백년을 정성드려 하늘에 올라가려고 산삼을 키우며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 네가 모두 독실을 해, 너 잘 만났다. 너좀 죽어봐라」

하고선 금방 잡아 먹을 듯이 혀를 날름대기 시작했다.

고씨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를 짜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이무기님 누가 알고서야 산삼을 캐 갔겠오. 산에 있으니까 캐갔지, 그래 당신이 나를 잡아 먹

먹으면 승천할 것 같아요? 어렵없는 소리, 하늘에 오르는 용이 피를 봐요? 그래 잡아먹어봐요, 자」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떤 일인지 이무기는 칭칭 감았던 몸을 풀고 저만큼 떨어져 가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눈에 보이게 산삼을 키운 것이 잘못이지…」

하고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또 산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도 산삼은 없었다. 그래서 밤이 이슬해서 그는 다시 꿈에 나타났던 바위근처에 가서 안을 들여다 보고 소리를 쳤다.

「이봐요. 이무기님 산삼 열뿌리만 캐게 해 달라구요. 산삼을 많이 먹으면 승천은 못해요. 몸이 무거워지는 걸요」라고 소리치자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 왔다.

「산위에 더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하라. 구백년도 참는데 백일도 못참아」

고씨는 생각했다. 개경에서 주문받은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백일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봉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를 피할까 생각하다가 정성이 헛될 것 같아서 그냥비를 맞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줄기의 물줄기가 내려오더니 땅 바위속에서 이무기가 승천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 보았다. 이무기는 하늘에 오르면서

「백일만 참아, 백일만 참으면 산삼이 있지」

하고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후 백일동안 꾸준히 기도를 드렸다. 그가 백일을 채우는 날, 아래를 굽어 봤다. 조금 전까지 풀밭이었던 곁에 황토흙이 깔려 있었고 거기엔 작은 산삼뿌리가 가득히 나고 있었다.

그는 「와」 히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너무나 잔 산삼이었다.

고씨는 그 산삼이 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움막을 짓고 하루 한번씩 산삼을 보며 그 산삼이어서 자라기를 기다리다가 고씨가 먼저 죽고 말았다.

그후 비룡산엔 산삼이 자라서 푸릇 해졌다. 고씨가 죽은후 이무기가 몇번 승천했고 고씨의 자손은 여기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자손들은한번도 산삼을 캐지 못했다 한다. 비룡산 기슭에 가면 물고기가 물줄기를 따라서 강을 올라가다가 산중턱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한다.

이것은 산삼의 뿌리를 적신 물이 내려옴으로 독해서 물고기가 못올라가는 것이라 한다. 고씨가 처음 살았다는 비룡산 아래를 고복마을이라고 부른다.

와촌리 성황당

봉암에서 부동리, 와촌리를 지나 공주군 의당면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다. 예전에 이 도로가 작은 오솔길이었을때에는 오래된 피목이 있었고 이것을 성황당이라 불렀다. 이 성황당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먼 옛날에 이곳에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있었다. 그는 밥먹고 하는일이 낮에는 강에나가 낚시를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 선비였다.

그런데 이 강씨 선비는 집안이 부유하여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본시 일이라고는 해본일이 없어서 어

뎡게 하는줄을 몰랐지만 그의 취미가 낚시였기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굶은일은 도맡아 했고 농사일 또한 그가 맡아서 했다.

그래서 주위사람은 중국에 유명한 강태공이의 이름을 그의 이름처럼 불렀고 행동 또한 똑같았다.

굶은날은 빼고 하루도 걸르지않고 마을앞으로 흐르는 냇가라든지 멀리금강에 가서 낚시를하다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날은 강태공이 낚시를 나가지않고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먹을것이 없어서 들에나가 피를 흘터다가 햇볕에 말려 죽이라도 썩어먹으려고 마당에 널어왔다.

그런데 맑던 하늘이 갑자기 검어지더니 쏘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들에서 일을 하던 강태공의 아내는 마당에 널어놓은 것이 걱정이 되어 허둥대며 뛰어 집에왔다.

집에와보니 마당에 널어 놓았던 것은 순식간에 내린 소나기에 등등 떠내려갔고 빈 명석만이 남아있다. 사랑방을 바라보니 남편을 비가 내리는것을 모르는지 그저 책만 읽고 있었다. 아내는 가슴이 터지는 듯했다.

책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처마밑에 걸어놓았으면 몇일을 걸쳐서 흘터온 곡식이 떠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코앞에 있는것도 무관심한 남편이 뺨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다.

강씨의 아내는 성이 마(馬)씨였다.

마씨부인은 그 일이있은 후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갔다.

세월이 흘러 과거에 응시한 강태공은 그동안 읽은책만도 수백권이요 열심히 공부한덕에 장원급제하여 연기현 사또로 부임하여 오게 되었다. 그때 전 부인이 인근 마을에서 살다가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말을듣고 마침 한가하여 구경차 마을사람을 따라나섰다.

동네 어귀로 들어서서 길목에 큰 나무가 있고 그곳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기때문에 많은 마을사람이 그곳에서 사또를 기다렸다.

멀리서 음악소리와 함께 새로부임하는 사또의 행렬이 점점가까와 왔다.

동네사람들은 길가에 엮드려 머리를 숙인다음 사또가 다가왔을때 살그머니 머리를 들어 어떠한 분인가 확인을 했다.

마씨부인은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얼굴을 들여다 보더니 깜짝놀라 소리를 지를 qjSG0tEK.

분명 전에 같이살던 남편이 아닌가.

놀라고도 반가워서 마씨부인은 사또앞으로 나가 알아보기를 권했다.

“여보 저를 알아보시기겠습니까”

위에서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부인 물동이에다 물을 떠서 가져오시오” 하였다.

마씨부인은 자기를 알아본다는 기쁨에 얼른 마을에가서 물동이에 물을가득 떠서 사또앞으로왔다. 그러자 사또가 “부인 물을 바닥에 부으시오” 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마씨부인은 사또가 시키는대로 물을 바닥에 부으니 “부인 부은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으시오” 했다.

“전에는 나의 아내였지만 내 곁을 떠난후 이제와서는 엮질러진 물과 같이 돌킬수 없는 것이 현실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또의 행렬은 마을로 향했고 마씨부인은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다 성황당 나무에 목을매고 말았다.

동네사람들은 마씨부인의 시신을거두어 무덤을 만들려고 관에 넣으려고 했으나 시신은 움직이지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 나와서 마씨부인을 위로 한다음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하여 암수 두 마리의 말을 만들어서 관에 넣었다.

그제서야 시신이 움직여 관에 넣고서 무덤은 성황당 나무밑에 묻고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다.

6. 연기대첩(燕岐大捷)

서면 성제2구 정좌산(正左山) 서북 협골을 승적골(勝敵洞)이라 부르고 있으니,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멀리 고려 충렬왕 13년(1287년) 몽고의 합단(哈丹)은 원 태조의 동생 합적온(合赤溫)의 손으로서 반지(叛志)를 품고 마침내 세조 24년에 반기를 들게 되자 합단은 이에 호응하여 재빨리 군사를 거느리고 내안(內顔)에 합세하려 진군하는 도중, 원 세조의 부장 옥와실(玉蛙失)의 습격을 받아 북쪽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그러한 얼마후 다시 제왕(濟王) 입자

합적(入刺合赤)과 함께 남하하다가 세조의 군대에게 여지없이 격 파되어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 뒤에도 여러번 사단을 일으켜 왔으나, 그때마다 원군(元軍)의 방비가 엄중한 탓으로 번번히 실패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는 수 없이 고려의 동북경을 넘보게 되었다.

즉 충렬왕 16년(1290년) 5월에 내안(乃顔)의 여당(余堂)과 합단적은 고려 동북계를 넘어 해양계(海陽界:길주)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는 이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10월에 와서는 개경의 부녀 노약자들을 강화도로 피난 시키고 백성들을 산성과 해도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특히 안전을 충청남도 지휘사에 임명하여 이곳에 방비 태세를 잘 갖추게 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 국왕이 강화도에 피난을 했다.

이듬해인 1291년 충렬왕 17년 정월 초에는 합단적은 동해안을 따라 계속 남하하여 철령을 넘고 교주도를 점입하여 양근성을 함락하고 이어 원주에 진주하다가 원주 별초 향공진사(鄉貢進士) 원충갑(元冲甲)이 이끄는 군사에게 격파되었다.

한편 고려 정복의 요청에 의하여 원나라에서는 전년(前年) 12월에 평장사(平章事), 설도, 설이(薛梨), 첨목아(帖木兒), 우승탑출(右承塔出)등을 지휘관으로 하여 보병과 기병(騎兵) 1만3천을 원병으로 보내고, 이해(17년)정월에는 병사 1만으로써 합단적을 토벌케 하였다. 그러나 적은 계속 남진하여 3월에는 개경에 침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려 대장군 송화(宋華)의 부대와 교전한 끝에, 다수의 병사를 잃었으며, 또한 원주 방면으로부터 충청도에 침입한 단적은 4월에 충주산성 부근의 전투에서 동산성 부감이 거느리는 고려군에 격파되어 4~50여명의 전사자를 냈다.

또한 일부의 단군은 지금의 충청남도 북서쪽 혜성군(慧城郡:오늘의 唐津郡)방면에 침입하려다가 군인복규(軍人卜奎)가 거느리는 북방의군(北方義軍)에게 격파되었다.

이때 고려측에서는 적의, 주력 부대를 지금의 조치원쪽으로 유인하여 여, 원(麗·元)연합군의 합동작전으로써 총반격을 감행하여 적을 전멸시키려고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5월 1일 중의 만호 이후 좌익만호 한희유 우익만호 김흔(中翼萬戶, 印候, 左翼萬戶, 金忻)등이 거느리는 고려의 3군은 원나라 원군(援軍) 설도의 부대와 연합하여 충청남도 연기현의 지금의 남면 원수산에 주둔하여 작전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합단을 몰아내려면 우선 전투할 연기지역의 지형과 마을주민들과 합심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소”

그리하여 연기지역의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들어온 병사의 보고에는

“연기현에는 풍장치는것이 어느지역보다 좋아하고 정좌산이란 산이 전투에 용이한 줄로 아뢰오”

그날작전은 정좌산 정상에서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풍장을 치게하고 그소리를 듣고 몰려든 합단을 총공격하면 독안에는 쥐 형태가 되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서면 정좌산 밑에는 작은창고, 큰창고가 있어 무기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했으며 군사들이 먹을 식량또한 많이 보관하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한밤중이되어 정좌산 정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나게 풍장을치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고 풍장소리는 멀리 30리가 넘는 공주까지 울려 퍼졌으며 이소리를 들은 합단은 고려장수의 작전처럼 술먹고 큰잔치가 벌어졌다는 판단으로 정좌산을 향해 숨죽이며 살금살금 포위망을 좁혀갔다.

어느정도 정상을 향해 오를때 이를지켜보던 고려군사들은 총공격을 펼쳐서 합단측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남쪽에는 원나라 군사가 공격했으며 동·북쪽에서는 고려군사가 큰창과 화살을 쏘아댔고 긴칼을 내들러 적의 가슴을 향했으며 정좌산에서 풍장을치던 마을주민들은 준비한 돌을 굴러 적군을 향해 힘껏 던졌으며 사방에서 날라오는 화살과 돌과 창이 세례를 피해 합단측은 도망칠 구멍을 찾아 이리뛰고 저리뛰고 놀란 토끼모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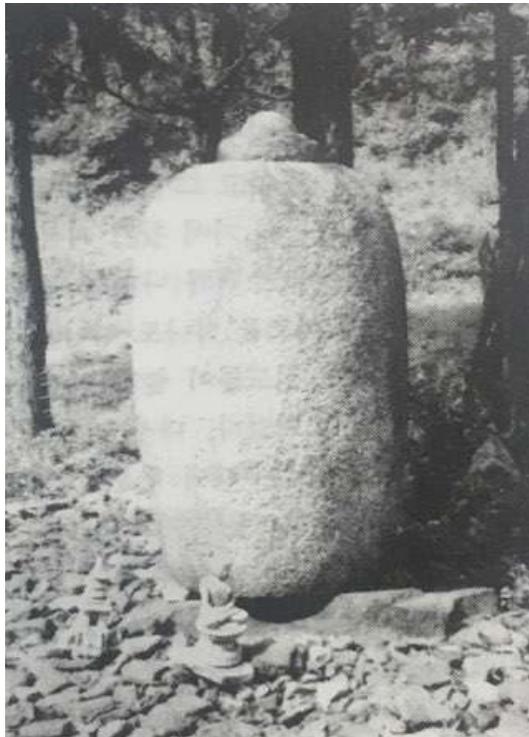
이것이 연기대첩(燕岐大捷)인 것이다.

아군은 적의 패잔병을 섬멸하기 위해 공주강 방면까지 진격하였으니 이 전투에서 아군은 수많은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나아가는 적의 시체가 3리나 되는 넓은 들을 덮었다고 하니 실로 처참 무쌍한 전쟁이었다.

이렇듯 아군이 절대(絶對)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정부에서는 한희유를 충청도에, 나유(羅裕)를 교주도(交州道)에 파견하여 도처에 분산되어 있는 패잔병들을 소탕하게 하였으며 더구나 다음 7월에는 난후(亂後)의 구제책으로서 전날 합단군과의 대접전 지대였던 충청도에 구급별감을 보내어 농민 구호에 힘을 쓰게 하였다.

※참고문헌: 忠淸南道誌, 燕岐郡誌 - 서면 쌍전리 주민들의 구전-

사찰



불일선원 석종

연화사(蓮花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구 1047번지

주지: 안건자(55)

전화: 62-1009

종파: 태고종

연화사출토 무인명 석불상 (보물649), 철존석불상(보물650)

조치원에서 서면 고북리의 고북저수지 가는 방향으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가다보면 아홉거리에서 500M쯤 떨어진곳에 연화사 입구 팻말이 왼쪽으로 나있고 그곳에서 약 200M 동쪽으로 가면 사찰이 나온다.

연화사(蓮花寺)는 박해문(朴海文), 1943년 타계)스님이 창건했는데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한일 합방전이다.

박해문 스님의 부인 역시 보살로서 사찰을 운영했으며 당시 법당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요사체내에 법당을 두었다.

어느날 홍문섭(박해문 스님부인) 보살 꿈에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권터골이란 산속에 불꽃이 꽃히면서 부처님 형국이 훤히 보여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곳이라는 것을 믿고 박해문 주지와 홍학섭씨(홍문섭 보살님의 남동생)를 보내 모셔오도록 했지만 못찾고 그냥 왔다. 그날 다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있는 곳을 가리키더니 사라졌다.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서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쇠꼬챙이를 들고가서 땅을 찔러보니 딱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가 걸리어 파보니 석불 2기가 나란히 묻혀 있었다. 그때 기와 지붕처럼 생긴 석조물 하나도 같이 나와서 하나씩 들고 현사찰에 모셨다. 당시 사찰은 토담집이었고 부처님을 모신후 신도들이 늘기 시작하더니 사찰이 비좁아서다시 법당을 증축했는데 그 건물은 강씨들이 돈을 내어서 지었다. 다시 건물을 증축했지만 신도가 계속 늘어나므로 법당이 좁았다. 청주에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새택 한분이 왔는데 시집온지 얼마 안되어 병을 얻어서 이곳 소문을 듣고 왔다했다.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니 씻은듯이 낳았고 시댁이 부자집이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돈을 많이내서 법당을 다시 지었다. 1931년도에 조창례씨가(현 79세) 이곳에 시집을 왔다. 시집오고 얼마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954년도에 조창례씨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정식 보살이 되어 사찰을 운영했고 당시 조창례 보살이 사찰을 운영하게 된것은 홍문섭 보살 둘째 아들인 박의동씨(1988년 타계)였는데 홍보살님이 돌아가시고서 갑자기 박의동씨가 인사불성이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장례관계로 수원에서 살면서 이곳에 와있던 조창례 보살이 기도를 드리자 씻은듯이 낳았다. 그때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사찰 주인은 너이므로 (조창례 보살)네가 맡아서 운영하라는 꿈을 꾸고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사찰을 관리하게 됐다. 조창례 보살은 셋째 며느리로서 사찰을 인계받아 운영했으며 현재는 조창례보살의 둘째 며느리한테 모든것을 인계하여 주었다. 둘째 며느리인 안건자(55)보살은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면서 공양주 역할을 했는데 시어머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신도가 와도 받지 못하자 안건자 보살이 평소 보고듣고 한것을 토대로 신도들을 받아왔으며 현재 사찰은 태고종에 등록되어 있다. 1960년도 비오는 어느날 권터골에 산다면서 동국대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와서 법당을 구경한다고해서 문을 따주었다. 그후 얼마있다 등산복 차림을 한 교수 한분이 왔는데 그분이 황수영 박사이다. 황교수는 불상을 둘러보고서 귀한 부처님이니

잘 보관하라고 하고서는 떠났는데 몇일후에 조창례 보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일 나를 데리러누군가 올 것이니 너는 절대로 사찰 안으로 발을 들여 놓게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다음날 집을 지키는데 자가용이 들어 오고 지난번에 왔던 교수와 여러 사람이 천과 툽밥등을 꺼내면서 들어왔다.

조창례 보살은 얼른 법당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대문을 닫고서 못들어 오게했다. 알고보니 사찰을 지켰던 박의동씨가 황교수한테 석불을 얼마에 판다고 약속을 하여 신고갈 준비를 해가지고 온것이다. 황수영 박사와 일행은 조창례 보살에게 잘 이야기하여 신고 가려고 했지만 단호히 건넌했고 “나를 죽이고서 가져가라” 는 말까지 덧붙이자 박의동씨까지 함세하여 설득하려 했다.

심지어는 돈 봉치를 머리장(장농)에 넣어놓고는 설득을 하려 했지만 그에 넘어 가지 않고 돈봉치를 꺼내 바닥에 내팽겨 쳤다.

황교수와 같이 온 일행은 체구도 작은 사람이 너무 독하다는 말을 하면서 단념하고 떠나갔다.

그후 대학생들이 사찰주위에 묶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탁본도 떠가면서 연구를 했고 여러군데에서 사람들이 와보곤 했다. 당시 다른 지방에서 사찰에 보관중인 국보급 보물이 도난당하여 군청 직원이 와서는 연화사 석불도 허술한 법당에 두지 말고 요사채로 옮겨 보관하라고 권하여 두분의 부처님을 옮겨 놓았다.

그러자 안건자 보살의 남편인 박노을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일후인 1982년(당시 46세)에 돌아가셨다.

그 뒤부터는 대웅전에 모셨고 1978년 12월 7일에 보물로 지정을 받았다. 1987년도에 사찰을 정부에서 증축하여 주었고 1990년에 일부 담을(1/4)치고 1992년도에 일부(1/4) 담을 쳤으며 1993년도에 20M 담을 쳤다.

※ 당시 황수영박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석불의 갓만을 박의동씨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갔다. 현재 황수영박사가 보관중이다.

학림사(鶴林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268-1번지

전화: 865-2635

종파: 조계종

주지: 김석천(金石川, 57세), 속명: 김상순

조치원에서 서면 고북 저수지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서면 면사무소와 지서를 지나 아스팔트 포장 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보면 연서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오고 그곳에서 비포장으로 신대리 불당골 입구에 마을 구관장이 있고 맞은편에 학림사(鶴林寺)가 위치해 있다.

1963년도에 조치원읍 경찰서 앞에서 인쇄업(새한 인쇄소)를 하는 홍종환씨의 부인 안선부씨가 친정 어머니를 위해 이곳에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어 딸인 안선부씨가 친정어머니 유산을 가지고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 법당이 9평 묘사체가 11평인 아담한 암자였다. 안선부씨는 서울안국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으며 안국동에 땅이 많았고 부자였는데 현 사찰내에 있는 탑 2개가 당시 살던 안국동 정원에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당시 사찰을 안양사(安養寺)라 불렀다.

이후 현재 신광사에 계시는 상문 스님이 주지가 됐고 상문 스님은 혜원스님(현 신광사 주지)의 도움으로 주위 터를 정비하여 사찰의 규모를 500평으로 늘렸으며 당시 측량을하는 이들에게 용성한 대접을 해가면서 사찰의 대지를 밭에서 주거지로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었다고 한다. 석천(石川)스님이 주지가 된것은 참선방에 다닐때 세 스님을 만났는데 보은스님, 수환스님, 석천스님이다.

이들은 적당한 사찰을 찾던중 현 사찰을 답사한 후에 세분 스님이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합하여 이곳 사찰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주지스님은 현 스님들께 인수하고 신광사로 가셨으며 1985년에 대웅전과 묘사체를 지었다. 당시총금액은 약 1억 5천만원이었고 사찰이 완성되자 보은 스님은 경상도 거창에 있는 신흠사에 주지로 가고 현재는 석천 주지 스님과 수환스님 두분이있다.

학림사(鶴林寺)는 서학산(栖鶴山)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85년 대웅전과 묘사체를 지을때 서학산에 대한 내력을 듣고 지은 이름이다.

서학산(栖鶴山)은 형국이 학이 내려 앉아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며, 학바위(일명 황새바위)가 있다 . 풍수지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학산 맞은편에 산의 형상은 큰 뱀이 웅크려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형상이고 그 중간에 움푹 패인곳이 개구리가 웅크린 모양이다. 그래서학은 뱀을 잡아 먹으려고하고 뱀은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하는 형국으로서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는 명당자리이다.

현재 개구리 명당에는 결성 장씨의 묘가 있고 학림사 자리에 묘를 쓰면 만석군이 되던지 재상이 나올 자리라는 말이있다.

사찰 앞으로 길을 내는데 독을 쌓기위해 바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학산(栖鶴山)학바위와 붙은 바위가 크므로 그것을 깨서 썼는데 돌을 깨던 석공두명이 동시에 떨어지는 돌편에 맞아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됐다는 말이있다. 사찰안에 우물이 있는데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 이곳에와 며칠을 묵고 나면 효험이 있고 속이 아프거나 안좋을때 먹으면 효험을 본다고 한다.

또한 학림사(鶴林寺)라 이름을 개칭한 어느날 신대리에 사는 유달영(49)씨가 병명도 나타나지 않는 중병에 걸리어 병원에 입원도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듣지 않아 이곳에 와 며칠을 기도했더니 씻은듯이 낳았다.

그후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찰을 찾았고 현 신도 수가 약 300여가구이며 계속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찰의 대웅전과 묘사체를 지을때 현 미륵님은 대웅전앞에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산 중턱에 눕혀 놓았다.

미륵불을 파불하고 새로모실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지스님과 여러 신도들 꿈에 미륵불이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눕혀 놓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영험을 느낀 주지스님은 일으켜 세워 그곳을 정돈했다.

수환 스님은 머리만 있는 동불을 모시고 있는데 20여년전에 서울에서 기거할때 어느 불자가 준것으로 그 선도는 조상 대대로 이 부처님을 집안에 모셨었다. 6.25피난갈때도 모시고 갔었을 정도로 소중히 다루었는데 어느날 친구가 와서 이런 부처님을 신도가 함부로 모시게 되면 안된다고 하여 적당한 스님 물색중에 수환 스님을 만나서 주었다. 또한 사찰에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모시고 있다. 수환 스님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하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사리를 모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내었다. 어느날인가 어느 스님과 대화도중 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스님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꼭 모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1992년에 스리랑카 불교 국립대학 한국 캠퍼스 학장이신 석가산 스님의 주선으로 스리랑카 바드라 장 노가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수환 스님께 모실 수 있도록 건네 주어 현재 모시고 있으며 전 법당 자리에 탐을 쌓고 모실 계획이다.

광불사(光佛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번지

전화: 63-0749

주지: 윤동호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가다 봉암을 지나 주유소 못미처 우측으로 공주 방면의 포장도로가 나온다. 도로를 따라 약 3KM 올라가면 와촌리가 나오고 포장도로에서 북쪽으로 약 600M 쯤 오르면 토성산이 나오는데 산중턱에 사찰이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산신각이 있으며 요사채와 대웅전 우측으로 삼층석탑, 미륵불, 공적비 2개 석등 4개, 해태 1개가 있으며 우물이 5군데있다. 이곳에 사찰이 세워진 것은 안묘연씨가 성낙의씨에게 시집 와서 4년후인 1940년도에 원인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가보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고 좋다는 약을 모두 써 보아도 효험없이 더욱 악화되어 주의 사람 권고로 명산을 찾아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인근 지역인 공주군 반포면 국수봉 산신께 100일 기도를 올렸고 또한 동학사 산불봉에 가서 기도를 올렸는데당시 팔선녀가 내려와 몸에도 갑옷과 갑주를 입혀주는 꿈을 꾸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서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때부터 신기가 나서 안묘연씨가 40세 되던해 이곳에 터를 잡고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에는 현 산신각 자리에 흙벽돌로 초라하게 지었으며 신도들이 몰리기 시작하여 건물이 협소하였다. 흙으로 지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증축했는데 얼마안가서 다시 협소함을 느껴 건물을 증축한것이 현 사찰 모습이다. 안보살은 사찰을 건립하고 병이 씻은듯이 나왔다.

그런데 그후부터 남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고 10년후에 성낙의씨는 작고하고 말았다. 성낙의씨가 작고한 1년후인 1984년에 안묘연 보살 역시 타게하고 말았다. 안묘연 보살과 성낙의씨 사이에 자녀가 2남 1녀가 있었는데 안묘연 보살이 공주 반포면 국수봉에 기도하러 갔을때 3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또한 후에 아들을 더 낳기 위해 임신만 하면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유산이 되어 남매 이후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현재 아들과 딸은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아들은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보살 내외가 타게하고 사찰에 비구인 보살이 한명이 기거했는데 서울 성도사에서 왔다고한다. 약 3년간 맡아서 운영하다가 사찰명의를 스님 앞으로 해달라는것을 거절하자 이곳에서 떠났다.

그후 남자 스님이 한분 오셔서 기거를 했으며 현 보림사 주지 스님이다. 약 4년간 이곳의 사찰을 정비하고 신도를 모아 더욱 크게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찰 주인과의 의견 충돌로 이곳에서 떠났다.

1990년 현 주지스님이 이곳에 와서 기거하고 있으며 그분은 서울에서 왔다. 사찰 앞에 세운 미륵불, 공적비, 석등 등은 1983년도 신도들에 의해 세워졌고 사찰내에 우물이 5군데 있었으며 현 2군데는 폐쇄됐고 대웅전 앞과 옆에 우물은 현재 사용하고 산신각 뒤편의 우물은 약수라하여 간간히 사용한다. 동네에서 오신 유예열(76)할머니는 창건주와 친구처럼 지낸 먼 친척인데 보살이 아플때 잔일을 해주면서 사찰을 돌보았고 현재도 사찰을 내집처럼 지키고 있다.

▶ 법보사 송덕비

주지 안묘연 스님은 소시에 병고액으로 수년간 신음을 하올적에 백약이 무효하고 와병에 인사절하여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던중에 어느날 천황 보살이 오시어서 명산 대천에가서 기도를 하면 쾌차하리라고 하여 보살님을 따라 명산 석굴로 입산, 삼백일 기도를 마친후에 다시 설산에 들어가 수도를 하옵던 중 비몽사몽간에 한 선관이 흰구름을타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청신녀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를 깨우치면 몸도 완치 될것인즉 토성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불사를 이루면 국태민안하고 억조창생의 고액을 구제하리라고 가르쳐주시기에 어느 언선곽이 오시어서 관대히 가르쳐 조시옵니까 하고 물은즉 나는 백운 도사이온데 서천서역국 가는길에 잠시 만나서 가르쳐 주노라 하시며다시 그 구름속으로 사라지거늘 괴이한 일이라 생각하여 천황 보살님에게 몽사를 의논한 즉 길조라 기뻐 하시기에 그날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토성산 아래에 불사를 이루어 놓고 생사고락에 불쌍한 인간을 구제 하는데 전력을 다하시어 승복 소매와 무릎이 헤어졌으니 부처님 앞에 몇천번 몇만번이나 엎드려 애원을 하시었다. 시각을 다투고 불치의 환자와 모든 중생을 많이 구제하시고 중생의 고액을 풀어 주시기에 몸 바쳐 일생을 수도 하시니 그 공덕이 무량하시어 우리 이백여신도는 감개 무량한 마음을 금할 바 없어 이 비를 건립합니다.

설산거사령암 글 지음

불기 2525년 3월 3일

불일선원(佛日禪院)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고북리 오봉산

전화: 62-3783

주지: 김도산(金道山 58세)

종파: 조계종

조치원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약 2KM쯤 가면 고북 저수지가 나온다. 고북 저수지 도착하기 500M 아래쪽 오른쪽에 오봉산 불일선원 표지판이 나오고 표지판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보면 흙벽돌로 지은 사찰이 나온다. 이곳이 불일선원이다.

현 불일선원은 오봉산의 오봉사, 신흥사, 신흥암이라 불리다가 현재는 불일선원이라 불리는데 동국여지승람 연기현에 안선사(安禪寺) 흥천사(興天寺)등의 기록이 나온다.

사찰내에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널려있고 탐두가 두개 발견되는데 신라와 조선 양식으로 오래전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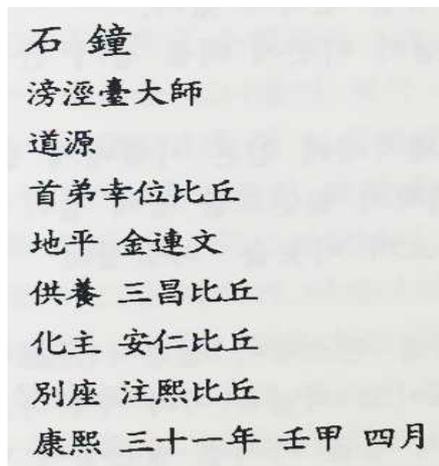
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현 사찰은 스님들이 수도하는 곳으로 불일선원이라 부르고 김도산(金道山, 58세)스님이 원장이다. 이곳에 산세가 사람인(人)변인(佛)부처불자와 폭패인 골에 점이 있는것으로 날일(日)로 풀이하여 불일선원(佛日禪院)이라 부르게 됐고 10여명의 스님이 기거한다. 4년전인 1989년 당시 신흥암 보살이신 홍순남(80)씨에게서 인수했고 홍순남 보살은 사찰을 팔고 아들에게 가서 기거하다' 92년에 타게 했다. 현 대웅전에 석불 2개가 있는데 1개는 약사여래좌상(藥邪如來坐像), 비노사나불(毘盧舍那佛)이라 부르고 사찰이 창건되고 폐사후인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재건당시 스님 현몽에 이곳이 보이고 부처의 형상이 여러번 보여 이곳에와 보니 기와편이 널려있고 편편한 절토로보여 현몽에 부처님이 보였던 부분을 파보니 석불이 나와서 절을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찰에 대해 구전으로 내려오는것은 지금으로부터 142년전에 승려가 100명이상 기거하는 큰 사찰이었는데 이곳이 터가 좋다는 말을듣고 고씨성을 가진이가 원님과 계락을 짰다. 어느날 스님들을 모두 관가로 초청하여 공양을 베풀었다. 영문도 모르는 스님들은 원님이 부르기에 모두 참석했고 상앞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관기(기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스님옆에 앉았다. 스님들은 놀래서 도망치려하고 또한 여자들을 나가라고 떠다 밀었지만 소용없었다. 여자들은 강제로 스님을 껴안고 음식은 고기가 즐비하게 차려졌다.

그때 갑자기 원님이 나타나서 중이 고기를 먹고 여자를 밝힌다고 하옥 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스님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묶어 사찰 주변의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았고 사찰에 불을 질렀다. 일부 사찰옆에 묵인 스님은 불에 타죽고 일부 스님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멀리 도망을 쳤다. 그 후 사찰은 흔적만 남고 고씨성을 가진 이가 묘를 썼는데 당시 벼슬이 병사여서 고병사라 불렀다. 현재 사찰 좌측으로 산정상을 향하여 3개의 묘가 그때 쓴것이다. 그런데 묘를 쓴 고씨들은 묘를 쓰고 100일이내에 괴질에 걸려서 모두 죽었다한다.

현 사찰 왼쪽으로 석종이 있는데 석종에는 명문이 새겨져있고 석종 뒤편으로 약 150M 떨어진곳에 산신당이 있으며 석종 좌측으로 우물이 있고 조금 더 가서 계곡물이 흐른다. 원장 스님이 밭을 갈다가 돌로된 추가 발견되어 소장하고 있으며 도자기 편은 청자, 분청, 백자가 보인다. 사찰에서 오봉산 정상을 넘어 전동면쪽으로 내려가면 사찰터가 있는데 이곳에도 기와편과 도자기 목없는 불상이 있다한다.



6. 월현사(月縣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산 328-4

전화: 63-0657

종파: 태고종

조실스님: 신동구(申東求, 71) 법명: 행법(行法)

주지: 신성환(申成煥, 42) 법명: 정오(正悟)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가다보면 월화교를 지나 우측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온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국촌리에서 포장은 끝나고 비포장 도로를 지나 기룡리에 다다르면 남쪽으로 우뚝 솟은 산이 보이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산정상에 사찰이 지어져있다.

월현사(月縣寺)가 창건된것은 1953년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된 국토가 차츰 정리 될때이다.

창건주 신동구(71)스님은 기룡리에서 의술을 익히여 병자들을 치료했는데 당시 의원과 약국이 큰 도시에만 있던터라 병이들어 치료를 못받고 있는 주민들을 스님의 나이 20세에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러던중 불행히도 스님이 병을 얻어 용한 의원과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고 명산의 큰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니 차츰 효험이 있어서 현 사찰에 움막을 짓고 기도를 했다. 어느날 비몽사몽간에 서쪽으로부터 두분이 나타나시어 햇빛 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미간 백호 광명을 비취 주시므로 엎드려 절을 하였더니 그후 몸이 하늘을 나는듯 모든 병고가 사라졌다.

그후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코저 초가로 범당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비암사 주지 진상일 스님을 은계사로 모시어 수도 정진하게 되었다.

스님은 사찰 동쪽으로 양로원을 짓고 오고갈때 없는 노인들을 모아 보살폈다.

또한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고 마을에서 명절날만 되면 살림이 어려워 계상상에 음식을 차리지 못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주해서 모아놓은 쌀을 나누어주고, 학용품이 없어 학교에 빈손으로 갔다 오는 어린학생들에게 사서 나누어 주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수록된 책을 사서 공주, 청주 교도소에 책을 보내고 죄수들에게 올바른 마음자세를 유도했으며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왔다.

1992년에 초가를 뜯어내고 현사찰 건물을 증축했는데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기 전부터 이곳을 사찰터로 전해온다.

예전에 이곳에 석불이 여러개 있었는데 동네 어느분이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에게 팔아먹어 지금은 전하지 않고, 그 당시 석불을 팔은 사람은 자손 하나 없이 내외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현사찰을 지을때 오래된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많이 나왔으며 이곳을 “다람절터” “달음절산” “꼬깔봉” “병풍바위” 라 부른다.

예전에 사찰이름이 “달현사” (달이 나타난다는뜻)이었던것을 현스님이 월현사(月縣寺)라 부르게 됐고 산을 “청룡산” (스님꿈에 푸른용이 꿈틀거리는데 몇번 보이고 지었음)이라 부른다. 사찰내에 우물 하나 있는데 신도들이 속병이 있어 이곳에와 기도를 하면서 물을 마시면 씻은 듯이 낫았고, 우물에 촛불을 켜놓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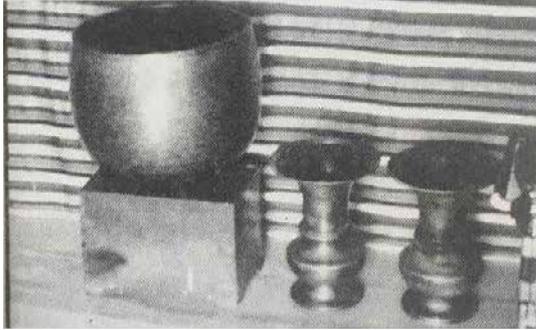
그예로 신도 한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새끼 한마리를 건네 받았는데 그날

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현재 월현사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토불로서 사찰 건립 당시 공주에 사는 김학명(金學明, 1964년 당시 48세에 별세)씨가 조성했으며 그는 탕화와 토불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당시 탕화는 건물을 다시 지을때 맞지 않아 현재는 다른곳에 보관중이다.

신복사(新福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산 175번지

전화: 63-0536

보살: 김종례(金鍾禮, 42)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항공 학교를 지나 월하교를 넘어서면 우측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온다. 그곳을 따라가보면 서면 국촌리가 나오는데 국촌리부터는 비포장 도로를 서쪽으로 계속 오르다보면 기룡리 마을 입구가 나온다.

마을 입구에서 남쪽 산밑에 가정집처럼 꾸며진 암자가 있는데 이것이 신복사이다.

이곳에 사찰이 지어진것은 1955년 3월 20일 낙성식 표시가 있고 창건주는 임노선(1968년 타계)씨의 부인(전주 이씨)이 일본에서 사찰을 일으켰다가 해방과 함께 서면 신대리 자택(현 흥씨 사당 옆)에 모셨었다.

당시 이보살 소유땅이 신대리와 기룡리 (현 사찰 주변)에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6.25사변이 일어난 후 인민군이 이곳으로 몰려와 이 보살에게 협조 할것을 명했지만 이보살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보살을 반동이라고 끌고 가서 신대리 입구 다리에 세워놓고서 총살을 시켰다. 후에 남편인 임노선씨가 이어 사찰을 현 위치에 짓고 10여년간 운영하다가 보살 한분을 두고 운영 했는데 당시 최보살이라 불렀다. 최보살은 현 서면 쌍전리 전당골에 본가를 두고 이곳에 와서 보살을 했는데 1968년 임노경(임대사)씨가 타계하고 1979년도까지 운영하다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후 보살과 대사들이 여러분 드나들다 결국 폐사의 위기를 맞았는데 창건주의 따님이 일년에 몇번씩 이곳에와서 관리를 하다 1990년에 현 보살에게 인수했다.

현 보살은 청주에서 살다 몸이 아파서 사찰에서 곳을 했는데 곳을하는 도중 신기가 몸에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느 보살님이 청주에서 서쪽인 현 사찰을 이야기 해주었지만 당시 찾지 않았다. 어느날 꿈에 스님 내외가 나타나서 제자라 부르더니 현 사찰에 가라는 지시를 내리자 “저는 아직 불도를 닦지 않아 스님될 자격이 없다” 고 말하자 이유 불문하고 가라는 꿈을 꾸었다.

그후 재차 이러한 꿈이 되풀이되고 하는수 없이 이곳 사찰을 찾았는데 주위에 풀이 나고 폐가 었었다. 당시 남편은 이 광경을 보고 반대했지만 보살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석처럼 여겨져서 사찰을 정비했다. 그때부터 보살은 병이 씻은듯이 낳았고 찾아오는 신도들도 정성을 드리니 낳았다. 현재 30여명의 신도가 찾아오고 처음에 사찰을 정비할때 모셔진 부처님은 토불이었는데 관리하지 않아 엉망인것

을 폐불시키고 다시 모셨다.

당시 남아 전해오는것은 인종(좌종)이 하나, 꽃병(철)1쌍 남아있다.

이곳 사찰을 창건한 임대사는 마곡사 태고종에 등록을 시켰고 사찰내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신비스럽다. 사찰 주위로 가끔 동네 사람들이 놀러와서 음식을 해먹으려 할때 개를 잡는다든지 불순하게 놀면 우물물이 나오지 않고 우물을 위하고 정성을 드리면 물이 많이 나온다. 또한 사찰앞에 30여년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나무 주위 발경작인이 보니 열매가 열지 않아 솟놈의 나무를 베어 버려야 겠다는 것을 현보살이 와서 일년만 두고 보자고 이야기 하자 그 이듬해부터 열매가 열기 시작했다. 현사찰 주위를 다랭이골, 안산, 절집산이라 부른다.

보림사(寶林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50-3번지

전화: 865-9930, 63-4782

보살: 전창규(全昌圭, 42세)지월(智月)

종파: 법륜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봉암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함박산” “대박산” 이라 불리우는 산밑에 북향한 요사체가 한옥으로 지어져 있다. 사찰이 이곳에 세워진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래에 지어진 건물로서 아직 단청이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이다.

사찰이 들어서기까지 주지스님의 행로를 살펴보면 1977년 공주군 장기면에 있는 봉학사(鳳學寺)에서 기거를 했는데 당시 사찰 주인인 박장현 스님은 사찰 명의를 지월(智月)스님 앞으로 해놓았다.

그 이유는 스님의 큰 아들이 행패가 심하였기 때문이고 정월 사흘날 술먹고 들어와 아버지와의 마찰에서 사찰내 부처님과 기물을 모두 부수고 말았다. 그 관계로 병환이 더욱 악화된 노스님은 결국 3년후에 돌아가셨고 큰 아들은 사찰 밑에다 집을 짓고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그후 3년 있다 신도들의 권고로 야밤을 틈타 사찰에서 나와 신도집에서 묵다가 와촌리 광불사에 기거하게됐다.

당시 광불사는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고 신도중의 한분이 운영했는데 지월 스님이 주지가 된후 신도가 늘기 시작했다. 신도의 수는 늘어나고 사찰이 비좁다고 생각한 스님은 사찰 주인인 전주지 아들과 딸에게 상의했더니 오히려 사찰을 비워달라고 했다. 지월스님은 사찰을 새로 증축해도 현재 있는 전주지 스님의 공적비라든지 소유건을 모두 현재 상태로 진행한다고 졸라 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스님은 40일을 더 기거하게 해달라고 졸라 허락을 얻고 여러군데 사찰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보았지만 적당한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봉암의 한가정집을 사가지고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과 근방 70여군데를 둘러 보았지만 마음에 들지않고 마지막으로 현 대박산 고추밭에 와서 살펴보니 마음에 끌리었다.

밭 주인과 상의를 했더니 선뜻 승락을 해주어 순조롭게 땅을 매입했고 당시 땅주인은 네명이었다.

1991년도에 매매가 끝나고 92년 8월부터 사찰을 짓기 시작하여 93년도에 요사체만 완성했고 대웅전은

터만 닦아 놓았다.

현재 요사체에 임시 법당을 차려놓고 부처님을 모셨으며 본존 좌측으로 네개의 동불상이 있다.(석가모니, 칠성여래(역사여래), 관세음 보살, 문수보살)이 네개의 동불상을 모시게 된 동기는 스님이 18살때 수덕사에서 불문하고 21살에 안성에서 노 보살님을 만났는데 노보살님의 현몽에 불꽃이 같은자리에 계속 쫓히어 3일후에 그곳을 파보니 불상 4개와 대형수저(약 60CM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저를 장군 수저라 불렀고 1988년 노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월스님께 주었다.

보림사의 주변을 풍수가들이 말하기를 공룡이 누워있는 형상과 거북이가 알을 낳는 형상과 봉황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현사찰터는 봉황의 꼬리 부분이고 사찰내 우물은 동네분들이 위하던곳으로 이곳에 와서 정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있다. 스님이 신도들에게 강조하는것은 평등사상이다.

구곡암(九谷庵)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44번지

전화: 865-5396

주지: 김봉선(金鳳仙, 77세)

종파: 조계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향으로 가다 월하리 항공학교 좌측으로 비포장 길을 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복숭아 밭 사이 고개를 넘어 가면 산 중턱에 사찰이 있다.

1968년 노부전(1978년 당시 65세 타계)보살이 창건 하였다.

노부전 보살은 이북 사람으로 6,25전쟁때 월남하여 조치원에서 사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산을 하나 샀다.

그 산이 “비루산” 이며 명의를 두사람으로 했는데 최영심씨이다.

훗날 노후에 돌봐줄 목적으로 명의를 둘로 했고 산에다 사찰을 건립하고 스님을 모셔왔는데 처음 모셔온 스님은 태고종에 등단된 대처승이었다. 노부전 보살은대처승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스님을 맞이 했으며 비구니인 이지광 스님이왔다. 이지광 스님은 조계종 등단 스님으로 이곳에 8여년 기거하다 현재는 서울 사찰에 있다. 현 주지 스님은 1977년 부산 양산의 내원사(선방)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지광 스님이 와 약 먹으면서 설수 있는 곳으로 가자면서 현 사찰에 데려왔으며 이지광 스님은 같이 지내다 사찰을 맡기고 서울로 떠났다.

창건주와 최영심씨는 고인이 되어 현 사찰 뒷편에 모셔져 있고 사찰 앞으로 흐르는 강을 비루강(비룡강) 산 이름을 비루봉(용이 승천했다는 뜻)이라 하며 산내에 “장군봉” 이라 불리우는 곳에 “장군수” 가 있어 현재 부대의 사단장 관사가 자리잡고 있다.

사찰 앞에 “거북 바위” 가 있고 “샘골” 이라 불리우는 곳이있다.

봉서사(鳳棲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430번지

전화: 865-4027

주지: 윤종후 법명:도운(32)

종파: 법륜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가다 서면 봉암리에서 동쪽으로 마을 가운데를 지나 미호천쪽으로 가면 동네에서 높은 곳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은 1965년 윤종선(1980년 당시 36세에 열반)스님의 요청으로 모친인 송채용(69)보살이 창건하였다.

윤종선 스님은 마곡사에서 공부하다 경주 불국사에 기거하는데 논산 관음사 주지인 김종묵 스님이 상좌 삼는다고 데리고 나와서 다시 관음사에서 계를 받고 상좌가 됐으며 1년여 기거하다 절을 짓기 위해 현곳에 왔다. 절을 짓고 3년후에 결혼을 했으며 1980년 전두환대통령 취임 법회때 연기군 불교 연합총무를 보았는데 조치원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전의 대곡리 대원사 주지 스님과 같이 절에와서 잠자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열반하셨다.

창건당시 사찰 이름이 봉명사(鳳鳴寺)이었던것을 윤종선 스님이 열반하고 “봉서사(鳳鳴寺)”로 바꾸었다.

윤종선 스님이 열반하고 아내인 지옥남(현 37세)보살이 사찰을 이어 운영하다 1988년에 서울 노량진으로 가서 현재까지 보살생활을 하는데 바라춤을 잘 춘다.

그후 막내인 윤동후 스님이 뒤를 이어 사찰을 잇고 있으며 모친인 송채용(현 69세 보살이 보살피고 있다.

사찰 건립 당시 송보살 꿈에 현 사찰에서 떨어진 동네 입구에 살았는데 불빛이 환하게 쬐지면서 큰 소나무가 현 사찰터로 돌아서서 가는데 꽃송이가 보살앞에 푹푹 떨어져 그것을 한아름 안아다 장독대에 갔다 놓았다. 그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모든게 귀찮았고 서면 기룡리 “월현사”에 가서 곳을하고 집에 오면 더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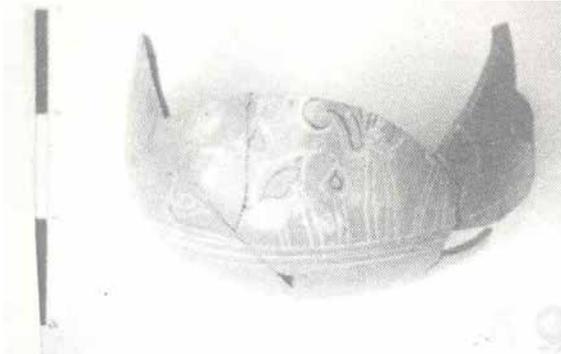
남편이 집을 보고 와서 다시 곳을 하였다. 그때 병은 씻은듯이 나았는데 다음날부터 공연히 마당에 나와 서있곤 했으며 어느날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됐다. 그때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자 물이 얼어 촛대처럼 올라가서 얼어 붙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기도를 마치고 집에와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를 하니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보살이 되었다.

옛 도요지



청라리 불당골 분청도요지

옛 도요지



청라리 불당골 출토

송나라에서 고려로 전해질 때의 청자(靑磁)는 무늬가 전혀 없는 청색유약만 바른 순청자였다.

고려인들은 청색유약만 바르던 청자에다 각양각색의 무늬와 모양을 내는 독특한 기법을 개발 했는데 그것이 상감기법(象嵌技法)이다.

상감기법은 도자기에 음각으로 홈을 파서 무늬를 만든 다음 홈 안에 흑토 혹은 백토를 메워 넣어 유약을 바르고 구우면 그대로 한쪽의 동양화가 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자랑거리는 도자기 뿐만 아니라 종이(紙)에서도 중국인들이 감히 흉내도 못낼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소위 도침작업이라하여 여러장의 종이를 물기가 마르기전에 넓고 편편한 곳에 올려 놓고 떡메로 쳐서 메끄럽고 질긴종이를 생산해냈다.

중국상인이 고려에와서 비단을 팔고 돌아갈때 사가는것은 청자와 종이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려지(紙)와 고려청자의 우수성에 감탄을 했고 중국인들은 고려의 3대보물을 종이(紙)인삼, 청자라고 했다.

고려시대 불교승상은 도자기와의 관계에서 불가분으로 문양이주로 연화문(蓮花紋)이라든지 만자문(卍字紋)또한 불로장생을 뜻하는 거북문과 학(鶴)문양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조선초에 들어와 유교적인 문양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으나 생각해 본다.

분청사기는 청자의 빛깔과 문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많은 양의 무늬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안의 하나였으리라.

나무에 원하는 문양을 그리고 그것을 양각으로 파서 도장을 찍는 식으로 도자기에 찍으면 똑같은 문양의 여러번 반복되게 그려져 나오고 그곳에 분칠을 하듯 백토를 바르면 문양의 홈속에 백토가 베기고 백토를 닦아내고 유약을 바른 다음 구워내면 화려한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고장의 달전리 텃골에 발견된 분청사기를 보면 그릇 앞 뒷면이 뽀뽀한 국화무늬가 인화되어 마치 하얀 국화꽃이 그릇 속 가득찬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청라리 불당골은 예전에 죽세공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절터 주위에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주위에서 발견되는 청자파편은 대나무 문양이 주를 이룬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을 인용하여 도안할 때가 많다. 주위에 대나무가 많으면 대나무문양, 큰절의 영향은 연화문양 들국화가 만발했을때는 국화문양을 도안하여 도자기에 인용했을 것이다.

초기에는 듬성듬성 찍어 그러다 차츰 세련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 선보이고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궐에서는 우수한 그릇을 만드는 곳을 물색했다가 대궐에서 쓸 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

탁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수량과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 감독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1389년(공양왕:恭讓王 1年) 조준(趙浚)의 상소(上訴)를 보면

사용(司饗)에서는 해마다 각 도(都)에 사람을 보내어 대궐에 쓸자기(내용용기:內用甕器)의 제조를 감독하는데 일년에 한번씩하게 되나 공사(公事)를 빙자하고 사리(私利)를 도모해서 온갖방법으로 침해하여 한 도(道)에서 짐을 싣고 오는 것이 소 8·90바리나 되어 지나오는 곳이 떠들썩하나 서울에 이르러서 바치는 것이 백분의 일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사사로이 차지하게 되니 폐해가 이 보다 더 심할 수 없다고 했다.

위의 내용은 고려 사절요(高麗 史節要) 권(卷)34에 나오는 귀절을 풀이한 것으로 고려말의 문란한 사회기강과 고려시대부터 사용방(司饗房)에서 대궐에서 쓸 자기를 감독했음을 알수 있다.

1421년 세종실록(世宗實錄)권(卷)11에 보면 공조상계(工曹上啟)에서 “공조(工曹)가 진언하기를

진상하는 모든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금후로는 그릇밑에 장명(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자의 그릇을 물리도록 하겠다.”

신대리 불당골에서 우리는 그릇주양에 “金”자와 “天”자가 새겨져있는 것을 수집하였다. 위의 글 내용으로 볼 때 신대리 불당골은 가까운 공주 관청에 납품을 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1417년 태종실록(太宗實錄) 卷 33을 보면 호조상계(戶曹上啟)가 나온다.

“호조가 기명(器皿)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올려서 말하기를 장흥고(長興庫)가 상부에 올리는 문서에 의하면 외공사목기(外貢砂木器)는 사용방(司饗房)사선서(司膳署) 내분소에 분납(分納)합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나가면 거두어 들이는 일이 끝까지 안되어 숨기고 파괴되어 환납(還納)의 수는 겨우 오분의 일입니다.

받아간 아래 관청(下典)에 물려 사실상 여러해 커다란 폐단입니다. 바라건데 지금부터는 장흥고(長興庫)에서 받아들이는 사목기(砂木器)는 외공원수내(外貢元數內)에서(司饗房)사선서(司膳署)예빈시(禮賓寺), 전기시, 내차시(內資寺) 내담시(內膽寺) 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 등 각사(各司)에 나누어 상납(上納)케하고 각 해당 관청에서 출납(出納)하는 것을 고찰하여 오래된 폐단을 없게 하십시오. 호조(戶曹)에서 또 말하기를 장흥고(長興庫)에 바치도록 된 사목기(砂木器)에 지금부터 장흥고(長興庫) 3字를 새기게 하고 기타 각 관청에 납부하는 것도 장흥고(長興庫)의 예(例)에 의해 각각 사호(司號)를 새겨 만들어 상납케 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글자 새긴 그릇의 시장(始藏)이 드러나면 관물(官物)을 훔친 죄로 처리하여 거폐(巨弊)를 없애도록 하십시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달전리 텃골에서 수집된 분청사기 중앙에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등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달전리 텃골은 그 시대의 대궐에 많은 양을 납품했던 대규모 도요지가 산재했던 곳이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대충 짐작케 했다.

공주관청에서 가산리 중흥리 청라리 금사리 달전리를 거쳐 전의 천안쪽으로 큰길이 형성되었으리라고 보고 길을 따라 도요지가 거의 분포되어 있다.

예빈시(禮賓寺)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존속해왔던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때 대접하던 기관이었고 외국 손님 앞에 내놓는 그릇은 아무래도 신경을 더욱 썼을것이다. 달전리 텃골에서 발견되는 그릇들은 문양이 정교하고 모양이 세련되어 고급품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빈시(禮賓寺)와 인수부(仁壽府)의 수집은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보아 긴 시간동안 그곳에서 그릇을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

기룡리 청라리 신대리 금사리 달전리 송정리등을 지도로 연결하여 살펴볼 때 그리멀지않은 거리이고 금사리쪽에서 그릇을 만들기에 적당한 흙이 지금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많은 양의 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기군은 도자기의 본고장 임이 틀림없다.

우리고장에 산재해 있는 고도요지중 서면지역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룡 리

- 사기밭

기룡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골이있고 맨끝 밭에서 백자 파편과 가마벽이 출토된다. 밭 주인의 말에 의하면 남쪽으로 산너머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출토된다고 한다.

- 진상동

기룡리에서 쌍류리로 넘어가는 고개입구에 밭이 있고 밭과 산에서 분청사기 파편이 무수히 나온다. 그곳의 지명은 진상동, 분토골이라 하며 태토와 가마벽 도지미등이 출토되고 문양으로는 국화문, 3원문, 거북문, 구름문등 대접, 접시류가 많이 나온다.

신 대 리

- 불당골

신대리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큰절이 있었다 하여 불당골이라 한다. 불당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외딴집이 있고 그 집에서 가까운 밭에 분청사기 파편 도지미, 가마벽, 태토비집이 출토된다.

밭을 일굴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원형의 분청사기가 출토됐다고 한다.

그곳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대략 1417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산에서 밭으로 검은 흙과 분청파편이 묻혀있는 곳이 2군대용기조각과 검은 흙이 묻혀있는곳이 1군데가 있고 주민의 말에 의하면 밭 상단에서 고운흙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간혹 그 흙을 파다가 사용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용 암 리

- 솔티산

고북 저수지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청라리 쪽으로 오르다보면 저수지 끝나는 부분에 세채의 민가가 나란히 있다.

그중 세번째집 옆에 복숭아 밭이 있고 밭을지나 산중턱에 콘크리트 구조 흔적이 나오고 옆으로 복숭아 밭이 있는데 그곳에 도지미, 태토비즘, 분청파편이 나온다.

문양은 뽀뽀한 국화문과 접시, 대접류가 대두를 이룬다.

청 라 리

• 불당골

청라 1구에서 공주군 경계구역에 고개가 하나 있다. 예전에 큰절이 있다해서 불당골이라 불리운 곳이다.

지금도 절터가 남아 있고 그곳에서 700M쯤 아래로 내려오면 복숭아 밭이있고 복숭아 밭을 중심으로 청자, 분청사기, 파편이 흩어져 있다.

출토된 것으로는 도지미, 태토비짐, 가마벽, 청자꽃병, 분청사기 대접, 접시등이다.

청자무늬는 연화문, 대나무, 버드나무, 매화, 물결무늬등이고 분청사기는 국화, 거북, 잉어, 삼원문, 구름문등이 출토된다.

• 청라 2구

청라 2구 황우성씨집에서는 20년전 많은 양의 분청사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파다 마을회관 짓는데 메꾸고 시멘트로 덮었다 한다.

현재 집주위에서 분청사기 파편과 도지미, 태토비짐이 출토되고 있다.

중 흥 리

• 궁골 1호

청라리에서 공주쪽으로 높은 산맥이 형성되었고 농로를 따라 내려가다보면 집 한채가 나오는데 집 못미처에 분청 파편과 태토, 도지미가 출토된다. 20년전 고곳에서 유근목씨와 마을 주민들은 분청파편을 캐서 팔았는데 그때의 양이 2트럭이나 되고 후에 100여가마를 수집했으나 사지 않아 유근목씨 집앞에다 버렸는데, 지금도 언덕에 쌓여있다.

고곳에서 출토된 문양은 잉어문양, 거북문(6각문), 3원문, 국화문, 구름문, 등 그릇의 종류는 대접, 접시, 꽃병, 술병, 등 다양하게 출토됐다.

• 궁골 2호(밭)

청라리에서 중흥리 경계구역 산능선을 중심으로 내려가다보면 밭이 있고 그 밑에 논이 형성되어 있는데 잡초가 우거진 밭에 분청사기 파편과 태토, 도지미, 가마벽이 흩어져 있다. 그곳에서 출토된 독특한 문양은 쌍학문양인데 접시 중앙에 상감되어 있다.

연기군의 도요지 분포는 전의를 중심으로 공주군쪽으로 흘러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청라리 불당골에서 발견되는 우수한 청자 편은 그곳이 고려의 상감청자에서 분청까지의 퇴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었고 달전리 텃골에서 발견되는 “예빈(禮賓)”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예

빈시 납품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1424년에서 1432년 약 10여년 동안 조사하여 발간했는데 그곳에 표기되어 있는 전의현의 서쪽 망현리(芒峴里)는 지금의 금사리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컬었고 전의현의 남쪽에 송티리(松峙里)의 송현리(松峴里)는 송정리 점고개일 가망성이 크다.

전의현의 서쪽 부곡리(富谷里)의 부동리(釜洞里)는 달전리 부거실을 나타내며 연기현의 북쪽 요혜방(要惠方)은 지금의 기룡리라는 것이 사학자들의 말이다. 그러므로 금사리, 송정리, 달전리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발간연도로 보아 1420년을 전후해서 도요지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청자도요지의 청라리불당골은 문양이 선명하고 빗깔이 우수하며 흑토와 백토를 사용하여 상감기법으로 만든 고려중기때의 청자로 보아지나, 달전리 텃골의 청자파편은 흑토문양이 전혀 없고 백토문양만 사용했으며 문양이 흐트러지고 상감에서 분청시대에 만이 쓰였던 박지기법과 소재도 목단, 잉어등이 대두를 이룬다.

분청의 초기 기본적인 문양이 출토되는 곳은 송정리 점고개로 삼원문, 구름문,국화문, 거북문등이 주를 이루고 사선(司膳)선(膳)등의 명문이 출토된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궁궐에서 쓸 가치를 만들어 납품했던 우수한 도자기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달전리의 분청 문양은 그릇 전면과 후면에 뽁뽁히 인화되어 있는 분청의 화려한 전성기 모습이 보인다. 청라리 불당골과 중흥리 궁골 1호의 잉어문양은 같은 모양으로 인화되어 있어 잉어문양의 전달이 중흥리에서 학봉리까지 전해 주었지 않나 본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중기·말기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연기군의 도요지는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까지 다양하게 구워 도요지에 필요한 재료인 흙, 나무, 물의 입지조건이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나 본다.

실제로 금사리 백죽제는 백토의 흙이 나왔다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지금도 흙이 채취되고 있다.

신대리 불당골 같은 경우는 분청사기에서 옹기까지 구웠던 터가 확인되며 지금도 흙이 수집되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대리의 분청사기 대접중앙에 “천(天)와 “김(金)자가 인화된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기록에 의하면 진상하는 그릇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릇 중앙에 이름을 새기게하여 증거로 삼았던 제도가 1421년에 시행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신대리 분청사기는 1421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송성리 멩메바위, 기룡리 기밭, 금사리 당재의 백자도요지는 조선말기의 것으로 추측하며 송성리 멩메바위와 같은 경우는 가마벽에 옹기조각이 들어 있어 천주교인 박해때 천주교인들이 산속으로 피신 옹기와 사기그릇을 구워 몰래 내다 팔았던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 같다.

연기군내의 도요지가 20여군데 있는 것을 확인한것은 이곳이 도자기의 본고장 역할을 생각해 보게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연기와 전의현의 토산품이 자기 도기로 표시된것이 결코 작은양을 가지고 말한것은 아니리라. 도자기 산지로서의 연기군을 우리는 연구하며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일을 전해야 한다.

도공의 장인정신이 깃들여 있고 그릇마다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지리, 풍습이 담겨있다. 옛것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새로운 훌륭한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으리라.

청라리의 마지막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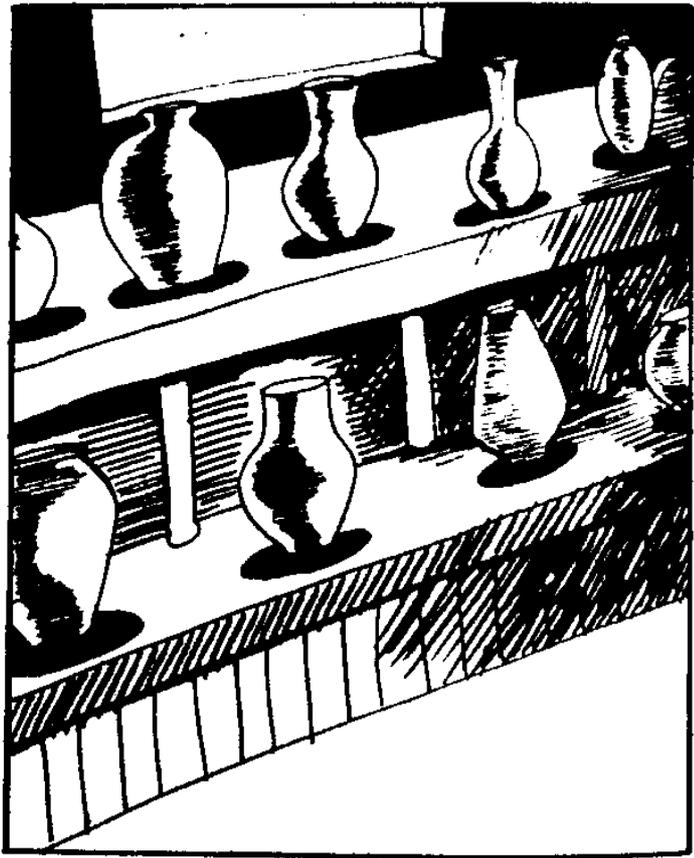


청라리 도요지 출토품

청라리의 마지막고려청자



유호성 그림
임영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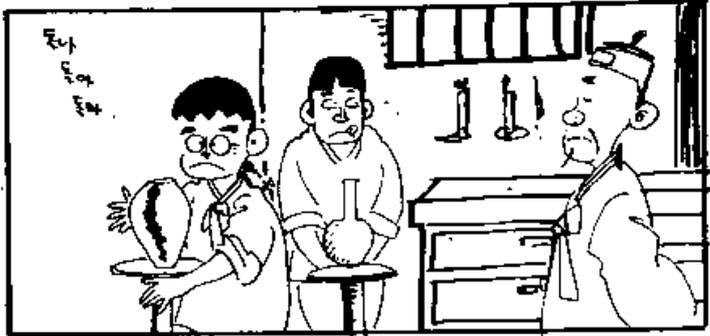
연기라는 마을에서 조흔 풀이런 곳에
칭구릇 숲 가마타가 자라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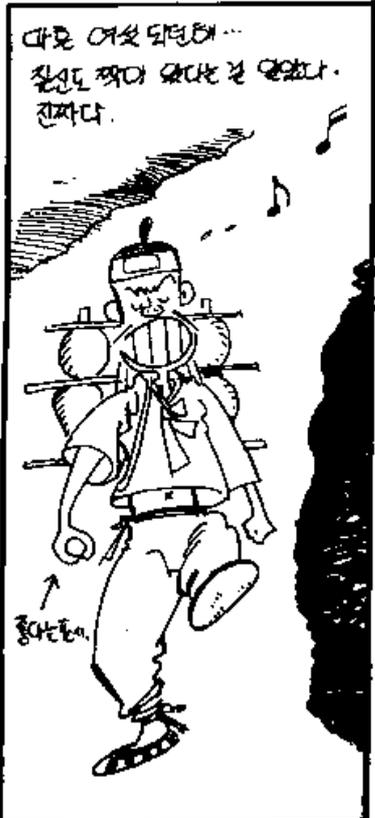


또 하나 대나무이다. 자라다 죽는다. 꽃
중심으로 돌리는 정주(正周)이 자라다 죽어
서 한 가지 내지 않을 죽는다. 죽는다.
관자가 하는 인물이 사기를 넣었다.



라노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다른 여섯 되던데...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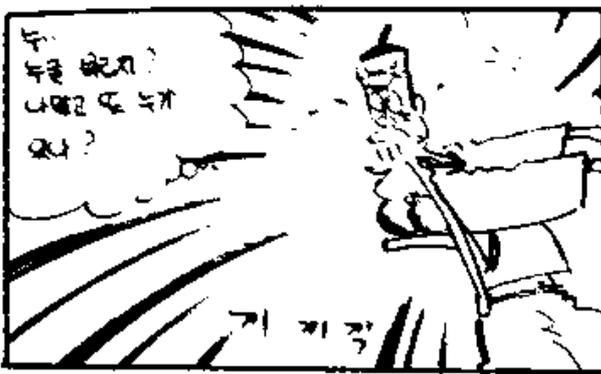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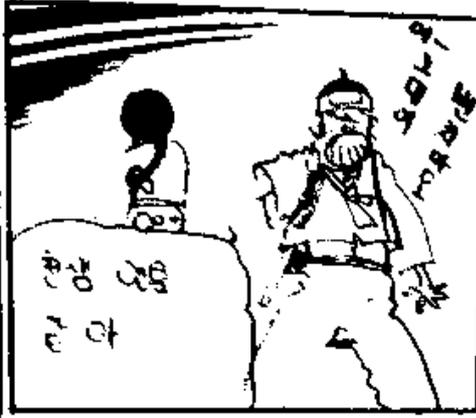


이날 동 한 가지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잡순이와 잡들은 사랑을
했다 죽는다

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관세음 경을
깨가 싶어
진다.

사실
꽃다운 여인은
언마 괴수일까봐



어... 이런
이 도자기들과 선대 전
의 작품이 나왔나
이 야 한 -



어떤 날이면
자강이 하나 나오게 주워졌
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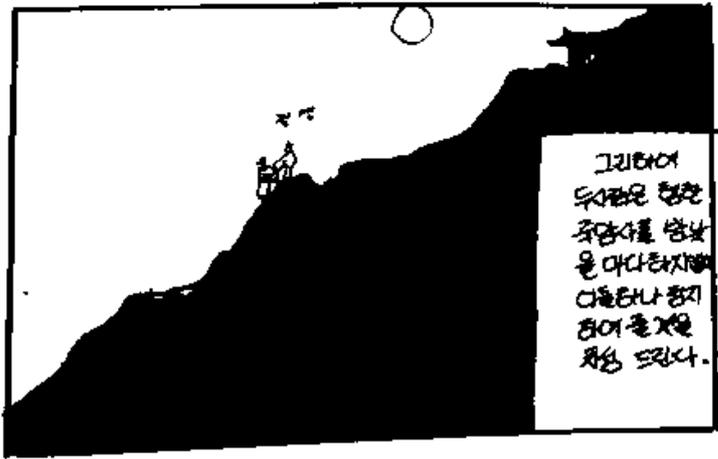
삼천이랑 사위도 흥락과...
아빠!



술이에 -
자강이 없음을 안타깝게
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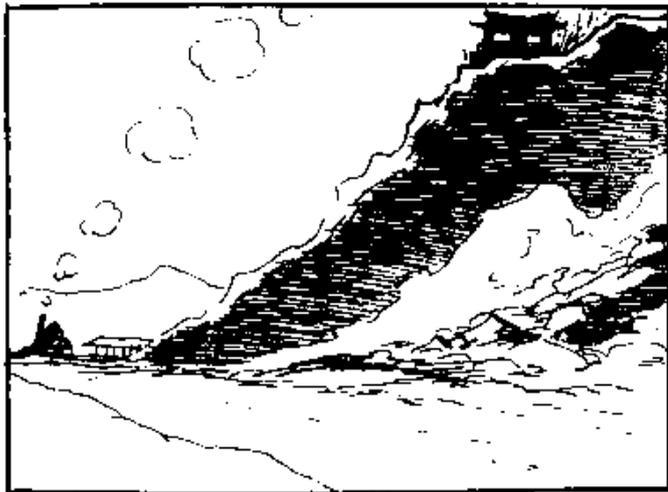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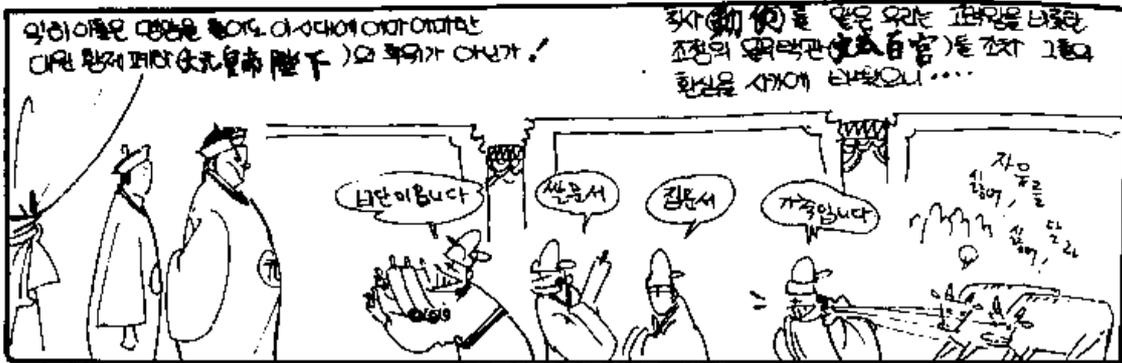
자강은 없다 하나 유령이
영리도 선대대 어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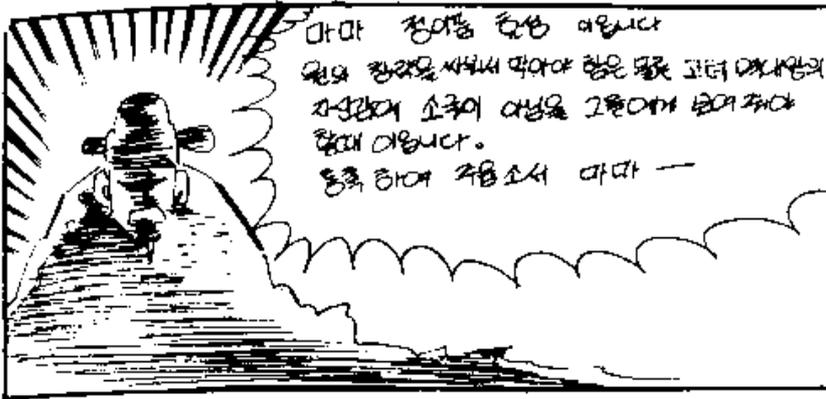


그런데
두꺼운 검은
죽음을 영남
문 마다타자
다들 하나 가지
한여울 거울
차음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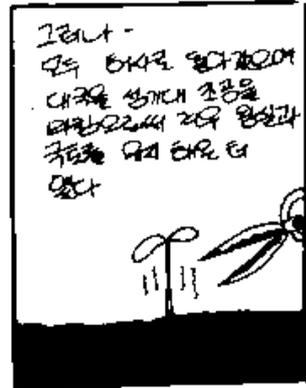








아따 정아름 한쌍 아담다
 원의 정아름 사비내 막아야 함은 물론 고터 대사람의
 자성하여 소쿠이 아성을 그들에게 맡겨 주자
 함대 아담다.
 동쪽 하여 주용소서 아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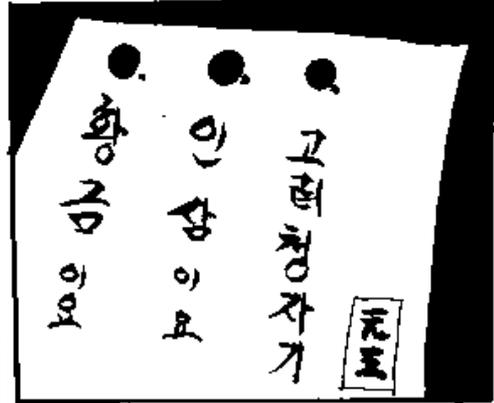
고려나 -
 국의 바사로 일다함으로
 대국을 삼가대 조공을
 바란고로써 조공 원상과
 국을 내리 하여 더
 옳다



옛부터
 공자지 수양대간 조공요는...

계득살고
 하나더 영대-
 해 아저

조공요는
 조공요는
 조공요는



조공요는
 조공요는
 조공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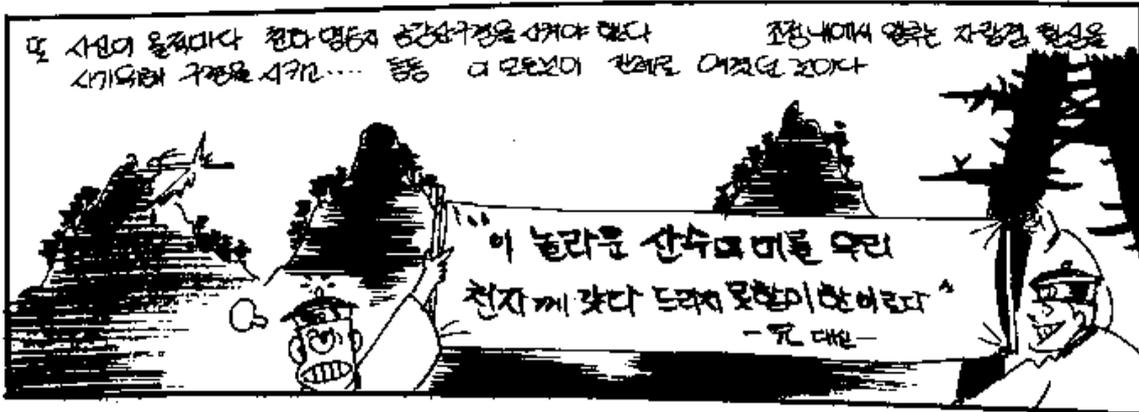
조공요는



권력... 전쟁요는
 모든 국가 영대 함대 함문 아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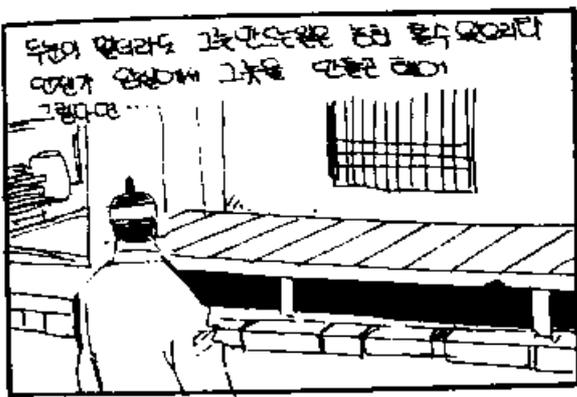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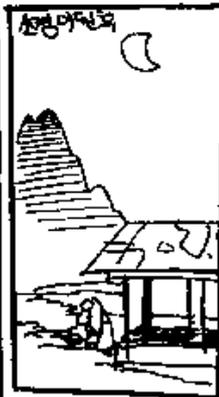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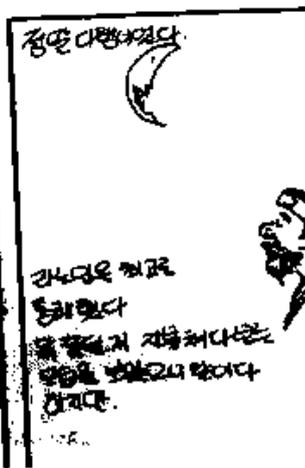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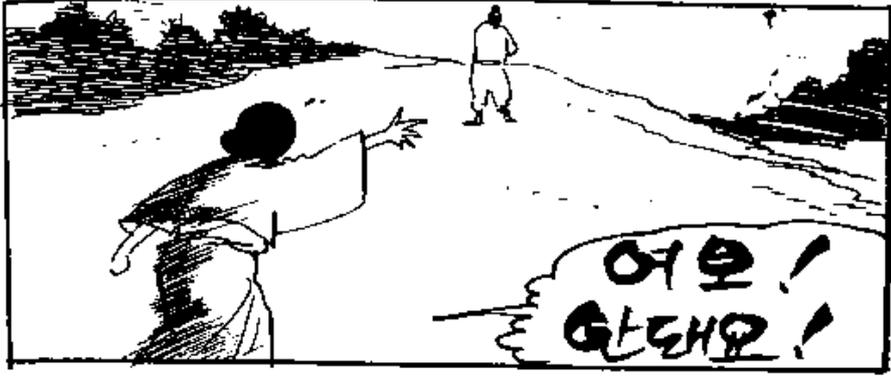
권고자다 자사한 남들. 자사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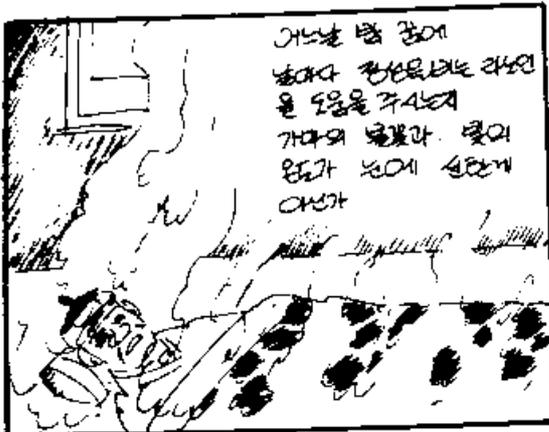


또 사신이 올때마다 천다 명등이 함대 함문 아저들 사귀어야 함다
 사귀어야 함대 함문 아저들... 함문 아저들이 함대 함문 아저들 함문 아저들

이 놀라운 산수대 바를 옥리
 천지께 갖다 드라야 못함미 함대 함문 아저들
 - 完 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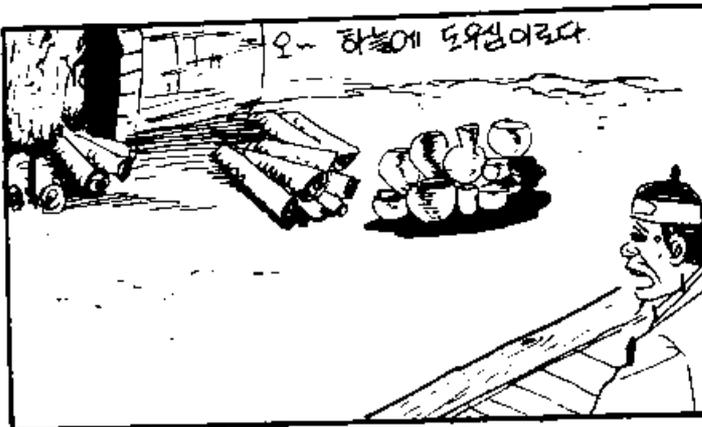




어느날 밤 꿈에
 뽕나무 관음보살이 나타나
 울음을 주시니
 가마의 뽕나무. 뽕이
 땅과 뽕이 서로
 아사



아... 꿈에 뽕나무
 뽕이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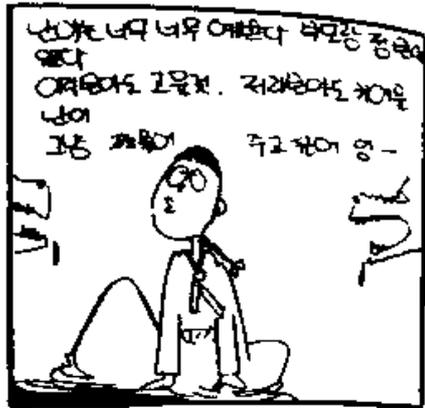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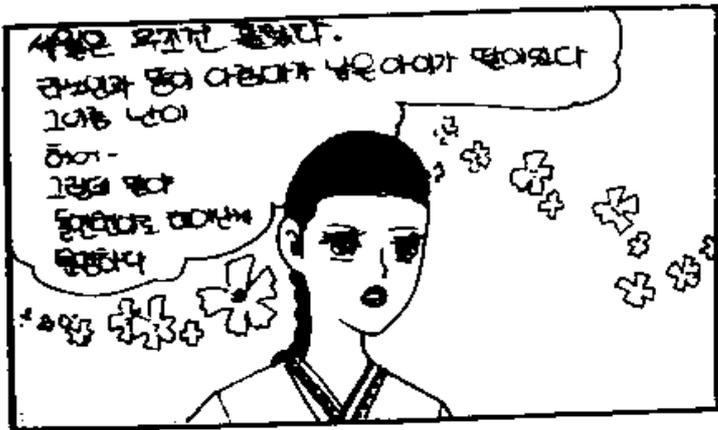
오~ 하늘에 두우심이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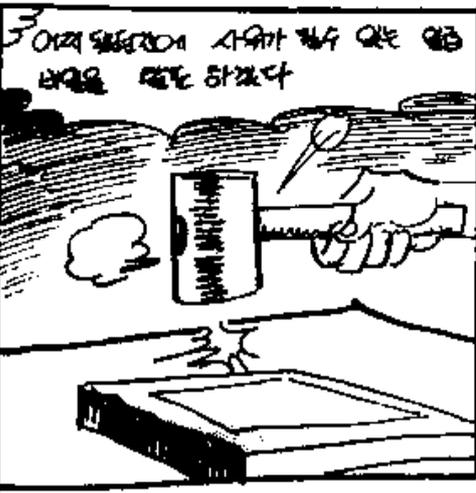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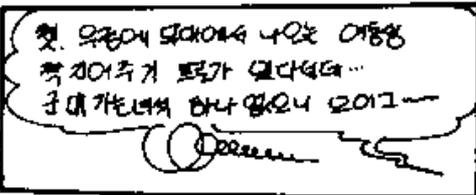


이 비참한 꿈에 연극을 하되
 주시. 조수를 위해 조수를
 이루어 놓고 말리라.



아사라
 라사의 뽕이 정복한바나 꿈에 나타나
 단 10년으로 구원함을 보았다.
 그러나 이 세
 도시에 정경 두는 날이 아사라 와 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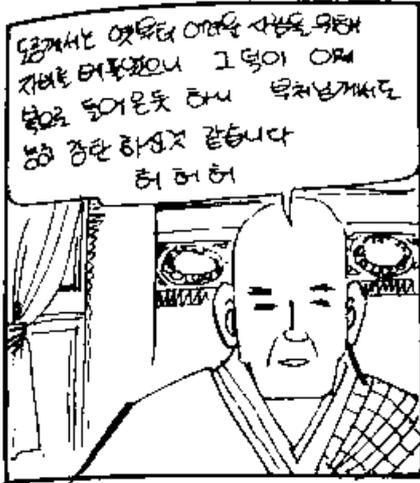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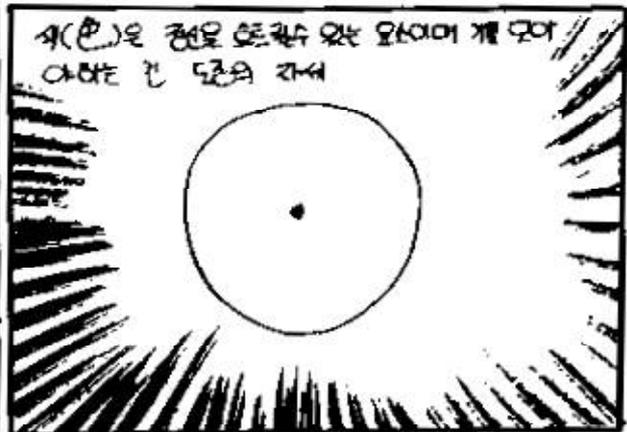


하하
이제 그만
하하 하하
순간이 지나다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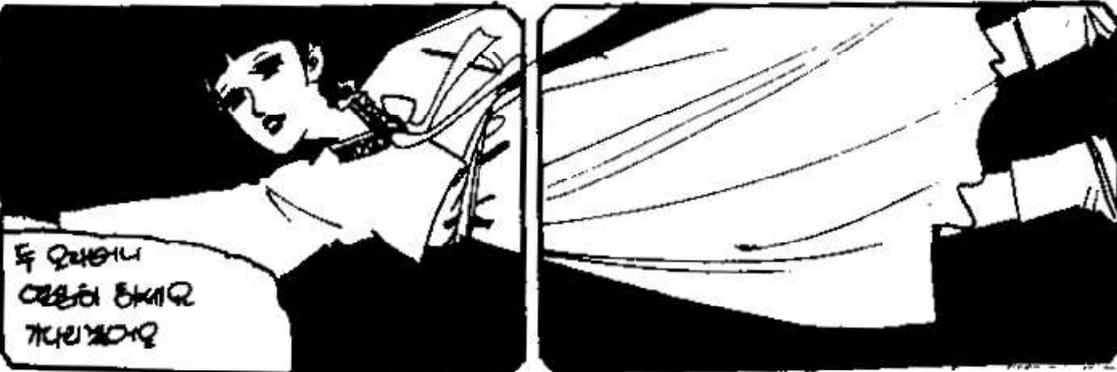
오...
이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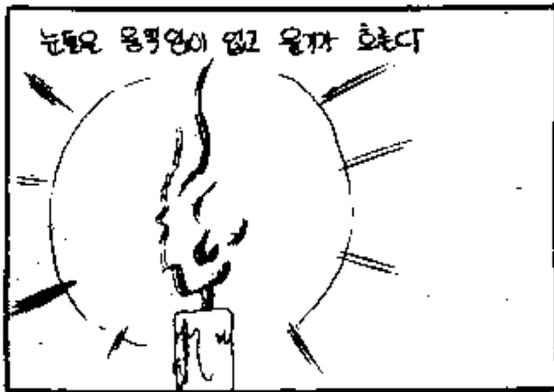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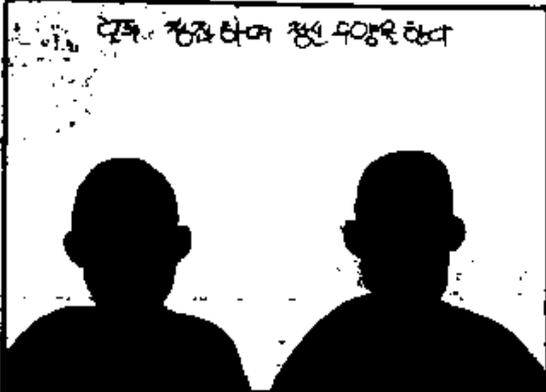








도이
 용이 수월전만 (KASB)
 이 다가왔다.



네 리의 길에 살며서 광명정대의 영산으로
 향하던 자들이 숲에 들어오니 앞은
 맑고 푸른 산천이 성공을 축하하듯 아롱이
 비스듬히 일어서서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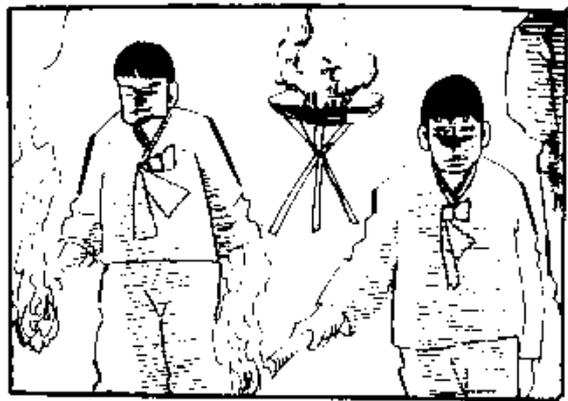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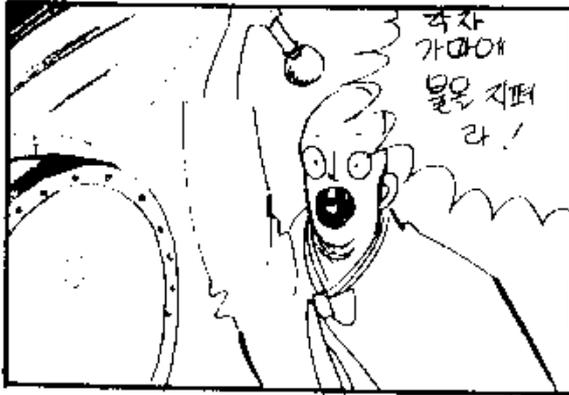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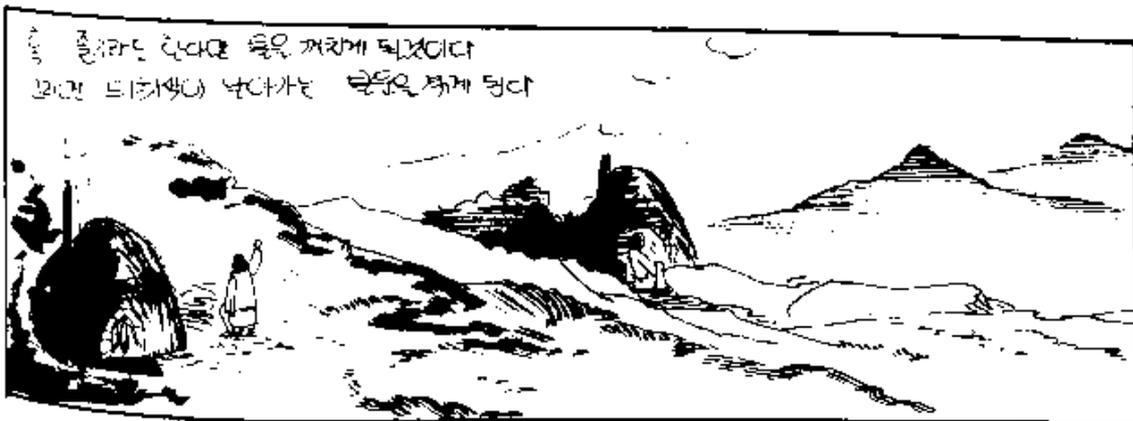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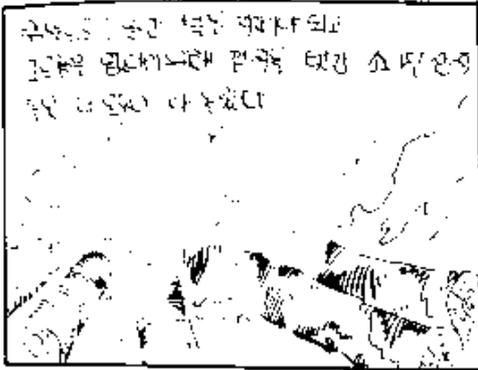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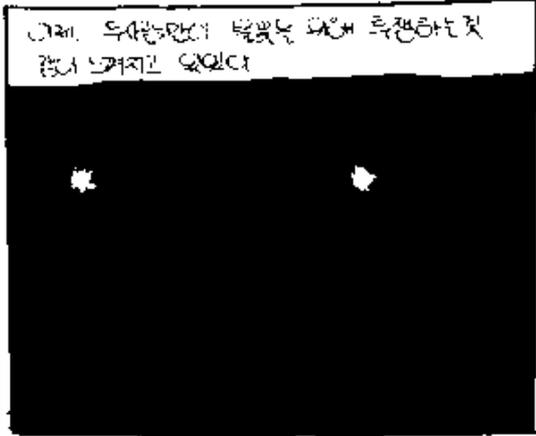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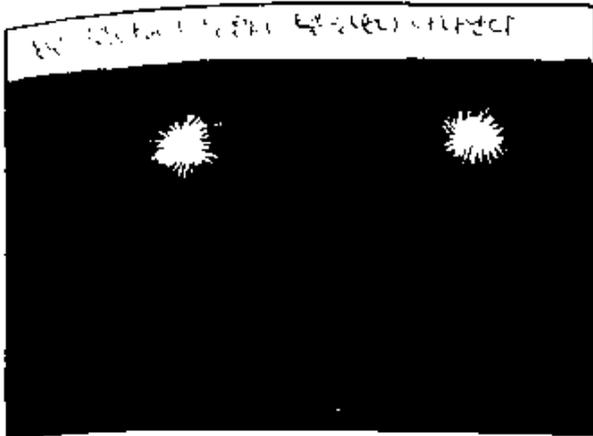
...
 나무 아래에서
 관세음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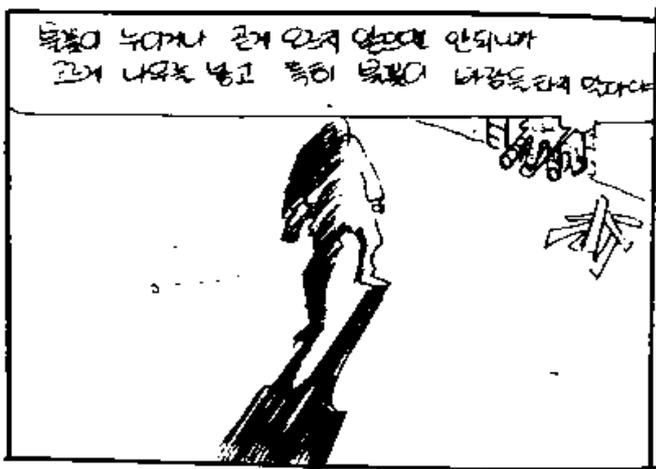
영산 영산 유언대로
 향하여
 나무 정자리에 마셔갈 들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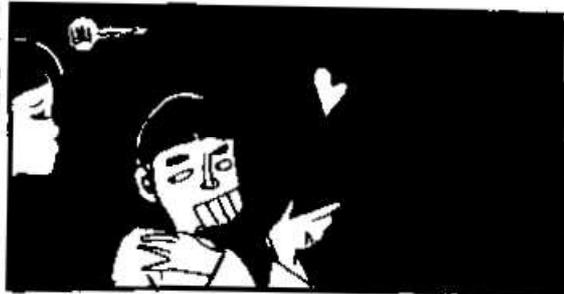
그리하여 빛나고 고귀한 영산의
 정동쪽 영산정에서 정동쪽에
 고귀한 영산의 영산 라씨의 영산으로
 유언대로 가지요 라씨 유언대로
 영산정에서 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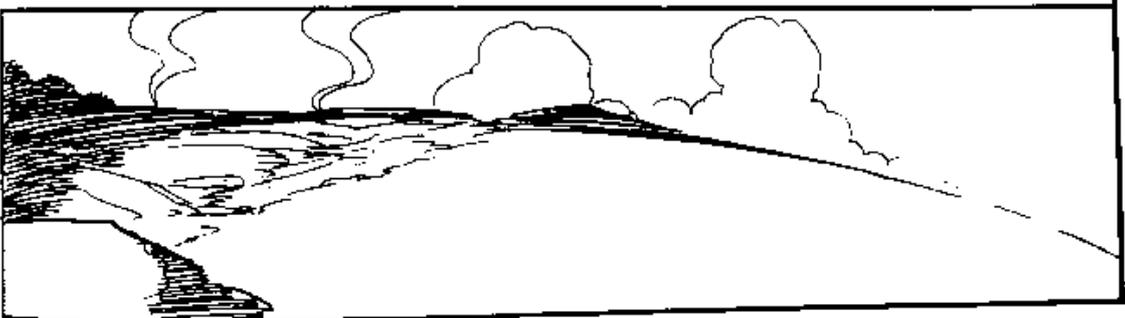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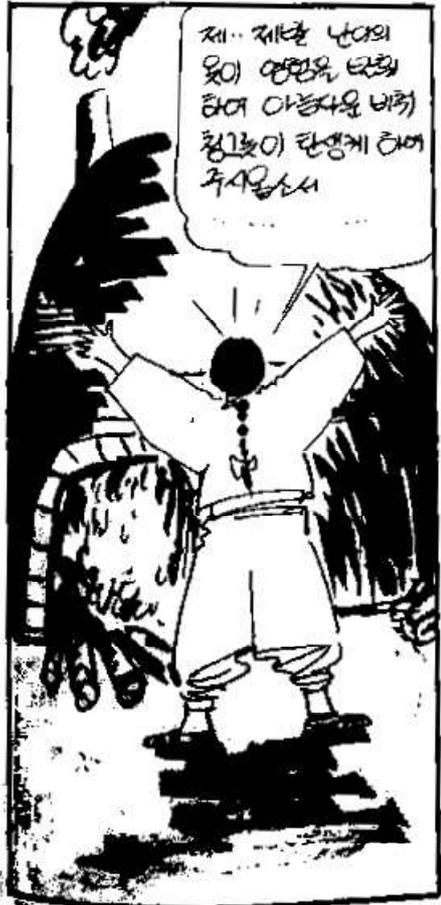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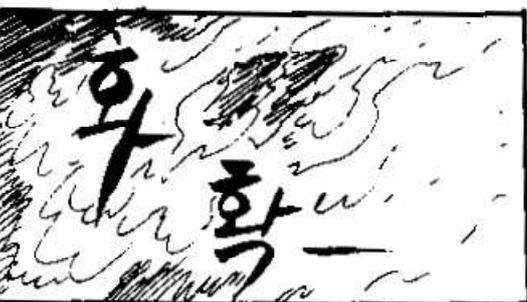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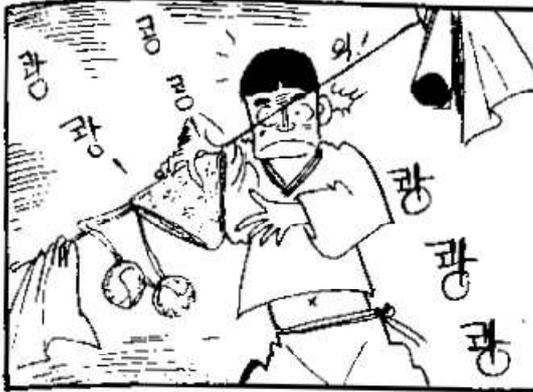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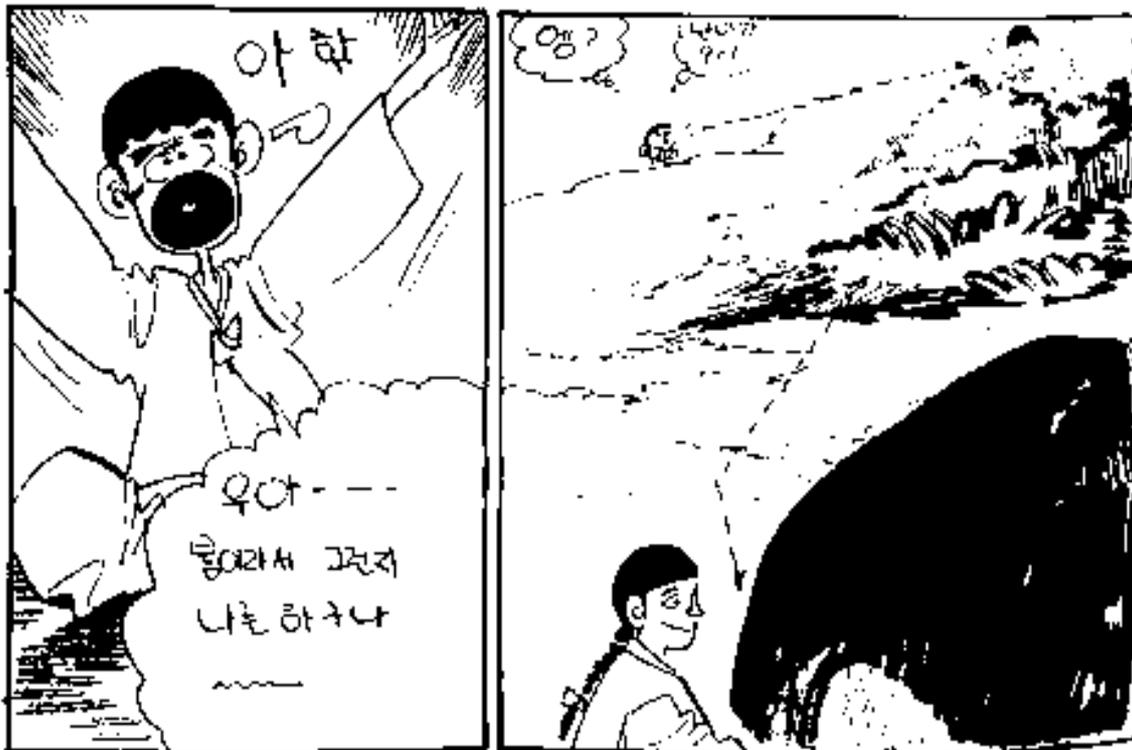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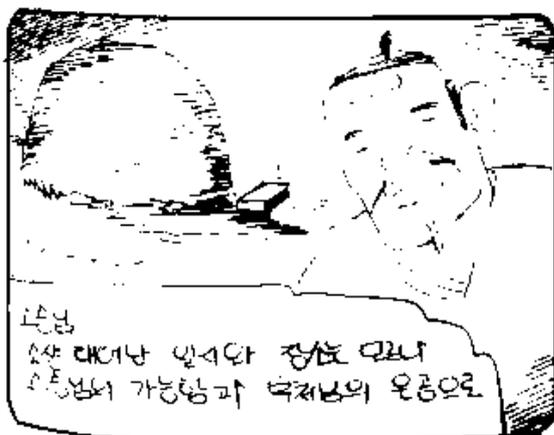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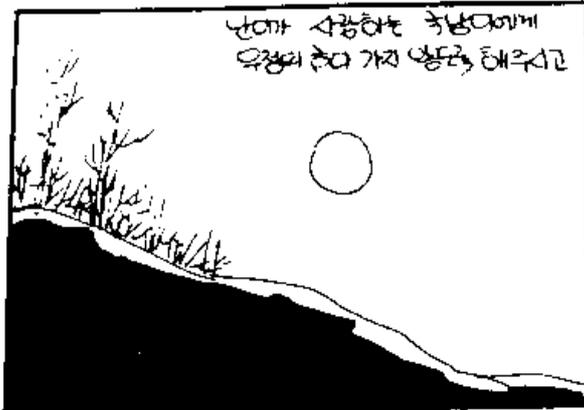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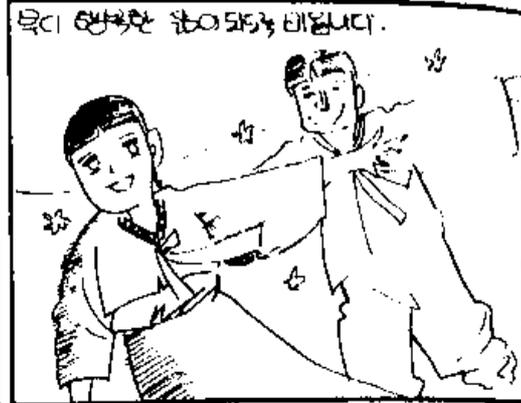








난이 사랑하는 쿠남에게
유령이 죽어 가는 양상을 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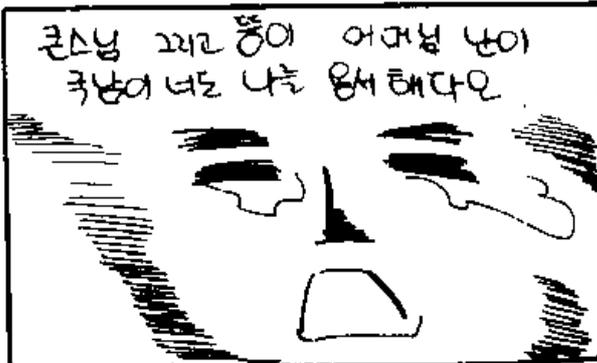
목이 멍멍한 소리가 되어서 바뀔다.



어디까지나
저의 작은
문명이 되어
주신다



아
슬도 슬퍼함은
아닌
요한함으로
죽어 양기는
주신다



큰소리 외로 울이 어머님 난이
쿠남이 버는 나는 양서 해다만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옷이 어디 있겠어?



안타깝게도
두통이

안타깝게도
아빠의 옷은
이 옷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잠자기 옷을
찾아주지
않아?



아... 자판
주머니에
있던
옷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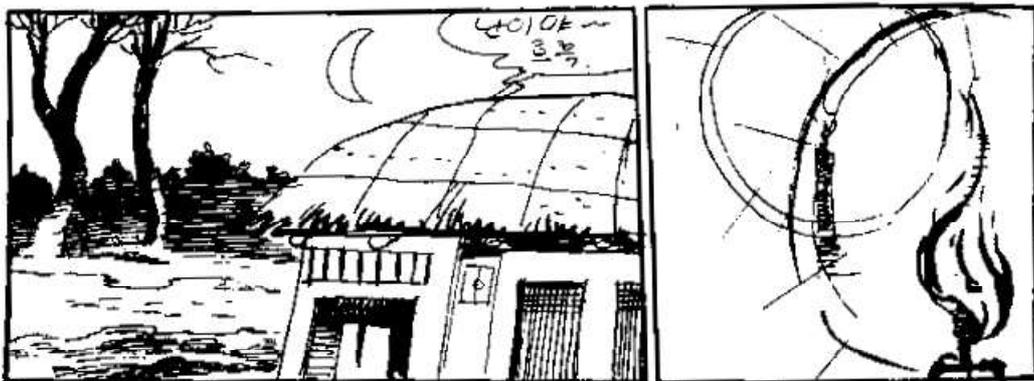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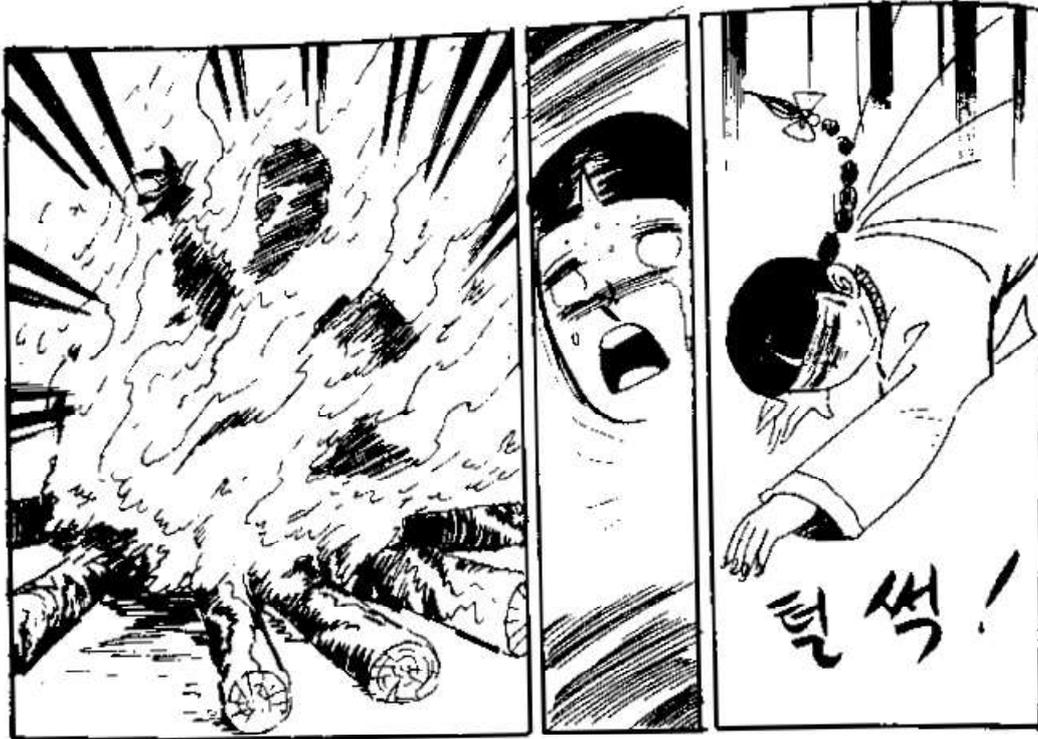


누...
누가
반은 다듬었지?
후 후...
누가 반가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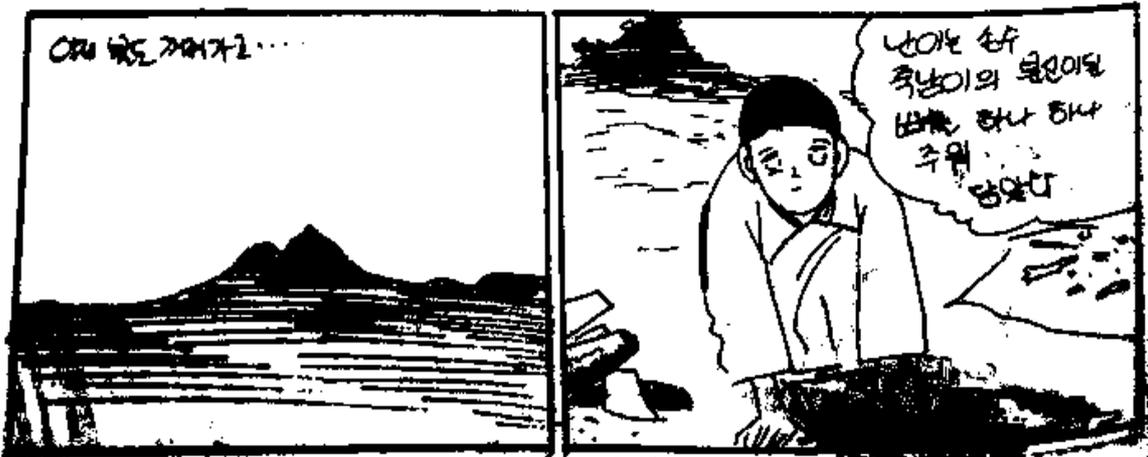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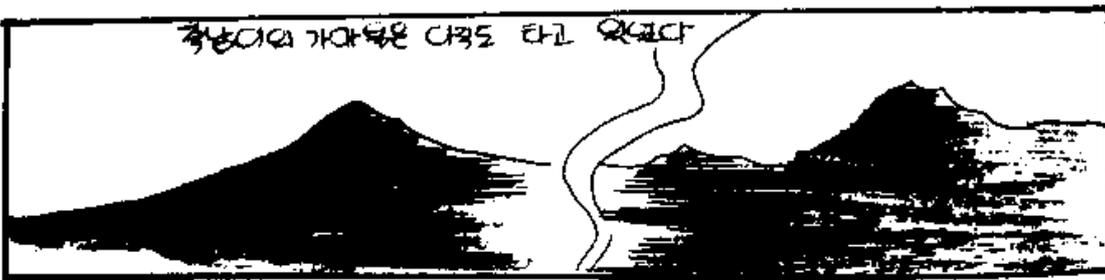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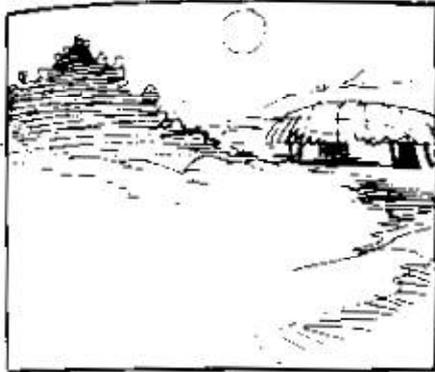
아니... 주머니에
있던 옷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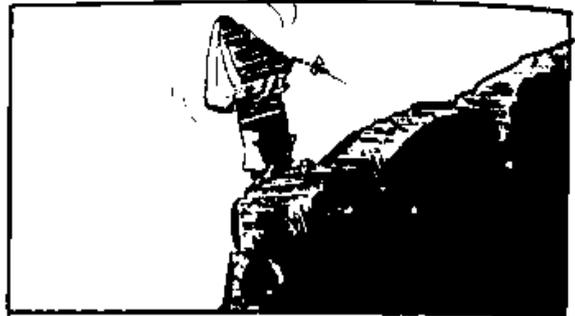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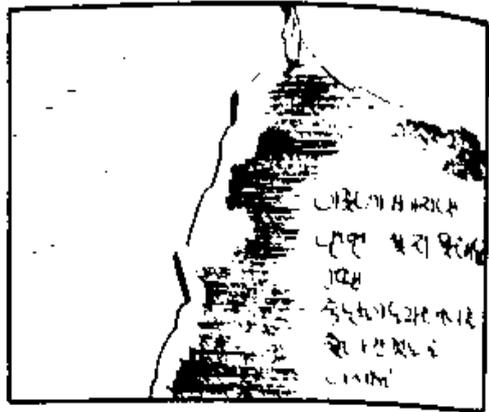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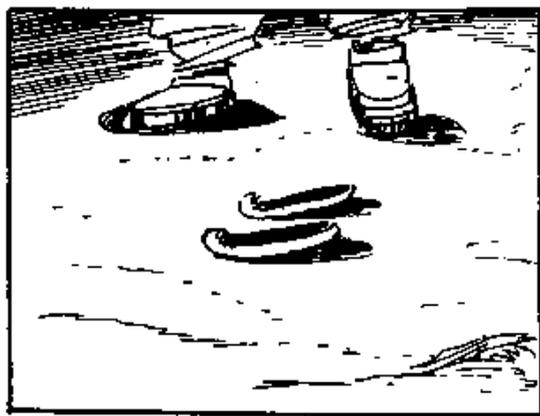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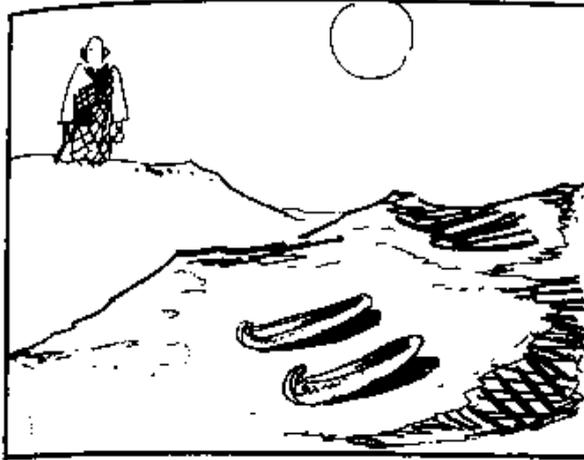












산아까지
원아까지 아미타미
불이 있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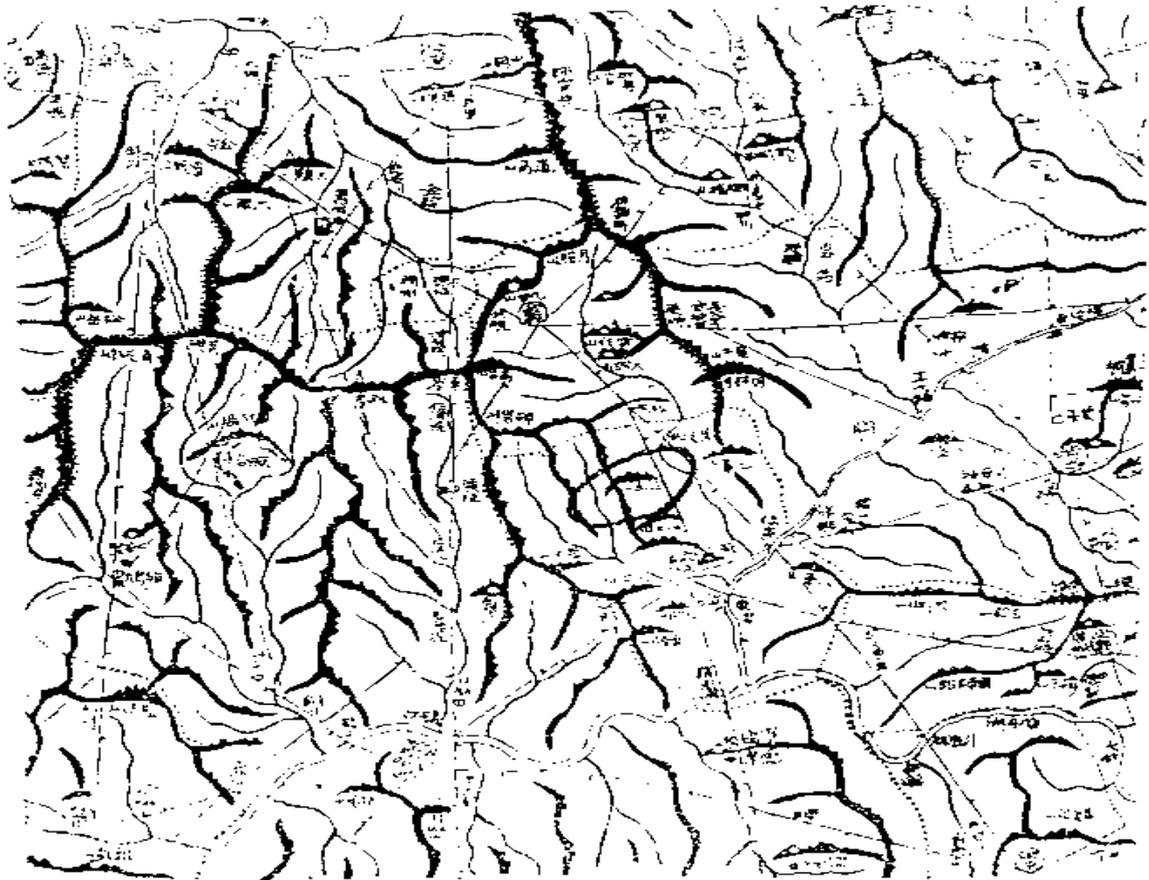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청라리의 죽암사는 무거운 숲속에 묻혀
 지금은 그 절터만이 흔적을 대신 하고
 라노인의 묘자리 말에는 청사 파편만이
 무수히 묻혀있어
 그 당시의
 고려청사 가마터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청라리에서
 서쪽 높은산 너머를
 불당골 이라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청사
 파편을 수집했다
 1991. 10. 7.

연 기 대 첩



연기대첩 전적지- 연기군 서면 쌍전리 정좌산(正左山)



대동여지도(정좌산(正左山)이 표시되어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21

(원문해설-충렬왕16~ 17년까지)

연기대첩(燕岐大捷)

경인 충렬왕 16년(庚寅 忠烈王 十六年) 서기1290(西紀 一二九〇)

봄 정월(正月)

대장군(大將軍)원경(元卿)을 원(元)나라에 보내니 원경(元卿)이 원(元)나라에 가서 일본이 국경을 침범(犯邊)했다고 보고하였다.

장군(將軍) 오인영(吳仁泳)등이 원나라로 부터 돌아와서 말하되 내안(乃顔)의 남은 무리와 합단(哈丹) 원태조{원태조(元太祖)의 제(弟)-제왕(帝王)내안(乃顔)이이팔구(二二八寇)하고 적이 침범하였다} 적(賊)이 우리 동쪽국경을 침범(侵犯)하려고 한다하니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홍자번(洪子藩)과 판밀직사(判密直事)정가신(鄭可臣)등이 병부(兵部)에 군병을 모집할새 안전으로 경상도 도지휘사(都指揮使)를 삼고 김지숙(金之菽)으로 전라도 도지휘사를 삼고 충분으로 충청도 도지휘사를 삼다

이월(二月)

중군만호(中軍萬戶)정수기(鄭守琪)를 보내서 금기산(禁忌山)골에 둔수(屯守)케하고 좌군만호(左軍萬戶) 박지량(朴之亮)을 이천현(伊川縣)경계에 둔수(屯守)케하고 한희유(韓希愈)를 쌍성(雙城)에 주둔(駐屯)케하고 우군만호(右軍萬戶)김흔(金忻)을 환단현지경에 주둔(駐屯)케하고 나유(羅裕)를 통천(通川)의 지경에 주둔(駐屯)케하여 합단(哈丹)적을 수비(守備)하다

제왕(諸王) 제추(帝樞) 승지(承旨) 반추(拌首)로 하여금 각각 쌀 일곱섬씩을 내게하고 방리(坊里)의 서인(庶人)은 쌀을 내되 조금 차등(差等)이 있게하여 동계(東界)의 방술(防戍)의 수비대(守備隊)의 군량(軍糧)을 충당하였다.

이때에 잘못 전한말이 적병(賊兵)이 이미 국경(國境)에 들어오고 안밖(中外)이 웅성 웅성한다하니 홍자번(洪子藩)등이 상의(相議)하고 강화(江華)로 피하여 들어가고저 하는데 허공(許珙)과 최유엄(崔有淹)만은 홀로 불가(不可)하게 여기며 말하되 이제 왕(王)이 서울에 계시니 어찌 뜬소문을 믿고 함부로 국도(國都)를 옮기리요 하였다

자번(子藩)등이 늙은이와 재상(宰相)들을 모여놓고 상의(相議)하니 다들 옮기는것이 마땅하다하였다.

허공(許珙)이 저지(沮之)할 수 없어서 옥당(玉堂)하진 문정에게 일러 가로대 여러 의론이 이러하니 왕명(王命)을 기다리자 하니 모든 대신(宰樞)들이 다말하되 사람들이 이르기를 허중찬(許中贊)이 국가(國家)를 진정(鎮)한다하였더니 이제그가 나라를 그릇치리요 하였다.

공(珙)이집에 들어가서 자손(子孫)들을 불러 놓고 하는말이 나는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者)가 있으면 나의 자손(子孫)이 아니요 반드시 법(法)으로 처단하리라 하더니 얼마안있다가 인후(印候)가 원(元)나라로부터 와서 말하되 황제(皇帝)가 강화(江華)로 천도(遷

都)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왕(王)에게 명(命)하여 말하시되 그 말이 만일 사실이면 수모자(首謀者)를 잡아오라 하셨다하니 국인(國人)이 듣고 허공(許珙)의 슬기로운 지견(識見)을 감복(感服)하였다

도리(중이 몸소 덕행(德行)을 가르치는 스승)첩목아(帖木兒:티무우트 王朝의 始祖)가 사람을 보내니 쌍성(雙城)에 와서 수호하였다

황제(皇帝)가 금자경(金字經)을 쓰라고 글씨 잘쓰는 중을 부르시니 이에 중 삼십오인(三十五人)을 보내서 원(元)나라로 가다

전지첩의부사(前知僉議府事) 김주정(金周鼎)이 죽었다

주정(周鼎)이 소시(少時)에 학문(學問)을 종와하고 침후(沈厚)하여 말이 적으며 함부로 사귀지 아니하였다

처음 부성위(富城慰)로 있을 때에는 북병(北兵)이 많이 들어와서 국가(國家)가 놀래서 요동하는데 주정(周鼎)이 적을 방비(防備)하고 백성(百姓)을 무량(撫梁)하니 위엄과 은택이 드러나서 일방(一方)이 칭송이 자자 하였다

그 다로와찌(달로화적:達魯花赤 몽고어 蒙古語)장관종사품(長官從四品)를 파(罷)하고 왕경유술군(王京留戍軍)과 합포진수군(合浦鎮守軍)과 둔전등군(屯田等軍)이 금방경(金方慶)을 사죄하기를 정(請)한 일들이 다 주정(周鼎)의 계책(計策)이었으니 왕(王)이 더욱 소중(所重)하게 여겼다.

동(東)으로 정벌(征伐)할 때에 태풍이 배를 얻어서 관군(官軍)이 많이 익사(溺死)하였는데 주정(周鼎)이 피를 써서 물에 빠진사람을 건져서 살아난 사람이 심히 많았다

그러나 응방도감사(鷹坊都監使)가되어 매(응:鷹)와 개(견:犬)를 가지고 왕(王)에게 아첨하여 자못 위세(威勢)와 행복(幸福)을 누렸다.

왕(王)과 공주(公主)와 세자(世子)가 원(元)나라로부터 오다 황제(皇帝)가 명하여 동녕부(東寧府)를 파하고 다시 우리 서북(西北)의 모든 성(城)을 돌려주니 왕(王)이 그 총관한신주(總管韓信柱)와 문비(文庇)에게 벼슬을 주어 대장군(大將軍)을 삼고 현원열(玄元烈)로 태총윤(太僕尹)을 삼고 나공언(羅公彦)과 이한(李翰)으로 장군(將軍)을 삼다

여름 사월(四月)

경문을 쓸 중(스님) 육십오인(六十五人)을 내서 원(元)나라 가다

오월(五月)

최함일(崔咸一)등 삼십일인(三十一人)에 급제(及第)를 시키다

왕(王)이 술을 해놓고 서북(西北) 모든 城에 사는 사람이 본국에 돌아온 자들을 다 잔치에 시종(侍從)하기를 허락하였다

합단(哈丹)이 해양(海陽)경계로 들어오다 군사를 뽑되 오품이하(五品以下) 문관(文官)과 내시다방(內侍茶房) 삼관(三官)과 오군(五軍) 학문을 금하고 양관(兩官)이다 하여금 중군(從軍)하게 하였다.

장군(將軍) 김정수(金廷壽)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들어와 도적질한다고 보고(報告)하였다

유월(六月)

대장군(大將軍) 한진(韓慎)을 명(命)하여 서경병(西京兵)을 거느리고 합단(哈丹)을 동(東)쪽 경계에서

방어(防禦)하다 장군(將軍) 김흥예(金興裔)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가서 새매를 바쳤다

김연수(金延壽)가 원(元)으로부터 돌아올 적에 황제(皇帝)가 명(命)해 가로대 적군(賊軍)을 토벌하되 고려(高麗)에 이르거든 도로(道路)가 돌아 휘어서 멀으니 함평부(咸平府)로부터 나와서 남경해양(南京海陽)에서 적(賊)의 길을 끈는 것이 좋다하였다.

가을 칠월(七月)에 다시 서북(西北)쪽 모든 성(城)의 수령(守令)을 두고 장군(將軍)정복균(鄭復均)으로 서경(西京) 유수(留守)를 삼다

원개원로(元開元路) 미상(米詳) 다로와찌(달호화적:達魯花赤)팔독만(八禿滿)이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군량(軍糧)을 찾다.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정인향(鄭仁鄉)으로 서북면지휘사(西北面指揮事)를 삼다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김휘(金輝)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가례(賀禮)하다

왕(王)이 재관(宰官)과 추의(樞議)를 불러서 적(賊)을 막을때에 첨의참리(僉議參理)인후(印候)가 말하되 주상(主上)이 친히 장수가 되어 동(東)쪽 경계로 남시어 적(賊)의 길을 막되 적(賊)이 만일 근경(近境)에 들어오거든 주상(主上)께서 강화(江華)로 들어가서 신등(臣等)으로 하여금 정병(兵丁)을 거느리고 막게하소서 왕(王)이 가라사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자내는 어찌 먼저 피(避)하여 민심(民心)을 흔들어 놓느냐 적(賊)이 비록 오래 머무르나(장구:長驅)나에 이르러서는 삼군(三軍)의 뒤(전:殿)가되어 사직을(社稷)을 온전히 수호하라 하는가 하였다.

팔월(八月)

신미(辛未)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장군(將軍)초함을 보내서 경문(經文)을 중을 거느리고 원(元)나라로 가다

◇왕(王)과 공주(公主)와 세자(世子)가 마제산(馬堤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한희유(韓希愈)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다

대장군(大將軍)유비(柳庇)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군사(軍事)를 청하고 또 강화(江華)로 적(賊)을 피(避)한다고 보고하니 황제(皇帝)가 허락하다

◇세자(世子)가 전(前)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홍문(洪文)의 계녀(系女)를 납폐(納幣)하여 비(妃)를 삼다

구월(九月)

왕(王)과 공주(公主)가 도라산(都羅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위위부(衛尉府) 윤민현으로 전라도지휘사(全羅道指揮使)를 삼고 판사제사 엄수안(判司宰寺 嚴守安)으로 충청도지휘사(忠淸道指揮使)를 삼다

원(元)나라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서 장경(莊經)을 손질하다

왕(王)이 수강궁(壽康宮)에서 제사(祭祀)를 올리다

상장군 차신(上將軍 車信)을 보내서 처녀(處女) 열일곱 사람을 원(元)나라에 드렸다.

겨울 시월(十月)

원(元)나라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서 죄를 용서하다

◇부인(婦人)과 노약자(老弱者)를 강화(江華)로 옮기다

십일월(十一月)

국사(國史)와 보문각비서사(寶文閣秘書寺)의 문적(文籍)을 강화(江華)로 옮기다

대장군(大將軍) 유비(柳庇)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쌍성(雙城)에 침입했다고 보고 하였다.

◇궁인(宮人)을 강화(江華)로 옮기고 또 태조반상(太祖塑像)도 옮겼다

◇원(元)나라에서 평장사(平章事)인 도리첩목아(帖木兒)를 보내서 와서 원조하여 합단(哈丹)을 토벌하는데 도리첩목아가 사람을 보내서 고해 가로대 국왕(國王)이 마땅히 경성(京城)에 있으며 우리 군병(軍兵)을 호궤(犒饋)해야한다 하였다.

세자(世子)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갈적에 정당문학(政堂文學) 정가신(鄭可臣)과 예빈 윤민지(禮賓 尹 閔漬)등이 따라가다

세자(世子)가 서울에 이르러서 홍군상(洪君祥)의 집에서 관사(館舍)를 잡하였다

어느날 황제(皇帝)가 편전에서 인견(引見)하고 의자(궤:機)에 기대고 누워서 물기를 네가 무슨 책을 읽었는고 예 유학자(儒學者)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정가신(鄭可臣)과 민지(閔漬)가 이에 있어 호위하며 틈틈으로 효경(孝經)과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를 질문하니 황제(皇帝)가 크게 기뻐하며 가신(可臣)을 부르고 세자(世子)를 오라하고 인견(引見)하여 같이 들어오라하고 급히 일어나서 관(冠)을 쓰고 책(責)하여 가로되 너는 비록 세자(世子)지만 나의 사위요 저는 비록 유학자(儒學者)이니 어찌 나로 하여금 관(冠)을 쓰지 않고 보게하리요 하고 앉히고 본국(本國)의 세대(世代)가 서로 전해온 차례와 다스리고 어지러운 사적(事赤)과 풍속(風俗)의 순후함을 묻고 아침(長時)부터 오후(未:末)까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그뒤에 공향대신(公卿大臣)을 명(命)하여 교지(交趾)땅을 정벌(征伐)할 것을 의논할때에 초칙(詔勅)의 명(命)이 있기를 고려 세자(世子)의 스승 두사람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니 두 사람이 의논해 가로대 교지(交趾)땅은 먼 오랑캐 땅이다 군사를 괴롭혀서 정벌(征伐)하게 되니 사자(使者)를 보내서 불러오게 함만 같지못하니 만일 미혹(迷惑)한 자를 잡되 복종하지 않거든 죄(罪)를 일러서 치소서 한번의 황제(皇帝)의 높은 뜻을 만전(萬全)할 것입니다. 이에 가신(可臣)에게는 한림학사(翰林學士)嘉義大父를 내리고 치(漬)에게는 직학사(直學士)朝禮大夫를 내리니 당시(黨時)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기더라

원(元)나라에서 조인규(趙仁規)를 고려국왕단사관(高麗國王斷事官)을 삼아서 김호부(金虎符)를 하사(下賜)하다.

십이월(十二月)

안전으로 충청도 도지휘사(忠淸道 都指揮使)를 삼다. 합단(哈丹)의 군사 수만(藪萬)이 함락하다

화(和)와 등(登)두골에 사람을 죽여서 먹고 부녀(婦女)] 를 데려다가 사슴에게 먹이니 만호인후(萬戶印候)를 보내서 이를 막았다.

원(元)나라 평장사설도간과 도리첩목아우승탑출등이 보병(步兵) 기병(騎兵) 일만삼천인(一萬三千人)을 거느리고 오다.

정해일(丁亥日)에 왕(王)이 정병(兵丁)을 강화(江華)로 피하게하고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 송분을 명(命)하여 왕(王)의 경성(京城)을 버리고 강화(江華)로 달아나 들어오고 서경유수(西京留守) 정인경(鄭仁卿)도 또한 서경(西京)에서 도망해오다.

신묘(辛卯) 충렬왕 십칠년(忠列王 十七年(서기 1291)西紀 一二九一)

봄 정월(正月)

합단(哈丹)이 장차 철령(鐵嶺)에 이르러하니 방수만호(防守萬戶) 정수기(鄭守琪)가 바람을 바라보고 도망해와서 순마소(巡馬所)에 갇혔다.

철령(鐵嶺)은 길이 좁아서 겨우 한사람을 통할 정도였다. 합단(哈丹)이 어관(魚貫)에서 말에 내리고 오를때에 적(賊)이 주립이 심하더니 수기(守琪)가 버린 양식을 얻어서 배부르게 먹고 수일(數日) 후에 북을 치고 가며 전진(前進)하여 드디어 철령고개를 넘어서 교주(交州)로 들어오니 김흔(金忻)등이 다 지키지 못하고 달아났다.

적(賊)이 이에 공격하여 양근성(楊根城)을 함락 하였다.

◇갑신일(甲寅日)에 합단(哈丹)이 원주(原州)에 주둔(駐屯)하다.

오십기병(五十騎兵)이 치악성(雉嶽城)아래에 와서 소와 말을 노략질하거늘 원주별초향(原州別抄鄉)(공자미상:貢字未詳) 진사원 충갑(進士元 沖甲)이 보졸(步卒) 여섯사람을 거느리고 적(賊)의 말 여덟필(匹)을 빼어 가지고 돌아오다 무오일(戊午日)에 적(賊)의 도자도독어급발란등이 군사 사백(四百)을 거느리고 또 성(城)아래에 이르러서 본주(本州) 녹전미(祿轉米)를 얻어서 심히 기뻐하거늘 충갑(沖甲)이 용감하게 죽을 자 중산(仲山)등 일곱사람과 더불어 나아가 엿볼적에 중산(仲山)이 먼저 적중(賊中)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베이고 인(囚)하여 쫓아가서 형문(荊門)밖에 이른다.

적(賊)이 모두 안장과 말을 버리고 다라나니 말을 노획한것이 이십오필(二十五匹)이었다.

방호별감 북규(防護別監 卜奎)가 크게 기뻐하여 모두 노획한 바 안장과 말로써 수여(授與)하였다. 기미(己未)일에 적(賊)이 다시와서 기(旗)와 북(鼓)을 많이 설치(設置)하고 먼저 한사람으로 하여금 서(書)를 가지고 와서 달래거늘 충갑(沖甲)이 나아가서 서(書)를 가진 자(者)를 베이고 그 서(書)를 머리에 매달아서 던지니 적(賊)이 모두 물러가서 더욱 성(城)을 공격할 도구를 수리(修理)하니 성중(城中)이 떨고 두려워 하더라

경신일(庚申日)에 사로잡은 양근성(楊根成)의 부녀(婦女) 두사람을 보내서 성(城)밑에 와서 달래거늘 충갑(沖甲)이 또 베이니 적(賊)이 북을 치며 시끄럽게하고 전진(前進)하며 백계(百計)로 공격하니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성(城)이 거의 함몰될 지경이다. 흥원창판관 조신(興元倉判官 曹愼)이 성(城)을 나와서 적(賊)과 싸우고 충갑(沖甲)이 동(東)녘 봉우리(봉:峯)로 돌진(突進)해 올라가며 적(賊) 한 급(級)을 베이니 적(賊)이 조금 물란해진다.

별장 강백송(別將 姜伯松)이 노복도미(奴僕道尼)등 삼십여인(三十女人)과 더불어 구조(救助)하고 주(州)의 노수원현부행란(老數元玄傳行蘭)과 원종수(元鍾秀)가 국학(國學)의 정의(正義)를 양성(養成)한 제생(齊生) 안수정(安守貞)등 백여인(百餘人)과 더불어 서봉(西峯)으로부터 내려와서 함세하여 공격하니 조신(曹愼)이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거늘 화살이 오른팔을 관통했어도 북소리가 쇠약해지지 아니한다.

적(賊)의 앞줄이 조금 패하고 뒷줄이 놀래고 흔들려서 서로 짓밟히거늘 주병(州兵)이 함세하여 공격하니 소리가 산악(山岳)을 진동하였다.

도자도등 육십팔인(六十八人)을 베이니 사살(射殺)한 것이 거의 반(半)이나 된다..

이로부터 적(賊)의 칼날이 꺾여서 감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성(城)이 또한 굳게 지켜서 비로소 적(賊)을 경시(輕視)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모두 충갑(忠甲)의 힘이라.

◇세자(世子)가 제(帝)를 비입고 합단(哈丹)을 치기를 청(請)하니 제(帝)가 나만알대왕(大王)을 명(命)해서 군사 일만(一萬)을 거느리고 토벌(討伐)하였다.

이월(二月)

세자(世子)가 장군 오인영(將軍 吳仁泳)으로 하여금 제(帝)에게 아뢰어 가로대 합단(哈丹)이 북(北)녘 경계 모든 성(城)을 함락했다하니 제(帝)가 말하기를 너의 나라는 당태종(唐太宗)이 친(親)히 정벌(征伐)했어도 오히려 이기지 못했고 또 나의 조정(朝廷)에 처음에는 돌아오지 아니하거늘 나의 조정(朝廷)이 정벌(征伐)하되 또한 쉽게 이기지 못했더니 이제 이 작은 도적을 어찌 심히 두려워 하느냐 인영(仁永)이 아뢰어 말하되 고금(古今)의 성쇠(盛衰)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帝)가 밤에 싸울것을 일러주다.

삼월(三月)

대장군 송화(大將軍 宋華)를 보내서 개경궁궐(開京宮闕)을 지키게하니 화(華)가 단적십여기(丹賊十餘騎)를 만나서 삼급(三級)을 베이고 한 사람을 사로 잡았다.

이천(利川)사람 신비(申費)가 합단(哈丹)간첩과 통(通)하거늘 용강(龍岡)사람 김철(金哲)이 또한 적중(賊中)에 투신(投身)하여 인도해서 서울로 들어오게하여 둘다 시가(市街)에서 참(斬)하다.

여름 사월(四月)

한희유(韓希愈)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고 김흔(金忻)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고 최유엄으로 부지밀직사사감찰대부(副知密直司事監察大夫)를 삼다

◇원주산성(原州 山城) 방호별감복규(防護別監 卜奎)가 포로 오십팔인(五十八人)을바치다

◇곡주(谷州)별장(別將) 강평기(康平起)등이 적(賊)에게 얻은 말과 안장등 물품(物品)을 드리고 충주산성(忠州山城別監)이 사람을 보내서 적(賊)을 파(破)한 것을 보고(報告)하고 또 적의 머리 사십급(四十級)을 바치다

◇신사일(辛巳日)에 왕(王)이 나아가서 원(元)나라 군사를 남도북(藍島北)녘들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서국왕(河西國王)과 경중군왕(慶重郡王)과 설도간과 도리첩목아(帖木兒)와 평장(平章)과 탑출(塔出)과 우승백(右丞白)(백자미상:白字未詳)이 참연(參宴)하였다

첩목아(帖木兒) 설도간이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강남(江南)이 배로 운반하여 아직 도착되지 않았으니 만일 적(賊)을 대하여 군량(軍糧)이 떨어지면 어찌하겠소 또 찬성사(贊成事) 홍자번(洪子蕃)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정승(상국:相國)이되었으니 돈과 곡물(穀物)을 다 네가 아는 바니 처지(處地)에 따라서 지급(支給)해야한다. 왕(王)이 입장이 곤라해서 말해 가로대 내고(內庫)에 쌓인것을 꺼내면 지급할 수 있다 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왕(王)이 나만알대왕(大王) 탑해원사(塔海元師)를 신예역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고 위로할적에 나만알이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왕(王)께서도 친히 나아가서 적(賊)을 막아야합니다

왕(王)이 노병(老病)으로 사양하니 나만알이 말하되 적(賊)이 방에 들어왔으니 어찌 노병(老病)으로써 스스로 편히 여기리요 하니 왕(王)이 대답을 못하였다

◇이튿날 기축일(己丑日)에 나만알이 사람을 보내서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어젯날에 욱(辱)되이 임석(臨席)하여 위로를 받았으니 감(敢)히 깊이 감사(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만 적(賊)을 막는 일에는 대답하지 않고 가시니 나는 실지(實至)로 의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웃 사람이 불이났어도 오히려 가서 구제하거늘 하물며 이것은 자기집일인데 앉아서 보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공주(公主)에게 안장하나를 바쳤다.

◇임진일(壬辰日)에 설도간대군이 금령역(金嶺驛)에 머무르고 호도지가 말하되 오월오일(五月五日)에 적(賊)을 만나서 싸운다하니 몽고(蒙古)에서 이르기를 술인(術人)이 호도적(胡秃赤)이 된다하니 인후(印候)가 듣고 추관정(秋官正)과 기효진(奇孝眞)으로 하여금 점(占)을 쳐 보게하니 예괘(豫卦-좋은점괘)를 만났다.

이에 말하기를 오월 이일(五月二日)에 적(賊)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인후(印候)가 이말을 설도간에 보고(報告)하니 도간이 인견(引見)하여 물으매 전(前)과 같이 대답하였다 또 물기를 합단(哈丹)을 사로 잡겠는가 가로되 못 잡겠습니다.

도간이 가로되 이미 싸워서 이긴다말하고 또 잡지 못한다고 함은 무슨 까닭인고 인후(印候)가 가로되 일이 지나면 시험하여 잡겠다고 하였다

◇장군(將軍) 오인영(吳仁泳)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침범하여 왕경(王京)에 왔다고 보고하였다.

오월(五月)

정유(丁酉)초하룻날에 합단(哈丹)적(賊)이 연기현(燕岐縣)에 주둔(駐屯)하거늘 설도간 대군(大軍)과 우리 삼군(三軍)이 한밤(야반:夜半)에 목주(木州)를 출발(出發)해서 먼동(여명:黎明)이 틀 무렵에 연기정좌산(正左山)밑에 이르러서 적진(賊陣)에 핍박(逼迫)하여 나가서 불의(不意)에 포위(包圍)하니 적(賊)이 크게 놀라서 산(山)으로 올라가 험준함을 뒤로하고 싸우고저 하거늘 우리 삼군보졸(三軍步卒)이 앞에 있고 기병(騎兵)이 뒤를 쫓아서 적(賊)의 복심(腹心)과 배후(背後)가 제어(制禦)를 받아서 다 말을 버리고 숲 사이에 숨어서 우리 전봉중(前鋒中) 두사람을 사격(射擊)한다.

우리 군졸(軍卒)이 두려워서 감(敢)히 전진(前進)하지 못하거늘 김흔(金忻)이 꾸짖고 또 명령(命令)하여 가로되 감(敢)히 후퇴(後退)하는 자(者)는 참(斬)하겠다 하니 이에 보졸오백(步卒五百)이 먼저 앞서기를 다투어 올라가서 죽기로 싸운다.

졸병(卒兵) 이석(李碩)과 전득현(田得賢)등이 앞으로 돌진(突進)하여 적(賊)의 선봉(先鋒) 장사(壯士) 두 놈을 참(斬)하고 이 김을 타서 크게 외치며 대군(大軍)이 합세(合勢)하여 공격(攻擊)하니 적(賊)의 세력(勢力)이 궁지(窮地)에 몰려서 달아나며 무너져버린다

추격(追擊)하여 공주(公州) 하천(河水)에 이르니 어푸러진 사체(屍體)가 삼십여리(三十餘里)에 빠치고 물에 빠져 죽은놈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적(賊)의 날랜 기병(騎兵) 천여명(千餘名)이 하수(河水)를 건너 도망을 친다

◇그의 부녀자(婦女子)와 의복(衣服)과 안장과 말과 보기(寶器)를 노획(盧獲)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날이 저물어서 군사를 돌려 연기의 북(北)녘 오십리(五十里)쯤에 주둔(駐屯)하였다.

합단적(哈丹賊)이 뒤에 이르지 삼천기병(三千騎兵)이 철령(鐵嶺)을 넘어서 교주(交州)에 주둔(駐屯)하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적(賊)의 날랜 기병(騎兵)이 군병(軍兵)의 모습을 닮고 다스려서 다시와서 우리를

대하고 진(陣)을 치니 나만알 대왕(大王)이 미처 크게 싸우지 못함으로써 분하게 여겨서 더불어 싸우고져 하거늘 적(賊)에 용사(勇士)한 사람이 있어서 화살을 발(發)하면 백발백중(百發百中) 언제나 거꿀티린다.

한희유(韓希愈)가 창(槍)을 가지고 말을 달려서 적진(賊陣)에 돌입(突入)하니 인마(人馬)가 놀래서 피하거늘 용사(勇士)를 잡아내어 베이고 그 머리를 창(槍)에 걸어서 보이지 적(賊)들이 다 장하게 여겼다.

대군(大軍)이 진격(進擊)하여 크게 패(敗)하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반사:班師)서 석판역에 머무르고 나만알이 하여금 설도간에 일러 가로되 적(賊)의 괴수(魁帥)를 사로잡지 못했으니 진격(進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도간이 가로대 황제(皇帝)의 성지(聖旨)같으면 가(可)하거니와 어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하리요 하였다

◇인후(印候)와 한희유(韓希愈)와 김흔(金忻)이 사람을 보내서 싸움에 이긴것을 보고(報告)하고 노획(虜獲)한바 부녀자 팔인(婦女子 八人)을 바치다

◇적(賊) 일천명(一千名)이 옛 동주(東州)에 이르러서 관군(官軍)이 적(賊)을 연기(燕岐)에서 파(跛)했다는 말을 듣고 드리어 철령(鐵嶺)으로 돌아왔다가 지나갔다

천부(天府:임금의 창고)에 올라가서 관군(官軍)을 배부르게 먹였다

찬성사(贊成事)가 벼슬을 사직(辭職)하고 김연(金連)이 죽었다

김연(金連)이 일찌기 꿈에 허리에 찬 금어(金魚)가 땅에 떨어지거늘 스스로 해석하여 가로되 몸에 지닌 인장(印章)이 이미 갔으니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하고 드디어 나이가 많음을 핑계삼아 퇴직(退職)하기를 해결(骸乞)하였다.

성질(性質)이 순후(淳厚)하여 사람의 경사(慶事)와 상사(喪事)에 가깝고 먼것을 가리지 않고 다 힘써서 부조(扶助)하였다

◇계유일(癸酉日)에 왕(王)이 개경(開京)에 거동하시다

◇설도간이 주공(公主)를 뵈이고 노획한 바 남여 오십인(男女 五十人)과 좋은 말 다섯 필을 바치니 왕(王)과 공주(公主)가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였다

◇설도간이 군령(軍令)이 엄숙하여 사졸(士卒)들이 떨고 두려워하여 설도간이 지나는 바에는 조금도 침범할 생각을 못하였다.

적(賊)이 연기(燕岐)에 주둔 했다는 말을 듣고 이틀 갈것을 하루에 가고 불의(不意)의 피를 내서 두번 싸워 적(賊)을 패(敗)한 것이다.

그의 힘이였다.

유월(六月)

정묘(丁卯) 초하루에 왕(王)과 공주(公主)가 강화(江華)로 돌아오다.

◇김흔(金忻)을 죽전(竹田)에 보내고 한희유(韓希愈)를 충청(忠淸)에 보내고 나유(羅裕)를 교주(交州)에 보내서 합단(哈丹)의 남은 적(賊)을 추격하여 잡으니 신미일(辛未日)에 적(賊) 오백팔십인(五百八十人)이 희유(希愈)에게 항복하고 합단(哈丹)의 아들 노적(老的)이 군졸(軍卒)을 이끌고 죽전(竹田)을 넘어서 평양(平壤)으로 향하거늘 나유(羅裕)가 이를 막고 장차 배를 노아 상륙(上陸)하려하니 현문혁(玄文奕)이 말리면서 하는말이 저기는 언덕이 지형(地形)이 낮고 돌아드는 곳이니 복병(伏兵)이 있을가

두렵다하니 유(裕)가 듣지 않더니 행렬(行列)을 이루지 못해서 적(賊)이 크게 이르거늘 나유(羅裕)가 군사를 지휘하며 물러가서 겨우 배에 오르자 낭장(郎將) 이무(李茂)와 수십인(數十人)이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였다. 문혁(文奕)이 배위에 서서 불려서 가로대 무(茂)아 힘을 써서 능(能)히 기특한 공적(功績)을 세우면 나라에서 포상(褒賞)이 있을 것이니 몸을 버리고 포로(捕虜)가 되어 처자(妻子)에 욕을 보이는 거와는 어떤것이 더 낫느냐 하니 이무(李袤)가 수십인(數十人)과 더불어 독산(獨山)을 질주하며 적장(賊將)을 경시(輕視)하고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앉아서 그 무리를 나누어 산(山)을 에워싸고 올라갈 때에 날라오는 화살이 비오듯 하거늘 이무(李茂)가 나무를 가까히하고 섰으니 날은 저물고 주립이 심하여 전대속에 있는 마른 양식을 씹고 또 군사에게 일러가로대 남아(南兒)가 죽는 가운데에 생명(生命)을 구(求)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활을 당겨 왼쪽으로 쏘아서 바로 맞추니 적장(賊將)의 목구멍이 활줄에 응하여 거구러졌다

적중(賊中)이 스스로 어지럽거늘 무(茂)등이 크게 부르짖으며 꺾박하여 공격하니 머리를 베인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낭장고세(郎將高世)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청(請)하여 친(親)히 성절(聖節) 생신(生辰)을 치하(致賀)하고 아울러 다시 개경(開京)에 천도(遷都)할 것을 아뢰니 제(帝)가 윤허(允許)하다

◇원(元)나라에서 해도만호 황흥(海道萬戶 黃興)과 장유천호은실(張侑千戶殷實)과 당세웅(唐世雄)등을 보내서 배 사십칠(四十七) 수로써 강남(江南) 쌀 십만석(十萬碩)을 싣고 와서 꾸어주니 이는 세자(世子)가 일찌기 아뢰되 해마다 국민이 전쟁속에서 수자리에서 헤매며 침식(寢食)도 편히 못해서 농사도 실시(失時)가 되어 기근(飢饉)이 심하다 했으므로 이렇게 하사(下賜)를 받아 칠품이하(七品以下) 낮은 직위(職位)부터 무직백성(無職百姓)까지 차등(差等)을 두어 쌀을 고루 나누어 주게 되었다.

제(帝)의 뜻은 원래 빈민(貧民)을 구제하는데 있었으나 이제 빈민을 먼저하지 않고 부(富)한 사람도 많이 차지하였다

칠월(七月)

구급별감(救急別監)을 충청도(忠淸道)와 서해도(西海道)로 나누어 보내다

◇민헌으로 우승지(右承旨)를 삼으니 이때에 승지(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판사(判事) 이덕손(李德孫)과 권의(權宜) 및 헌이다

내료(內僚)를 부탁해서 구(求)하거늘 왕(王)이 취사선택(取捨選擇)이 난처(難處)하여 손수 T J 卅 삼인(三人)으로 하여금 탐지(探之)하였는데 민헌이 뽑힌 것이다.

◇정당문학 정가신(政堂文學 鄭可臣)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하례하다

◇원(元)나라에서 절서관(浙西管) 전사대탑(田使大塔)등을 보내와서 죄(罪)를 용서하였다

◇안전으로 서북면 도지휘사(西北面 都指揮使)를 삼다.

◇날이 가물고 흉년이들어서 안집별감(安集別監)을 각도(各道)에 나눠 보내서 적당히 조세(租稅)를 감(減)해 주었다

팔월(八月)

첨의중찬 허공(僉議中贊 許珙)이 죽었다.

공(珙)은 공암현(孔巖縣) 사람이니 성질(性質)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생산(生産)을 일삼지 아니하고 비록 벼슬이 높ی 되었으니 식시(食時)dp 한 그릇을 사용(使用)하는데 불과(不過)하며 베이불(포피:布被)

과 부들자리로대 거처(居處)할때 태연하고 여러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하였다.

소시(少時)적에는 한중을 거느리고 옷은 살을가리면 그만이요 대개 허송세월이 없으며 버린 시체(屍體)를 보면 스스로 물어주었다.

일찌기 달밤에 거문고를 타더니 이웃집 처녀(處女)가 담을 넘어서 달려왔다 허공(許珙)이 감(敢)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의(禮義)로써 효유(曉諭)하니 그 처녀(處女)가 수줍어하며 돌아갔다. 죽은 후에 시호(諡號)를 문경공(文敬公)이라 하다

◇장군 김위량(將軍 金位良)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동경번주(東京蕃州)등에 인물(人物)을 추쇄(推刷)하였다.

◇이덕손(李德孫)으로 서북면 지휘사(西北面 指揮使)를 삼다

◇임금의 가까운 시자사랑(侍者郎將) 김용검(金龍劍)을 보내서 경상 전라 충청도(慶尙 全羅 忠清道)의 소복별감(蘇復別監)을 삼으니 이 지방(地方)(주군:州郡)이 적(賊)의 해(害)를 받아서 백성(百姓)이 시달려서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이 호세(浩勢)를 부리며 소요하고 원망과 비방이 서로 더하며 천문(天文)이 여러차례 변하여 장차 관리(官吏)의 선악(善惡)을 조사하여 상벌(賞罰)을 시행(施行)하기로 하였다.

구월(九月)

홍자번(洪子藩)으로 판전리사사세자사(判典理司事世子師)를 삼고 조인규(趙仁規)로 판군부사사세자부(判軍簿司事世子傅)를 삼고 염승익(廉承益)으로 판판도사사세자보(判版圖司事世子保)를 삼고 정가신(鄭可臣)으로 첨의찬성사세자이사(僉議贊成事世子貳師)를 삼고 김흔(金忻)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다.

◇군사에 피해(被害)가 있는 주군(州郡)을 명(命)하여 조세(租稅)를 면제(免除)하다.

◇원(元)나라에서 홍중경(洪重慶)을 보내서 왕(王)에게 벼슬을 주되 정동행중서성좌승상(征東行中書省 左丞相)을 삼고 인후(印候)로 진변만호부달노화적(鎭邊萬戶府達魯花赤)을 삼고 송분으로 선무장군진변만호(宣武將軍鎭邊萬戶)를 삼고 유석(劉碩)으로 충현교위관군천호(忠縣校尉管軍千戶)를 삼아서 다 금패(金牌)를 하사(下賜)하다.

◇전보궐조간(前補闕趙簡)으로 기거주가(起居注簡)을 삼으니 부친상(父親喪)을 당(當)하고 려묘(廬墓) 삼년(三年)을 했으므로 특별히 이 직위(職位)를 내려준 것이다.

◇병오일(丙午日)에 왕(王)이 원(元)나라에 가다.

◇두가지 죄(罪)를 용서해서 내려주다.

◇왕(王)이 흥의역(興義驛)에 머물렀더니 량장강미(郎將康溪)가 원(元)나라로 부터 돌아와서 제(帝)가 왕(王)이 머무르기를 명(命)하므로 들어가서 조회하고서 돌아오다.

◇인후(印候)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가서 새매를 바치다.

◇제(帝)가 세자(世子)에게 내려주되 상주국고려국왕세자(上住國高麗國王世子)를 특진(特進)하고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하고 인하여 수정(水精) 술잔과 물소를 연뇨잔 왕배(王杯)와 진미(珍味)를 하사(下賜)하여 사랑을 하였다.

자단전(紫檀殿)어안(御案)앞에 불러서 보니 물건이 있어서 큰것은 등굴고 작은 것은 뽕족하고 빛이 깨끗하고 단단하니 높이가 자 오(五)촌쯤 되어서 속이 술이 두어말 드리기가 되니 호사발국에서 바친바 락타조알이라 한다.

제(帝)가 세자(世子)를 명(命)하여 보게 하고 인하여 세자(世子)와 따라온 신하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정가신(鄭可臣)을 명(命)하여 시(詩)를 부(賦)하게 하니 가신(可臣)이 시(詩)를 올려 이르되 알의 크기가 동이만하니 그속에 불로주(不老酒)를 감추었구려 원하건데 천세수(千歲壽)를 누리시옵고 술향기 해동(海東)사람까지 미치는 구려 하니 제(帝)가 아름답게 여기고 어쟁(御羹) 한 그릇을 하사(下賜)하다.

세자(世子)가 무릇 들어가서 비일적에는 반드시 가신(可臣)으로 따르게 하였다.

제(帝)가 일찌기 요동수정도(遼東水程圖)를 관상(觀賞)할 새 수역(水驛)에 두고져 해서 가신(可臣)에게 말해 가로되 너의 나라에는 생산(生産)하는 바가 없고 오직 쌀(米)과 베(布)가 약간 뿐이니 만일에 육지로 수출(輸出)하면 길이 멀고 물건이 무거워서 운수(運輸)가 소비(消費)를 충당(充當)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 너를 강남행성좌승(江南行省左丞)을 수여(授與)하여 하여금 바다의 운수(運輸)를 주관(主管)코저 하오니 해마다 곡식이 약간(若干) 천객과 마(馬)이 약간(若干) 천필(天匹)을 거둘 것이다 어찌 국내비용(國內費用)의 만분(萬分)의 일(一)만 보충(補充)하리요.

동인(東人)의 도시민자본(都市民資本)을 충족(充足)하리라.

가신(可臣)이 대답하여 가로되 고려(高麗)는 산천(山川)이 수풀(림:林)과 숲이 십분(十分)의 칠(七)이 되니 경작(耕作)과 방적(紡績)의 노력(勞力)으로 겨우 구체(口體)의 비용을 유지할 뿐이니 하물며 그 사람이 바닷길을 익히지 못했으니 신(臣)의 좁은 소견으로 혹(或) 불편(不便)할까 두렵습니다.

제(帝)가 그렇다고 하였다.

겨울 시월(十月)

분포하여 도지휘사 송분(都指揮使)을 경상도(慶尙都)로 보내고 한희유(韓希愈)를 동북면(東北面)으로 보내고 김지숙(金之淑)을 서북면(西北面)으로 보냈다.

십일월(十一月)

왕(王)이 안남(安南)에서 사냥하다.

◇지밀직사사나유(知密直司事羅裕)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정월(正月)을 하례(賀禮)하다.

십이월(十二月)

상장군유비(上將軍 柳庇)와 장군(將軍) 허평(許評)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세자(世子)가 본국(本國)에 돌아가기를 청하다.

◇박의(朴義)로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삼고 이혼(李混)으로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삼으니 무릇 직명(職名)에 좌우(左右)가 있는 것은 우(右)로 상등(上等)을 하니 원(元)나라 제도(制度)를 따른 것이다.



朝野

農史節要卷之二十

忠烈王二

四年

宋帝昺

祥興元年

春正月

以西海道轉

米給元帥

洪茶盤軍

又令百官出菊豆餉忻都茶

丘軍時茶丘在東京聞金方慶事請中書省來問

○王與忻都茶丘鞠方慶及其子忻茶丘與本國

有宿憾欲使方慶服罪貽禍於國以鐵索圍其首

若將加釘又叱杖者擊其頭裸立終日天極寒肌

膚凍如潑墨王謂茶丘曰向與忻都已鞠訖何必

更問茶丘不聽遂鞠之還自全羅道茶丘等復



故千遇與璚有隙卒謚文正○壬子王及公主世子如元時扈從邀功者衆乃以史官無關於事不許扈駕史臣不從行始此○十二月弓箭陪中原侯盍如元大將軍朴義獻鵠肉○遣知密直司事金忻同知密直司事羅裕調東界防戍軍○倭船入蓮花楮田等島

庚寅

十六年

元至元十七年

春正月遣大將軍元卿如

元奏日本犯邊○將軍吳仁求等還自元言乃顏餘黨哈丹賊將侵我東鄙僉議贊成事洪子藩判密直事鄭可臣等調兵于兵部以安戩爲慶尚道

都指揮使金之淑爲金羅道都指揮使宋玠爲忠
清道都指揮使○二月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
忌山洞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縣界韓希愈屯
雙城右軍萬戶金忻屯藝巖縣界羅裕屯通川界
以備丹賊○令諸王宰樞承旨班主各出米七碩
坊里庶人出米有差以充東界防戍軍糧○時訛
言賊兵已闖入國境中外洶洶洪子藩等議欲避
入江華許珙崔有滄獨不可曰今王在京師豈可
信流言擅移國都子藩等會耆老宰相議之皆曰
當遷珙不能止謂堂吏文証曰衆議如此不可沮

也吾與爾守松京以待王命諸宰樞皆曰人皆謂
許中贊鎮定國家今其誤國乎珙歸家召子孫曰
吾當留此若輩有宗從我者非吾子孫必處以法
未幾印侯自元來曰帝聞還都江華命王曰其言
若實執首謀者以來國人聞之服珙智識○三月
閻梨帖木兒遣人來戍雙城○帝以寫金字經徵
善書僧於是遣僧三十五人如元○前知僉議府
事金周鼎卒周鼎少好學沉厚寡言不妄交遊初
調富城尉時北兵大至國家驚擾周鼎備敵撫民
威惠並著一方稱之其罷達魯花赤王京留戍軍

合浦鎮守軍屯田等軍請赦金方慶皆周鼎策也
王益重之東征之役颶風覆舟官軍多溺死周鼎
以計拯溺所活甚衆然爲鷹坊都監使以鷹犬媚
王頗張威福○王及公主世子至自元○帝詔罷
東寧府復歸我西北諸城王拜其摠管韓慎桂文
庇爲大將軍玄元烈爲太僕尹羅公彥李翰庶將
軍○夏四月遣寫經僧六十五人如元○五月賜
崔咸一等三十一人及第○王置酒以西北諸城
人還附本國者悉許侍宴○哈丹入海陽界○點
兵自五品以下文官及內侍茶房三官五軍禁學

兩官皆令從軍○遣將軍金延壽如元秦哈丹入
寇○六月命大將軍韓慎將西京兵禦哈丹于東
界○遣將軍金興裔如元獻鷄 金延壽還自元
帝詔曰討賊軍至高麗則道路回遠宜自咸平府
出南京海陽截斷賊道○秋七月復置西北諸城
守令以將軍鄭復均爲西京留守○元開元路達
魯花赤八禿滿遣使來索軍糧○以副知密直司
事鄭仁卿爲西北面都指揮使○遣知僉議府事
金暉如元賀節日○王召宰樞議禦賊僉議叅理
印侯曰上親將出東界以斷賊路賊如闌入近境

上入江華使臣等領兵禦之王曰民惟邦本予豈先避以撓民心賊雖長驅而至予爲三軍之殿以全社稷○八月辛未朔日食○遣將軍趙瑊押寫經僧如元○王及公主世子獵于馬堤山○以韓希愈判密直司事○遣大將軍柳庇如元乞師且奏避賊江華帝從之○世子納前樞密院副使洪文系女爲妃○九月王及公主獵于都羅山○以備尉府尹閔壹爲全羅道指揮使判司宰寺事嚴守安爲忠清道指揮使○元遣使修補藏經○王祭蠶于壽康宮○遣上將軍卓信以處女十七人

獻于元○冬十月元遣使頒赦○徙婦人老弱于
江華○十一月移國史及寶文閣秘書寺文籍于
江華○遣大將軍柳庇如元秦哈丹入雙城○徙
宮人于江華又遷太祖塑像元遣平章事闊梨
帖木兒來助討哈丹闊梨帖木兒遣人來告曰國
王宜留京城以搞吾軍○遣世子如元政堂文學
鄭可臣禮賓尹閔漬等從行世子至京館于洪君
祥家一日帝引見便殿隱几而卧問爾讀何書對
曰有師儒鄭可臣閔漬在此宿衛之暇時從質問
孝經論孟帝大悅試喚可臣來世子引與俱入遠

起而冠責曰爾雖世子吾甥也彼雖陪臣儒者也
何得令我不冠以是仍賜坐問本國世代相傳之
序理亂之迹風俗之宜自辰至未聽之不倦其後
命公卿議征交趾有詔高麗世子之師二人召與
同議二人議曰交趾遠夷勞師致討不如遣使招
來如其執迷不服聲罪征之一舉可以萬全對稱
旨於是授可臣翰林學士嘉議大夫瀆直學士朝
列大夫時人榮之○元以趙仁規爲高麗國王府
斷事官賜金虎符○十二月以安戩爲忠清道都
指揮使○哈丹兵數萬陷和登二州殺人爲糧得

婦女聚廳而脯之遣萬戶印侯禦之○元平章事薛閣干閣梨帖木兒右丞塔出等率步騎一萬三千人來○丁亥王避兵于江華命知都僉議司事宋玠留守王京玠棄京城奔入江華西京留守鄭仁卿亦自西京逃來

辛卯

十七年

元至元八年

二春

正月

哈丹將至

鐵嶺防

守萬戶鄭守琪望風遁還因巡馬所鐵嶺道隘纒通一人哈丹下馬魚貫而登時賊飢甚及得守琪所棄資糧大饗數日鼓行而前遂踰嶺闌入交州道金忻等皆不守而走賊乃攻陷楊根城○甲寅

哈丹屯原州有五十騎到雉岳城下剽掠牛馬原
州別抄鄉貢進士元冲甲率步卒六人逐之奪賊
馬八匹而還戊午賊都刺闞禿於乃孛蘭等領兵
四百又至城下得本州祿轉米甚喜冲甲與敢死
者仲山等七人出覘之仲山先入賊中斬一人因
追至荆門外賊皆棄鞍馬而走得馬二十五匹防
護別監卜奎大喜悉以所獲鞍馬與之己未賊復
來多張旗鼓先使一人持書來誘冲甲出斬持書
者繫其書於頭擲之賊皆退益修攻城之具城中
震懼庚申賊遣所俘楊根城婦女二人來誘城下

冲甲又斬之賊鼓譟而進百計攻之矢下如雨城
幾陷興元倉判官曹慎出城與戰冲甲突上東峯
斬賊一級賊稍亂別將康伯松與奴道尼等三十
餘人助之州吏元玄傳行蘭元鍾秀與國學養正
齋生安守貞等百餘人下自西峯合擊曹慎援檣
以鼓矢貫右肱鼓音不衰賊前行少北後者驚擾
自相輾轢州兵合擊聲振山岳斬都刺閣等六十
八人射殺者幾半自是賊鋒挫銳不敢復攻諸城
亦堅守始有輕賊之心皆冲甲之力也○世子謁
帝請討哈丹帝命那蠻歹大王將兵一萬討之○

二月世子命將軍吳仁永奏帝曰哈丹陷北界諸城帝曰爾國唐太宗親征尚不克又於我朝初未歸附我朝征之亦未易捷今此小寇何畏之甚耶仁永奏云古今盛衰不同爾帝諭以夜戰○三月遣大將軍宋華守開京宮闕華遇丹賊十餘騎斬三級擒一人○利川人申費與哈丹謀人通龍岡人金拓亦投賊嚮導入京並斬于市○夏四月以韓希愈判三司事金忻判密直司事崔有滄副知密直司事監察大夫○原州山城防護別監卜奎獻俘五十八人○谷州別將康平起等獻所獲賊

馬鞍等物忠州山城別監遣人報破賊且獻馘四十級○辛巳王出迎元兵于藍島北郊宴河西國王慶重郡王薛閣干閣梨帖木兒平章塔出右丞白帖木兒薛閣干謂王曰今江南漕運未到若臨敵乏食奈何又謂贊成事洪子藩曰爾爲相國錢穀皆若所知宜隨處支給王難之謂曰發內庫所儲可支○戊子王迎那蠻歹大王塔海元帥于後親驛宴慰那蠻歹謂王曰王亦可親出禦賊王辭以老病那蠻歹曰賊入室豈以老病自安乎王不對○己丑那蠻歹遣人謂王曰昨日辱臨勞慰敢

不深感但禦賊之事不答而去予實感焉隣人失
火尚往救之況是自家事其可坐視乎因獻公主
鞍一部○壬辰薛閣干大軍次金嶺驛胡禿赤言
五月五日遇賊而戰蒙古謂術人爲胡禿赤印侯
蘭之使秋官正奇孝真占之遇豫卦乃云五月二
日見賊而戰勝侯以告薛閣干閣干引問之對如
前又問擒哈丹否曰不擒曰旣曰戰勝又曰不擒
何也曰事過乃驗○遣將軍吳仁求如元奏哈丹
侵至王京○五月丁酉朔賊屯燕岐縣薛閣干大
軍及我三軍夜半發木州黎明至燕岐正左山下

薄賊陣出其不意圍之賊大驚欲登山負險而戰
我三軍步卒在前騎兵逐後賊腹背受制皆棄馬
隱於林木間射我前鋒中二人我軍疑懼不敢進
金忻叱且令曰敢後者斬於是步卒五百爭先登
殊死戰有卒李碩田得賢等突前斬賊先鋒壯士
二人乘勝大呼大軍合擊賊勢窮奔潰追至公州
河伏屍三十餘里溺死者甚多賊精騎千餘渡河
而遁獲其婦女衣服鞍馬寶器不可勝計日暮回
軍屯于燕歧之北五十許里○哈丹賊後至者三
千騎過鐵嶺屯于交州○甲辰賊精騎修治軍容

復來對陣那蠻歹大王以不及大戰憤恨欲與之
戰賊有勇士一人射我軍每發輒倒韓希愈持槍
馳馬突入賊陣人馬辟易扼勇士而出斬之揭其
首于槍以示之賊皆褫氣大軍縱擊大敗之遂班
師次石碛驛那蠻歹使謂薛閣干曰賊魁未擒不
可不追薛閣干曰如聖旨則可用多殺人爲○
印侯韓希愈金忻遣人告捷獻所虜婦女八人○
賊一千至古東州聞官軍破賊於燕歧遂還過鐵
嶺而去○幸昇天府犒官軍○贊成事致仕金連
卒連嘗夢所佩金魚墮地自解曰身章已去不可

久留遂引年乞退性淳厚凡人之慶弔無親疎皆力助之○癸亥幸開京○薛閣干謁公主獻所虜男女五十人良馬五匹三及公主宴慰之薛閣干軍令嚴肅士卒震懾所過秋毫不犯聞賊屯燕波併日而行出其不意二戰而破皆其力也○六月丁卯朔王及公主還江華○遣金忻于竹田韓希愈于忠清羅裕于交州道追捕哈丹餘賊辛未賊五百八十人降于希愈哈丹之子老的引軍踰竹田趣平壤羅裕禦之將捨舟而陸玄文爽止之曰彼其原隰回互恐有伏裕不聽未成列賊大至裕

麾軍而退僅得登舟而郎將李茂與數十人不及
登舟文奕立舟上呼曰茂勉之能立奇功國有賞
孰與委身逆虜妻子爲僇乎茂與數十人走獨山
賊將輕之下馬坐胡床分其衆環山而登飛矢如
雨茂偃樹立日晚飢甚嚼囊中乾糲且謂軍士曰
男兒當死中求生毋恐關弓左射正中賊將喉應
弦而倒賊中自亂茂等大呼迫擊斬馘無算○遣
郎將高世如元請親賀聖節并奏復都開京帝許
之○元遣海道萬戶黃興張侑千戶殷實唐世雄
等以船四十七艘載江南米十萬碩來賑世子嘗

奏比年國人征戍轉餉夫其農業以致飢饉故有
是賜遂頒米于七品以下有差帝意本在賑貧今
不先貧民富者所得居多○秋七月分遣救急別
監于忠清西海道○以閔萱爲右承旨時承旨缺
判事李德孫權宜及萱皆托內僚求之王難於取
舍手書籌令三人探之萱得之○遣政堂文學鄭
可臣如元賀節日○元遣浙西營田使大塔等來
頒赦○以安戩爲西北面都指揮使○以旱荒分
遣安集別監于諸道量減租稅○八月僉議中贊
許珙卒珙孔巖縣人性恭儉不事生產雖至達官

食不過一器布被蒲薦處之怡然群居慎口其少也常率一僕掩骼埋胔殆無虛日見棄屍自負瘞之嘗月夜彈琴隣有處女踰墻而奔珙不敢近喻以禮義其女慚悔而返卒謚文敬○遣將軍金位良如元東京瀋州等處推刷人物○以李德孫爲西北面指揮使○遣近侍郎將金龍劍爲慶尚全羅忠清道蘇德別監州郡被賊百姓困苦而無賴之徒怙勢騷擾怨讟交騰天文屢變將欲按問官吏善惡以行賞罰○九月以洪子藩判典理司事世子師趙仁規判軍簿司事世子傳康承益判版

圖司事世子保鄭可臣爲僉議贊成事世子貳師
金忻判密直司事○命被兵州郡蠲免租稅○元
遣洪重慶授王爲征東行中書省左丞相以印侯
爲鎮邊萬戶府達魯花赤宋玠爲宣武將軍鎮邊
萬戶劉碩爲忠顯校尉管軍千戶皆賜金牌○以
前補闕趙簡爲起居注簡喪父廬墓三年特授是
職○丙午王如元○宥二罪以下○王次興義驛
郎將康羨還自元帝命王停入朝乃還○遣印侯
如元獻鷄○帝授世子特進上柱國高麗國王世
子賜金印仍賜水精杯犀角蓮葉盞玉杯珍味以

寵之召見于紫檀殿御案前有物大圓小銳色潔而貞高可尺有五寸內可受酒數斗云摩訶鉢國所獻駱駝鳥卵也帝命世子觀之仍賜世子及從臣酒命鄭可臣賦詩可臣獻詩云有卵大如甕中藏不老春願將千歲壽曛及海東人帝嘉之賜御羹一碗世子凡入見必以可臣從帝嘗觀遼東水程圖欲置水驛語可臣曰汝國無所產唯米與布耳若陸輸之則道遠物重所輸不償所費今欲投汝江南行省左丞使之主海運歲可致若干千斛匹豈唯補國用之萬一可以足東人寓都之資可

臣對曰高麗山川林藪居十之七耕織之勞僅及
口體之奉况其人不習海道以臣管見恐或不便
帝然之○冬十月分遣都指揮使宋玠於慶尚道
韓希愈於東北面金之淑於西北面○十一月王
獵于安南○遣知密直司事羅裕如元賀正○十
二月遣上將軍柳庇將軍許評如元請世子還國
○以朴義爲右副承旨李混爲左副承旨凡職名
有左右者以右爲上從元制也

壬辰

十八年

元至元二
十九年

春正月甲午朔日食○遣

元卿如元遼陽路推刷已未年以來被虜人物○

편집후기

책을 편집하다 서광출판사에서 ‘고려사절요’를 보게 되었다.

충렬왕 16년부터 17년까지 몽고족 함단이 쳐들어온 우리마을에서 격퇴된것이 쓰여있어 부랴부랴 목촌향교 전교님께 해석을 부탁했다.

당시의 싸움을 연기대첩이라 하는데 서면에서 연기대첩을 빼 놓아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꼴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책이 약속된 시일보다 늦더라도 해석문과 원본을 같이 인쇄하게 된것이 다행한 일이다.

여름내내 연기군내 사찰을 조사할것과 3년동안 조사할 연기군내 도유지중 서면편람 발췌하여 넣게 된것은 미리준비한 덕 이리라.

올 한해는 정말 짧았다.

내년 역시 짧은 한해가 되길바란다.

-문화과장 인영수-

향토사료제 7집

발행일
1993. 11. 30

발행일
1993. 12. 27

발행인
조치원 문화원장 장 영

편집인
문화과장 임 영 수

인쇄처
서광 출판 인쇄 공사